한국전력공사 공인협약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식당,병원,목욕탕,숙박업소, 관공서,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쓸/레/이 051)743-3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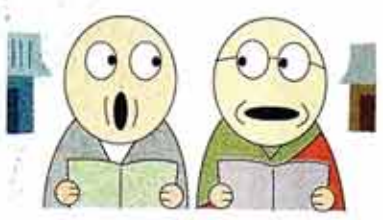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6월 30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28 호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사찰마다 다른 의식

대학 신입생인 서울 신림동의 장모씨는 대불련에 나가면서 다시금 불교의식을 배우는 데 여념이 없다. 장씨는 고교시절 집근처 사찰에 나가면서 의식을 익혀왔다.

이후 대학근처의 사찰에 나가면서 행하는 의식은 음절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반야심경 음절뿐 아니라 삼귀의 사홍서원도 노래식으로 다시 배워야 했다. 또 초파일 때 봉사활동 나갔던 사찰에서는 한글의식을 하고 있어 따라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있다 왔다.

각 사찰마다 다른의식은 불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한다. 반야심경과 천수경, 사홍서원이 없는 남방불교의식을 행하는 사찰도 있다.

우리불교의식은 〈석문의범〉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문위주의 경전에 따른 불교의식은 인구의 86%가 한글세대인 상황에서 어려운 난관에 처해있다.

한문-한글등 제각각 의식 통일화 절실

부산 영주사의 한 신도는 한문 일색으로 돼 있는 법요집을 대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의문이 생겨 정신이 집중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글의식의 경우도 사찰마다 각각이어서 음절이 모두 다른 것은 물론 사용하는 문구나 단어의 어휘선택도 차이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0여곳에 이르는 불교의식교육원의 교육내용도 지 각각이며, 종단과 단체, 개인이 만든 법요집도 30여종 이상이 있으나 통일성이 부족하고, 일부 사찰들은 각 법요집의 필요한 곳만 이곳 저곳에서 모아서 책으로 엮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조계종 포교원에서 〈통일법요집〉을 발간했으나 불교의식의 통일화는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식이다. 불교대중화에 있어 의식의 통일화는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종단 종파에 관계없는 범종단 공동기구를 발족하여 협의를 통한 의식의 통일화 작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찰 수해대비 '시급'

작년 피해사찰 10여곳 미복구상태
국지적 호우 예상…성보 피해도 우려

사찰 수해대비가 시급하다. 제주지역은 이미 이달 중순 장마가 시작됐고, 하순부터 남부와 중부지방이 장마권에 들어간다.

기상청은 올 장마기간이 평년보다 조금 짧겠으나, 장마전선이 불규칙적인 남북이동을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강수량의 지역차도 클 것으로 내다봤다. 국지적으로 집중호우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찰 수해대책은 미비해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해 집중호우로 64개 사찰이 피해를 입었으나, 아직도 복구가 안된 곳이 10여개 사찰에 이르는 것으로 본지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기도 파주 보광사의 경우, 지난 해 산 정상쪽 군부대 공사장에서 밀려내려온 토사가 요사채를 덮쳐 인명피해까지 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치우지 못하고 있다. 주지 임문스님은 "큰비가 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군부대에 토사제거 작업을 재차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보광사 인근의 영묘암 바로 앞을 지나는 계곡도 지난 해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상태다. 대웅전과 계곡이 불과 10m 거리여서 보는 이를 아슬아슬하게 한다.

성보문화재 피해도 우려된다. 고성 건봉사 능파교(강원도 문화재자료 35호)의 경우 석축 밑 바닥이 패여 폭우가 내릴 경우 붕괴 위험이 높아 시급한 보수가 요청된다.

문화재청은 개별 문화재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하다며 문화재 주변의 축대, 배수시설 관리, 누수 및 붕괴예방 등을 당부했다.

지난 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찰의 주지스님들은 해당 지자체에 완벽한 복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예산이 부족해 찾아지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지금이라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주군청의 한 관계자는 "응급대책이라도 세워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지난해 폭우로 무너진 계곡이 지금도 그대로 방치돼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 경기도 파주 영묘암 대웅전은 계곡과 불과 10m 거리에 있다. 파주=고영배 기자

조계종-선학원 '한뿌리' 공감

종지종통 봉대·권리제한 해제 등 8개항 합의

조계종 중앙종회 법인대책특위(위원장 영담)와 선학원 현안대책실무위원회는 22일 4차 연석회의를 열어 양측간 관계정립을 위해 논의하고 8개항의 공동합의문(합의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78년 선학원이 '임원은 분원장 중에서 선출한다'고 정관을 개정하며 파생된 조계종과 선학원의 길등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조계종총무원은 "조계종-선학원의 문제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양측은 이날 공동합의문을 통해 △조계종과 선학원은 한뿌리임을 공감하며, 향후 교계의 발전에 최선을 다 한다 △선학원 정관 목적 조항에 '대한불교조계종 종지, 종통을 봉대한다'를 삽입 △선학원 정관 임원선출 조항을 '임원은 조계종 승려 중 덕망이 높은 승려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키로 했다.

또 △조계종은 선학원에 시행하고 있는 승적, 교육, 선거직, 종무직 제한 등 일체의 권리 제한을 해제하고, 선학원은 조계종에 분담금 등 의무를 이행 △선학원은 합의문 발표 후 조계종 소속 승려가 선학원에 사찰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총무원과 협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선학원 명칭에 '조계종'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론치 않기로 했다.

이날 채택된 합의문은 조계종 중앙종회와 선학원 이사회의 결의, 조계종 총무원장과 선학원 이사장의 서명 및 공증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7월말경 열리는 임시종회에서 합의문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선학원도 같은 시기 이사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바른 직업인으로 사회회향"

직장직능단체 170여 지도자 한자리
울안 전국적 '연합기구' 출범 결의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이 주최해 19일~20일 서울 서초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 직장직능 불교신행단체 지도자대회에 참가한 74개 신행단체 170여 지도자들은 올 12월 안으로 직장직능 신행단체 연합기구를 출범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각 신행단체들은 기초작업으로 직장별 직능별 전국연합회 결성에 힘을 결집시키기로 하고 실무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관련 기사 5면〉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에서 △바른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회향 △직장 직능별 불자모임을 적극 확산하고 법회를 활성화 △불자간 무차화합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직장 직능 불교신행단체 연합조직 결성 추진 등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웰선 기자

조계종 임시종회
7월26일 개회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는 25일 의장단과 각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 연석회의에서 제141회 임시중앙종회를 7월 26일 개회해 30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기로 했다. 임시종회에서 중앙종회는 원로회의법 개정, 종헌·종법특위 활동보고, 조계종-선학원 공동합의문을 인준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종헌특위
활동시한 연장

조계종 종헌·종법개정특위(종헌특위, 위원장 정휴)는 24일 4차 회의를 열고 활동시한을 차기 정기중회(11월 첫주) 이전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종헌특위 위원장 정휴스님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원 포교원의 기구 개편 △검직금지 조항 △총무원장 권한 △본사주지회의 등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다며, 종헌특위 위원들의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 〈관련 기사 3면〉

종헌특위 위원 20명중 11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의 활동보고를 듣고 30여분만에 마쳤다.

한편 종헌특위는 원로회의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7월중 종헌특위 소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원로회의법 개정은 지난 3월 139회 임시종회에서 개정한 원로회의법의 원로의원 연령상한 규정이 종헌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클릭! 인터넷 TV 열려라 불교정보

컴퓨터의 '컵'자도 모르는 '컴맹'도 인터넷을 할 수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집에서 보는 TV에 인터넷TV 수신기만 설치하면 간편하게 인터넷 검색에서 PC통신 전자우편까지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TV리모콘으로 작동하는 '인터넷 안방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불교정보화에 앞장서온 본사는 홈TV인터넷과 함께 '인터넷 TV'에 불교정보를 독점 제공합니다. 또, 인터넷 TV를 통해 종단 종무행정 네트워크와 포교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을 개시합니다. 인터넷 TV에 가입하시면, 종단이나 사찰의 각종 공문, 법문자료 등을 인터넷TV로 송·수신할 수 있으며 불교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종단과 사찰, 불자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가입 문의: 현대불교신문 전략정보실 (02)732-1520 · 737-8881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제2회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

7월22일~24일, 에버랜드 · 사찰서 2박3일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앞날의 주인공이 될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작년에 이어 제 2회 어린이 여름캠프를 엽니다. 사찰과 에버랜드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신심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에버랜드 통나무집에서 생활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일 정:1999년 7월22일(목)~24일(토), 2박3일(사찰1박 에버랜드통나무집 1박)
◇장 소:용주사 신륵사 와우정사 경수사 백련사 에버랜드
◇대 상: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5백명)
◇참 가 비:5만5천원
◇문 의:현대불교신문 전화(02)723-1776
◇은행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김원우)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진행 : 선재이벤트
후원 : 조계종 포교원 · 진각종 통리원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 불교조각원



사 설

매듭 푼 선학원문제

조계종의 '뜨거운 감자' 선학원 문제가 마침내 극적인 합의점을 이끌어낸 것은 조계종을 위해서나 선학원을 위해서나 무척 잘된 일이다. 조계종이 요구한 '조계종 종지종통 봉대'를 정관에 명시할 것, 임원은 조계종 승려중 덕망있는 인사를 이사회에서 선출할 것, 조계종 승려가 선학원에 사찰등록을 할 경우 종단과 협의할 것 등을 선학원 측이 수용하고, 선학원이 요구한 소속 조계종 재적승들의 승적관계, 도제 교육문제, 선거직 종무직 제한 등 권리제한 해제를 조계종이 수용한 것은 모두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같은 합의는 조계종의 중앙종회, 선학원의 이사회에서 추인돼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현단계에서 완전히 매듭지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양측 중 어느 쪽이라도 이 합의문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불행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란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선학원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문제'였는데 뜻밖에도 먼길을 우회해온 느낌이 짙다. 무엇보다도 역사적 측면에서 조계종과 선학원은 불일불이(不一不異)의 동체적 관계였다. 조계종이 비구승단으로서 출발한 거점이 바로 선학원이었고, 선학원은 조계종을 탄생시킨 모태로서 조계종 승려들에 의해 조직되고 발전해온 단체였다. 따라서 조계종과 선학원은 불편할래야 불편할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조계종과 선학원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념문제보다는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조계종이 잦은 분규로 내홍을 겪는 사이 일부 새로 창건된 사찰은 재산보호 차원에서 종단보다는 선학원 등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 일부 비조계종 사찰도 여기에 가세해 몸집이 불어난 선학원은 준종단(準宗團)의 위치에 서게 되자 차츰 종단과 무관한 행보를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불화의 씨앗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조계종은 선학원이 법률적으로 종단의 통제 아래 있어줄 것을 요구했고, 선학원은 이미 설립초기와는 달리 변화된 법적 위상을 들어 조계종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데서 대립이 계속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선학원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선학원이 종단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 했는지를 생각하면 금방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었다. 조계종과 선학원이 불일불이의 동체적 관계라면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에 조계종과 선학원이 지리한 대치를 끝내고 합의문을 작성한 것은 바로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고, 화합을 우선하는 승가정신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선학원 문제 해결과정은 비록 먼길을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화합은 자주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기해야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서로 대화를 계속하려면 자기주장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일만 해도 자기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성급하게 징계를 하거나 분종을 선언했다면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다행히 양측이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거듭 칭찬하고 축하할 일이다. 비온 뒤에 더욱 땅이 굳어진다고 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양측은 더욱 힘을 합쳐 불교발전을 선도해줄 것을 기대한다.

"경승포교 재도약 다짐"

전국 경승실장 회의 정례화
월간소식 '등불' 발간 결의



◇22일 열린 전국 지방경찰청 경승실장 회의.

경승탄생 20년과 경승단 창립 13주년을 맞아 전·의경 포함 15만명에 달하는 경찰과 경찰가족 60만여명에 대한 포교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대한불교경승단(총재 고산·조계종총무원장)은 22일 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99년 전국 지방경찰청 경승실장(지단장)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경승실장 회의를 정례화 하는 등 경승조직의 체계화 및 경찰포교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승단 총재 고산, 단장 정련(포교원장), 사무총장 현진(포교부장), 전국 지방경찰청 경승실장 및 지단장, 경찰대학, 경찰병원, 경찰종합행정학교 경승실장 등 경승단 간부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경승지도자대회 및 경승연수(9월23일경)와 전국 경승 7원법회(10월 13일경) 개최, 경승령 개정안 확정, 경찰포교원 교양소식지 월간 〈등불〉(가칭, 32쪽 분량으로 1만부 발행) 발간 등을 결의했다.

이날 확정된 경승령 개정안은 △경승단 사업 및 경승 활동과 관리에 관한 협의와 결의권을 갖는 '전국 경찰청 경승실장 회의'와 '지방 경승실장 회의'의 신설 △경승의 역할과 책임,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명기한 경승실 운영규정 명시 △매년 1월, 7월 및 재위촉시 경승활동 보고 의무화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회의는 경승령 개정을 통해 경승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조직의 활성화를 이루기로 하는 등 경찰 포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23일 열린 문화부장관 초청간담회.

"국민화합 불교계 노력에 감사"
문화부장관 교계지도자 초청간담서 밝혀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23일 오후12시 부임후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진각종 통리원장 성호,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조계종 호계원장 월서스님 등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을 초청, 서울 중구 필동 한국의 집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박장관은 불교계가 지난해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국난극복법회를 잇달아 개최한데 이어, 최근 동·서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여는 등 국민화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산스님은 "정부의 문화재청 승격을 계기로 우리 문화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과 사찰의 쾌적한 수행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김태복 소장 군법당 건립 시주금 뇌물적용 재판과 관련 정부의 공정한 종교정책을 당부했다.

김재경 기자

'군법당 시주금 뇌물 판결' 25개 단체 대책위 구성
공동변호인단 · 군법사 소환등 추진

불교계 25개 단체로 구성된 '김태복소장 군법당 건립 시주금 뇌물적용 재판 범불교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공동위원장 현진·성광스님등 8명)가 구성됐다.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 예비역군법사단, 법조불교인회, 교수불자연합회, 전국교정인연합회, 대학생불교연합회 등 25개 단체 대표들은 23일 서울 종단협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대책위를 구성,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키로 했다.

대책위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법당 건립 시주금이 재판의 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향후 불자들의 순수한 보시에 대해 일반인의 불신을 갖도록 하는 행위"라면서 "군당국이 불교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공개 사과하고 김태복 소장의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조불교인회 소속 변호사들의 '소견서' 발표, 대규모 공동변호인단(100~150명) 구성, 고등군사법원 재판방청, 장관 면담 및 항의시위, 현역군법사 소환 등 단계별로 강력하고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전국불교운동연합과 조계사신도회는 21일과 23일 각각 김태복 소장 선고공판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불련은 성명서를 통해 "김태복 소장 사건은 군법당 건립을 뇌물수수의 수단으로 왜곡한 군대내의 조직적인 불교탄압행위"라고 규정하고 "군당국은 불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김장군을 원직에 복귀시키라"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10월초 서울-평양 '민족화합 종교축전' 추진
KCRP-평통 의견 모아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분과위원회는 22일 민주평통사무처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민족대화합을 위한 종교축전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KCRP 회장 고산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박홍 종교분과위원장 등 각 종교 대표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정 신부(성공회대 총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과 평양에서 종교축전을 개최해 민족화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종교축전 개최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규모및 북한 종교계와의 접촉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개최 시기는 10월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교회협의회 김동완총무는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별도로 방문해 종교축전 개최를 협의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신도등록사업 본사이관 반대"
조계종 포교국장회의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25일 회의실에서 전국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를 열고 포교·및 신도관련 종법 제·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교국장 스님들은 본·말사가 직접 신도등록 신청·접수·발급의 일체업무를 담당하는 신도등록 사업의 본·말사 이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신도의 입교교육과 기본교육을 본·말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신도교무금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3년에 한번 정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신도관리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재경 기자

"불교TV 정상화 종단차원 앞장"
조계종 btn특위 결의

조계종 btn특위(위원장 정휴스님)는 21일 7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스님의 불교TV 정상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천명 촉구 △태응스님 주식 30억원 무상증여건에 대한 진상 파악 △종단의 의사 결정 기능 강화위해 새 이사 추천 △특위 결의사항 종무회의에서 적극 수용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특위에서는 태응스님에 대해 징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불교TV의 한 관계자는 "최근 불교TV회장 태응스님이 약정서를 통해 30억원의 주식을 불교TV에 무상 증여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총무원장 부존재소송 7월23일 다시 심리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이수영)는 25일 지난 3월 정화개혁회의 의장 정영스님이 제출한 조계종 총무원장 부존재 확인소송과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7월23일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두 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원고측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했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실천하는 수행을…

생활속의 삼매체험 선禪 수련회 참선생활운동 99전국 여름수련

1, 2차 - 전북 금산사 3차 - 제주 원명선원

내가 바르면 세상이 바로 보이고, 내가 비뚤어지면 세상도 비뚤어 보입니다.
내가 남을 속이면 남도 속이는 사람같고, 내가 정직하면 남도 정직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남이 그릇되게 보이는 것은 내가 그릇된 때문이며,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것은 나에게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허물을 모두 고치고 비뚤어진 세상을 다 바꾸려면 요란하여 시끄럽기만 할 뿐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허물과 비뚤린 마음을 바로 하면 세상이 모두 바로됩니다.
우리 각자 마음의 삼매를 닦아 나를 고치면 세상이 편케됩니다. 본래 번민과 고통이 없는 삶을 삽시다.

♣취지 : 내가 없이 사람이 실종된 맹목적이고 타성에 젖은 삶이 과연 사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까? 참선 생활 운동에서는 3박 4일의 수행중 누구나 곧바로 마음 자리를 닦아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 순간 깨달음의 삼매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수련일정 :
1차 8월 2일 - 8월 5일 (3박4일) 200명 전북 금산사
2차 8월 7일 - 8월 10일 (3박4일) 200명 전북 금산사
3차 8월13일 - 8월 16일 (3박4일) 50명 제주 원명선원

♣특징 : 1. 본 원의 수련은 통상 극기적인 수련이 아니며, 깨달음으로 다가가는 삼매를 체험할 수 있음.
2. 수련후에 삼매를 체험할 수 있음.
3. 수련후 생활중에 삼매 생활이 지속적으로 가능토록 지도함

♣선착순마감 : 선착순으로 7월 10일까지, 마감후에는 현장에서는 접수안됨
(3차의 제주를 제외한 타 지역은 항공 이용시 예약을 곧바로 하여야함.
조속히 접수후 안내를 받아야함. 항공 이용자는 가능하면 팩스로 속히 우송바람)

♣대상 : 일반인(고교생은 보호자 참석시 가능함) 65세 이하

♣자원봉사신청 : 매 차수별 7명내외 (회비없음)

♣회 비 : 8만원 (온라인 농협 953-17-000706, 우체국 510016-0120528 예금자 : 원명선원)
※입금후 반드시 담당자 통화요함. 접수자는 개별 통지 받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신청서류 : 1. 이름(한자, 한글) 2. 주소 3. 전화(자택,직장,휴대전화) 4. 종교
5. 주민등록번호 6. 직업 -학교(과)반 7. 참가동기 8. 수련회참가경험 유.무(유경험자는 언제 어디서 기간) 9.원하는 차수를 지망차수 1지망부터 3지망까지 기재

♣일상수행내용 : 수행중묵언, 법문, 점검, 행선20- 30분, 좌선10-20분, 예불, 선문독송, 염송

♣접수처 : 제주시 화북1동 원명선원 참선생활운동
☎ 064)755-3322 전송 : 064)755-8913

참선생활운동 · 한라산 원명선원

'20년 갈등' 종식…불교발전 '합심'

조계종-선학원 합의문 채택 의의

종회-이사회 결의 남았으나 '낙관적'

합의문이 정식 책택되어 발효되기까지는 아직 몇 차례의 절차를 남겨두었지만, 조계종과 선학원의 20여년에 걸친 갈등관계를 끝맺음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다. 양측 대표로 참석한 영담스님과 성문스님은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었다. 선학원과의 오랜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종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게 됐다"는 말로 합의문(합의안) 채택의 의미를 압축해 설명했다.

양측의 갈등관계는 종료해도 '정상화' 말고는 큰 득이 없는, 그러나 계속하면 서로의 에너지만 소진하는 묘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같은 속성을 양측은 잘 알고 있어 언젠가는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 특히 '한뿌리'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이같은 선천적 의식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한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

조계종과 선학원은 96년 당시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이사장 정일스님이 △조계종과 선학원은 한뿌리 △선학원 임원들의 조계종 제적원 철회, 조계종은 선학원에 시행했던 규제조치 해제 △선학원 내부규정에 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 신설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양측 협의기구 설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다음 해 7월부터 시작된 양측 실무회의에서 선학원 임원 선출과 관련해 의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이에 조계종이 다시 선학원 도제에 대해 행자교육 제재를 취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조계종은 선학원과의 갈등종료를 통해 대각회 등의 조계종 관장을 원활케 할 수 있게됐다. 이는 조계종과 여타의 법인 관계를 가늠하는 기준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선학원은 도제의 행자교육 및 수계 제재, 승적 발급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한때 선학원은 재정의 부담과 여론의 따가움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교육기관과 승적 등과 관련된 행정기구 신설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성문스님은 "합의가 됐으므로 만들 일이 없어졌다"고 홀가분함을 드러냈다.

조계종-선학원 공동합의문

1. 대한불교조계종과 재단법인 선학원은 한뿌리임을 공감하며, 동질성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의 갈등을 완전히 종식하고 향후 교계의 발전에 최선을 다 한다.
2. (재)선학원 정관 제3조 목적 조항에 '대한불교조계종 종지, 종통을 봉대한다'를 삽입한다. 단, 조계종은 이 조항에 대한 종헌·종법의 확대해석을 할 수 없으며, (재)선학원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의 일체 권한을 침해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3. (재)선학원 법인 정관 제6조 선출 조항 제1항을 '임원은 조계종 승려 중 덕망이 높은 승려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한다.
4. 조계종은 (재)선학원에 시행하고 있는 승적, 교육, 선거직, 종무직 제한 등 일체의 권리 제한을 해제하고, 선학원은 조계종에 분담금 등 의무를 이행한다.
5. (재)선학원은 합의문 발표 후 조계종 소속 승려가 (재)선학원에 사찰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총무원과 협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6. (재)선학원은 조계종과의 합의 사항을 담은 정관을 임의로 개정할 때에는 모든 합의는 무효로 한다.
7. 위 합의 사항은 조계종 중앙종회의 결의와 (재)선학원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후 조계종 총무원장과 (재)선학원 이사장의 서명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8. 조계종과 (재)선학원의 합의문은 조계종 총무원장과 (재)선학원 이사장의 공동명의로 공증한다.

불기 2543(1999)년 6월 22일

합의문 채택 이후 중앙종회와 이사회의 결의, 양측 대표인 총무원장과 이사장의 서명 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으나, 양측 모두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조계종은 이번 합의문이 96년 합의문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영담스님은 "8월초 총무원장 스님의 서명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학원의 한 관계자도 "선학원이 받는 교육·행정 제재조치를 풀 방법이 없었는데, 길이 열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다른 관계자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도제의 행자교육 입방 불허, 강원까지 마치고도 비구계를 수지하는 못하는 등 조계종의 각종 제재조치로 인해 선학원쪽 스님들이 입은 '상처'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는 향후 양측이 원만히 풀어야 할 또다른 과제로 남아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선학원 갈등 주요일지

△1978. 2. 23 선학원 임원 자격을 조계종 승려에서 분원장으로 변경
△85. 11. 22 제84회 중앙종회, 총무원에 선학원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 파악 요구
△88. 3. 28 제109회 중앙종회, 선학원대책특위 구성
△94. 11. 28 제114회 중앙종회, '선학원 대책특위' 구성
△95. 1. 24 특위-선학원 연석회의 개최,
△95. 7 선학원 도제 교육기회 제한
△95. 9. 28 제118회 중앙종회 법인대책특위 구성과 법인 임원 징계 결의
△95. 10. 5 선학원이사회, 정관개정 불가 재천명
△96. 8. 27 조계종-선학원 공동합의문 발표
△96. 11. 1 조계종-선학원 실무위원간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97. 11. 20 선학원, 조계종 방침 수용 거부입장 천명
△97. 12. 30 조계종, 선학원 도제 행자교육 불허 통보
△98. 2. 17 조계종, 선학원 소속 승려의 제증명 발급 정지
△98. 10 선학원 분원장 회의, 현안문제 권한 이사회에 위임
△99. 1. 23 조계종 종회, 법인특위 구성(위원장 영담)
△99. 2. 11 선학원 실무위원회 구성(위원장 성문)
△99. 4. 13 조계종-선학원 1차회의
△99. 6. 22 4차 연석회의, 공동합의문 채택



◇21일 거행된 금강율원 개원법회에는 비구니계 중진스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6명의 율원생이 입학했다.

세계 첫 비구니 율원 비구니스님 위상강화

봉녕사 '금강율원' 개원 의미

비구니계 최초의 율원인 봉녕사 금강율원(원장 묘엄 봉녕사 주지)은 21일 오전 11시에 현판식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금강율원 율주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지관,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계성,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 수석부회장 진관, 종회의원 일법·수진 스님 등 비구니 스님 3백여명이 참석했다.

율주 지관스님은 법어를 통해 "계는 성불을 이루는 채찍이자, 선(線)이다"면서 "금강율원 1기생들은 마음으로 섭심(攝心)해 계율을 닦고, 밖으로는 위의(威儀)를 갖추어 보리의 종자를 심고 키우라"고 당부했다.

율장의 전문적 연구, 습의와 예참의 올바른 전승, 율학을 전승할 율사의 양성을 목표로 율장정신의 회복과 전승을 위해 지상 2층, 2백여평 규모의 봉녕사 청운당에 강당을 마련했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우스님에 따르면, 금강율원은 세계 최초의 비구니 율원이란 역사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다.

통도·해인·송광·영산율원에 이어 다섯번째로 조계종 율원 전문교육기관으로 등록되는 2년제 과정의 금강율원은 지난 11일 면접 심사를 거쳐 율원생 6명을 선정했다. 1년차에 계율개론과 사미니 율의, 남·북전 율장 비교연구, 선원청규 등의 강좌를 개설하며, 2년차에는 사분비구니율장, 범망경, 비구니교단사 등의 강좌를 연다.

이번 금강율원 개원은 지난 3월 24일 제16기 행자교육에서 여행자(女行者)들에게 비구니 스님 단독으로 〈사미니율의(沙彌尼律儀)〉를 지도할 수 있게 된 연장선에서 이뤄진 비구니계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얼마전 수계현장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니 계율을 강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교우회(전국비구니회교·강사 모임) 회원들을 율사회의에서 징계할 것을 논의했다는 후문이 들렸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진척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비구니 율원의 개원은 대승불교를 지향하는 한국불교에서 소승불교의 계율인 〈사분율〉에 근거해 비구니를 차별하던 기존의 관행을 깨고 비구니계의 위상강화에 일조할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99년 1월 현재 조계종 승려수는 비구 4천77명, 비구니 3천9백17명, 사미 2천168명, 사미니 1천811명으로 비구니스님은 비구스님과 비슷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비구니 스님들은 중앙종무기관의 국장급 이하의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81명중 10명의 종회의원이 있을 뿐이다.

첫 비구니 율원의 탄생은 그간 비구니계가 개혁종단 이후 주장해 온 비구니원 또는 총무원 비구니부 신설, 비구니 총림 및 비구니 본사 설치, 교단 고위 행정직의 비구니스님 중용 등 비구니계의 오랜 숙원사업의 실마리를 푸는 계기가 될 것이란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현재 율장에 담겨 있는 계율의 종류는 14종에 이른다. 이 14종의 계율은 출·재가와 대·소승계로 나눌 수 있으며 출가 즉 비구(니), 식차마나, 사미(니) 등 5중(衆)이 지녀야 할 계는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 식차마나 6법, 사미 10계, 사미니 10계로 구분된다. 재가자인 우바새·우바이가 기켜야 할 계는 5계·8재계·10계 등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목어

바보 山水

운보(雲甫) 김기창(金基昶)화백이라면 우선 '바보 산수'가 떠오른다. 평소 자신을 '바보'라 부르던 그가 80년대 일련의 산수화 연작을 내면서 스스로 이를 '바보 산수'라 이름 붙였다. 전통산수화 기법에서의 완전한 해방감을 맛보게 해주는 파격적인 표현의 '바보 산수' 연작은 속진을 씻어낸 평화롭고 즐거움 넘치는 낙원,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산과 습득의 미소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해와 달을 비롯한 십장생의 해학적인 구도와 표정들이 화가의 그런 심상찮은 경지를 짐작케 해준다. 그렇다면 그가 즐겨 쓰는 '바보'란 말은 어쩌면 깨달음을 이룬 성인(聖人)의 경지를 이른 것인지 모른다.

80년은 그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준 해다. 그의 평생반려자로, 청각장애인인 그의 귀와 입 역할에 누이같고 어머니같았던 동료화가 우향(雨鄕) 박래현(朴崍賢)을 잃었다. 그 상실감을 고이 삭혀낸 다음 온힘을 기울여 그리기 시작한 것이 '바보산수' 연작. 큰 슬픔과 괴로움을 이겨낸 다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적어도 그는 그림의 세계에서 법열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시대 소중한 원로화백이다.

지병악화로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운보화백의 그림들이 그의 이같은 예술혼이나 작품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실로 아름답지 못한 사건에 말려들어 있는 것을 보며 민망스러움을 느낀다.

'고급옷 로비의혹'에 이어 터져나온 '그림 로비의혹'에 운보화백의 작품이 자그마치 2백3점이나 운위되었다. 검찰 조사결과 로비의혹은 없었던 것이라 치부해도 뒤끝은 역시 개운치 못하다.

첫째 무턱대고 무엇이나 의혹의 눈으로 보게되는 요즘 세태가 그렇고, 그 다음 지난해 대한생명은 경영악화로 위기를 맞고 있었음에도 60억원이나 들여 싹쓸이 하듯 한 화가의 그림을 사 들인 그 의도가 그렇다.

최순영씨 부부라 해서 그림애호가가 되지 말란 법도 없지만, 이번 수집에는 예술애호라기보다 '이제 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투기성쪽에 무게가 더 느껴져 병석의 작가에 대한 민망스러움이 더해지는 것이다.

김징자(언론인·본지 논설위원)

교육원·포교원 축소안 논의

조계종 종헌·종법특위 쟁점사항

종헌 개정은 향후 종단 운영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특히 종단의 권력구조라고 할 수 있는 총무원장의 권한, 교구본사 주지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조계종 종헌특위 위원장 정휴스님은 논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도 마치 이를 결정된 것처럼 받아들여 자칫 오해를 빚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해당사자의 신중함을 당부했다. 다음은 22, 23일 열린 소위원회에서의 나타난 종헌 부분 쟁점 사항이다.

■교육원·포교원

△교육원 포교원의 통합 △교육원 포교원을 총무원의 부서로 편입 △현행대로 존치하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안 등 세 갈래 주장이 나오고 있다. 22, 23일 열린 종헌특위 소위에서는 전체회의서 논의키로 함에 따라 논란은 없었다. 이와 관련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와 포교분과위, 교육원 포교원은 두 원(院)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의장단에 제출키로 했다.

■집단지도체제

총무원장 1인에게 집중된 종단운영 권한을 7~11인의 집단지도체제로 하자는 안이다. 종단의 중진들이 월 1회 모여 종책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총무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안이라는 설명이다. 또 종책 결정 이후에도 종도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있는 종책자문기구의 강화가 현실적으로 타당하며, 상원격의 옥상옥이 될 소지가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본사주지회의

그동안의 본사주지회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으므로 이를 대체하는 중앙종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과 현행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본사주지회의 권한의 범위를 규정하자는 안이 논의됐다. 중앙종책위원회는 본사주지를 중심으로 50명 정도로 구성하며, 종단의 종책을 심의 의결하는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대체기구 구성 또는 본사주지회의의 권한 범위 규정에 대해 특위와 본사주지스님들이 만나 논의키로 했다.

■겸직금지

현행대로 중앙종회의원은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총무원 종무원(부, 실, 국장), 본사주지, 직할분담사찰의 주지 및 교구종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자는 안과 겸직금지의 전체 폐지, 총무원 부, 실장의 겸직금지 해제 안이 나오고 있다. 또 부, 실장 중 총무부장, 호법부장, 기획실장만 겸직을 금하자는 안 등 논의의 폭이 넓다.

이밖에도 본사주지 선출 방법, 총무원 부서의 종헌 명기 여부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총무원장 임기는 4년 또는 5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성운 기자

해외성지순례특선

"민족의 영산 백두산/중국 5대 불산 천산 기도대법회"

▶특선1
출발일 1차 7월 19일 - 7월 23일 (4박 5일)
2차 8월 29일 - 9월 2일 (4박 5일)
3차 9월 4일 - 9월 8일 (4박 5일)
동참금 820,000원 / 1인

"지장보살의 화신 김교각스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지장도량 구화산/관음도량 보타산"

▶특선2
출발일 1차 8월 16일 - 8월 21일 (5박 6일)
2차 10월 1일 - 10월 6일 (5박 6일)
동참금 890,000원 / 1인

"불자들을 위한 가을 금강산"

▶특선3
출발일 9월 14일 - 9월 17일 (3박 4일)
동참금 시중보다 할인 요금 적용

국내성지순례특선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영월 동강 여름 불교학교"

▶특선1
출발일 8월 10일 - 8월 12일 (2박 3일)
동참금 125,000원 / 1인
포함내용 래프팅, 어라연 트레킹, 캠프 파이어, 동굴 탐험등

"울릉도/독도 방생 기도 대법회 및 경주(낙산사/홍련암)"

▶특선2
출발일 10월 12일 - 10월 14일 (2박 3일)
동참금 경주 270,000원 / 1인 낙산사, 홍련암 250,000원 /1인

해외성지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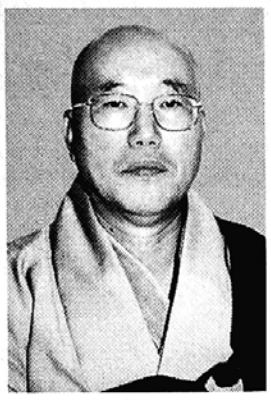
순례조건: 항공 : 이코노미클래스 기준 / 호텔 : 2인1실 기준 / 공항세, 비자대 포함 / 한국어 안내인 동행 일정에 명기된 전지역 순례 및 공양 포함 / 1억원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 / 10인 이상시 출발 가능

	순례지	동참금 일급호텔	동참금 특급호텔	출발일	비고
중국	백두산/연길/심양4일	720,000		7월 19일/8월 29일/9월4일	전일정 특급호텔 이용
	백두산/연길/북경 6일	860,000		7월19일/8월29일/9월4일	전일정 특급호텔 이용, 써커스, 북경오리구이
	구화산/보타산/황산 7일	960,000		8월16일/10월1일	
	아미산/낙산/대족 7일	1,510,000		매 일	
	장강삼협/아미산/낙산/대족 10일	1,850,000	2,200,000	매 일	장강 유람시 유람선 차이
	구채구/황룡구/성도7일	1,530,000		매 일	
	돈황/우루무치/북경 7일	1,750,000		월,목,토요일	
	곤명/대리/시쌍판나/지공화상유적지10일	1,980,000		월,목,토요일	
	곤명/대리/시쌍판나8일	1,900,000		월,목,토요일	
	내몽고/오대산/북경 8일	1,250,000		매 일	
	티벳 12일	2,550,000		화,수,금요일	
	티벳 걸망 11일	1,950,000		7월28일/8월28일	국제선항공료전문안내인 동행, 공항세 및 출국세 전용차량,숙박 및 조식 1억원 해외 여행자 보험 포함
	스리랑카 6일	1,280,000		수요일	
	미얀마/태국 7일	1,590,000		매 일	
	미얀마 6일	1,490,000		수요일	
	캄보디아/베트남 5일	1,400,000		금요일	
	라오스/캄보디아 9일	2,350,000		목요일	
	인도네시아 보로부드르 5일	1,150,000		매 일	발리/족자카르타
	대만 불광사/일월담/화련 4일	850,000		매 일	전일정 특급호텔 이용
일본	북큐유슈우 6일	750,000		일요일	
	오키나와 4일	990,000		목요일	오키나와/나하
	홋카이도 4일	1,190,000		월요일	치토세/삿포로/시라오이/도야/노보리벳츠
인도	인도8대성지9일	기후관계로 9월부터 가능			
	인도8대성지/아잔타.엘도라/산치13일				

Pra jna (주)반야여행사 문의 및 접수 (代) 02-730-0020

"독서문화 저변확대 절실"

불서전 마친 불출협회장 원택스님



"도서전 개최에 안주할 게 아니라, 독서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출판인들이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이는 곧 열악한 조건의 출판업계가 도약을 할 수 있는 첩경이며 불교발전의 원동력입니다."

12일부터 19일까지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열린 불교도서전시회를 회향한 불교출판협의회장 원택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이번 전시회가 사찰도서관만들기 운동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20여개의 출판사 1천5백여종 전시, 구매자 청장년층, 학술서 인기, 1일구매고객 2백여명 등이 이번 전시회의 특징.

스님은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 전액과 각 출판사들의 서적 보시를 받아 사찰도서관 만들기 일환으로 포교당, 직장 신행단체 등에 기증할 계획"이라며 "현대불교신문이 벌이고 있는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연중캠페인에 종단과 단체, 각 사암 등 모든 불자들이 합심,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스님은 내달초 평가회의를 갖고 홍보, 부스 설치 등 각종 미비점들을 검토해 내년부터는 많은 출판사와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교출판협의회는 내년부터 각 사찰과 단체의 후원을 이끌어 년2회로 확대 개최, 최소한 5천여권의 불서를 확보해 사찰에 기증한다는 복안이다. 김중근 기자

"기독교 면장이 종교자유 훼손"

백령도 종교편향 시정요구 대은스님



"옹진군이 6월 8일자로 낸 회신에는 '심청각 건립당시 지역주민들이 샤머니즘 사상 배척차원에서 건립자체를 반대하는 진정이 들끓어 종교행사는 지양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불교를 샤머니즘이라고 몰아붙이는 관이니 기가 막힙니다. 부처님오신날은 엄연한 국가공휴일이고 서부전선 최끝단인 옹진군 백령도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연등을 환하게 밝히면 북녘동포들이 이를 보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느낄 수 있고 국민이 화합할 수 있는 좋은 행사인데 기독교인인 백령면장이 방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태고종 인천교구종무원장 대은스님(용천사 주지)은 12일 인천시장과 옹진군수에게 항의공문을 보낸데 이어 23일 인천시장과 인천불교연합회와의 만남에서 지난 5월 8일 백령도 심청각에서의 연등행사 방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 백령면장 과면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기선 인천시장이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스님은 옹진군수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태고종 및 종교편향대책위와 연대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백령도는 주민의 95%가 기독교인으로 알려지고 있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의 텃세가 심한 곳. 대은스님은 "기독교인인 백령면장이 앞장서 연등행사를 방해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나라와 민족에 큰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을 이간시켜 종교싸움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내년 부처님오신날에는 백령도에 환하게 연등을 밝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교차로

법회경 무료강좌 개설



자우 금강사 주지는 7월7일부터 1년6개월간 매월 음력 7일과 24일 오전 10시30분 법화경 무료강좌를 개설한다. (02)933-3744

중앙승가학원 사무처장에



종석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22일 학교법인 중앙승가학원 법인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이날 이사장 고산스님(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도선사 주지에



광복 조계종 종회의원은 2일자로 도선사 제14대 주지에 임명돼 "청담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문도의 화합과 신행, 포교와 복지·교육불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교생에 원각회 장학금



일운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교육보조자 스님은 20일 고교생 5명에게 원각회(회장 노대행심)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혜의 문…' 출판기념회



덕진 울산 정토사 주지는 7월2일 오후2시 대웅전에서 〈지혜의 문 행복의 문〉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기념식후 동국대 정병조교수의 〈반야심경〉 특강도 열린다.

호국용마사 위령대법회



법장 육군 57사단 향승위원장(무진법장사 주지)은 22일 서울 57사단 호국용마사에서 호국영령 위령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지역 향승과 사단장 및 각급 지휘관과 장병, 군인가족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결식아동·독거노인에 후원금



각우 서울 삼전종합사회복지관장 스님은 22일 송파구내 삼전초등학교 및 석촌초등학교, 배명중학교 결식아동·청소년과 지역 독거노인 등 1백여명에게 장학금과 결식후원금을 전달했다.

청소년 수련시설 자정결의



선진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 협회' 회장(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은 22일 전국 수련시설 대표자 모임을 소집, 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와 시설 이용 자율화에 따른 자체 자정운동을 펴나가기로 결의했다.

동화사 신도회장에



유상종 대구과학대학 명예교수는 7월1일 오전 10시 팔공산 동화사에서 동화사 신도회장으로 취임한다.

평통자문위원에 위촉



김양일 울산일보 회장(동대총동창회 부회장)은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임기 2년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나눔의 집 할머니에 성금



김묘주 한국여성불교연합회장은 23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 현장에 참석한 나눔의 집 할머니들에게 자선음악회 수익금 150만원을 전달했다.

인산문화센터 개원



김윤세 인산가 대표는 17일 서울 인사동 입구 오원빌딩 9층에 인산문화센터를 열고 인산양생학 과정과 생활건강 교실을 개설, 매주 목·금요일(오후7시) 강의한다. 건강상담과 문화강좌도 겸한다. (02)737-9587

고은시인 美서 일시 귀국 백범 50주기 추모시 낭송



1년간의 일정으로 미국 하버드대와 버클리대에서 '한국시'를 강의하고 있는 고은 시인(본지 논설고문)이 26일 서울 효창원 김구 묘소앞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서거 제5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기위해 23일 일시 귀국했다. 추모식과 같은 날 저녁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백범 서거 50주년 나라사랑' 열린 음악회에 참석해 추모시를 낭송한 고은시인은 28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보고예술사진실 이전 개원



이광순 보고예술사진실 대표(사진작가)는 19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으로 확장이전 개업했다. (02)732-6934

제주운불 사무실 이전

임기현 제주운전기사불자회장은 7월3일 오후2시 제주시 용담1동 홍법정사에서 사무실 이전 현판식을 거행한다. (064)751-0108



조계종 성보도둑 잡은 경관에 공로패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24일 성보문화재 도난범을 조기 검거한 임실경찰서 배영근 경장과 소속 경찰서장 박관배 총경에게 총무원장 공로패와 포상금(각 50만원)을 수여했다.

임실경찰서 배영근 경장은 선운사 말사 신흥사 성보문화재(월영스님 부도) 도난사건 발생 20일만인 지난 12일 범인을 검거하고 도난 성보문화재를 되찾았다. 되찾은 월영스님의 부도는 조선시대 말기에 조성된 것으로, 문화재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성보문화재 도난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나 도난범의 검거나 성보문화재의 회수는 극히 미진했다. 총무원은 이후 도난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조기에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김용옥씨 도올서원서 불경강회

7월4일부터 금강경·대승기신론등 설파



지난 5월9일 봉원사에서 '공과 깨달음' 주제의 강연회에서 1천여 사부대중을 사로잡은 김용옥 도올서원 원장이 다시 불자들을 대상으로 명강의를 펼친다.

7월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대학로 문화회관 옆 도올서원에서 '우리 문화의 한 근원 불경'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회에서는 〈금강경〉 〈반야심경〉 〈대승기신론〉 등 불경이 강론되며, 화이트 헤드의 '과정과 실재' 등도 강독한다. 특히 화계사 조실 숭산스님의 법문도 들을 수 있어 불자들이 접하기 힘든 수준높은 강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접수마감은 6월30일. (02)744-7992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비불자·초심자 전법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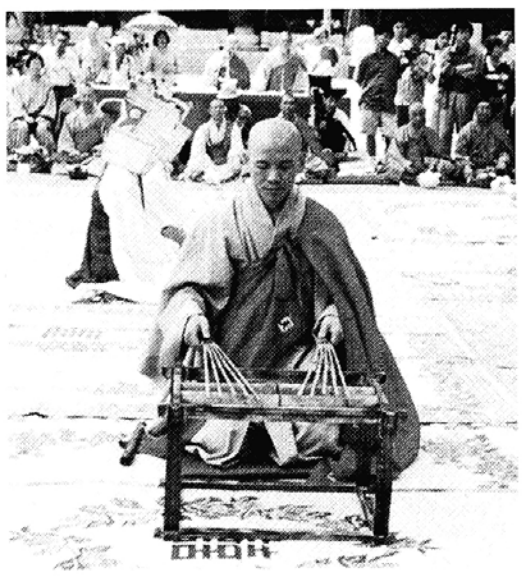
소책자 '날마다…' 펴낸 성재도 원장



"경전속에는 일상을 돌아보고 개인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경구들이 많습니다. 너무 어렵거나 접할 기회가 없어 묻혀 있었던 불법의 진리를 다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불교경전 내용을 쉽게 소개하는 월간 소책자 〈날마다 좋은 날〉을 창간한 성재도(44) 부산불교교육원장은 초심자나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포교매체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혜로운 하루, 함께 사는 세상을 가꾸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매월 1일 발간되는 〈날마다 좋은 날〉은 불경 속의 경구를 쉽게 풀이해 날마다 한 구절씩 읽고 실천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이달의 선지식 코너'에 큰스님 법문도 수록하고 있어 수행 지침서 역할도 하게 된다.

지난 13일 출판사 '날마다 좋은 날'을 등록, 불교문화 기초교리 참선 관련 불서를 펴낼 예정인 성 원장은 23일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다양한 문서 포교를 시작하기로 했다. (051)466-4080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깨침' 독려 간당의식 70년만에 복원

Focus

단오인 지난 18일 봉원사(주지 인공)에서 열린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시연회에서는 간당(看堂)의식이 70년만에 복원, 재현되어 관심을 모았다. 간당의식은 마음을 상징하는 장방형의 틀인 간당틀과 중생의 마음을 깨우치기 위한 선채라는 법구를 이용하여 주로 선원에서 입선과 방선을 할때 선객들로 하여금 선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깨우침을 독려하기 위한 한국고유의 묵언작법이다. 간당은 선원에서뿐 아니라 예불후 의식으로도 행해졌는데 예불이 끝난뒤 설법과 간당, 송주가운데 하나를 행하는 것이 상례였다고 한다.

일본이나 중국불교에서는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만 행해져왔던 간당은 70여년전까지도 몇몇 사찰에서 그 명맥을 이어오다 지금은 그 의식을 볼 수 없다. 이번 간당의식은 인간문화재 송암스님이 70여년전 봉원사에서 예불후 봉행되었던 기억을 되살리고 〈석문의범〉과 〈작법귀감〉의 간당론 내용을 토대로 봉원사 포교원장 만춘스님이 재현해 내 영산재 시연회에서 공개한 것이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직장인을 위한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통신·출강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7년간 2천여동문 졸업·40기생 모집중>

1. 강의시간 9월 1일 입학·주5일 수업(월,화,수,목,금) 19:00~20:30

2. 교육과목 20개 과목외 법패의식 (법현스님) 특강(동·하계 스쿨링때 법패의식 교육)

1학년	1학기 (16주)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유식사상 ◇초기불교의 이해 ◇불교상용 의식
	2학기 (12주)	◇화엄사상 ◇중국불교의 이해 ◇비교종교 ◇구사론(아비달마) ◇불교상용의식 실습
2학년	1학기 (18주)	◇부파불교의 이해 ◇밀교학의 이해 ◇반야사상 ◇대승기신론 ◇우리말 불교의식
	2학기 (12주)	◇한국불교의 이해 ◇대승불교의 이해 ◇천태사상 ◇선사상 ◇우리말 불교의식 실습

3. 교수진 권탄준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허경구박사, 김경집박사, 김종명박사 김호기박사, 권오성법사, 법현스님(동국대), 정성준박사, 김은희박사

초빙강사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권기종(동국대 사회교육원장), 강건기(전북불교대 학장)

4. 모집 및 전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불교학 출강 00명	●체계적 불교교육을 원하는자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서류전형
●불교학 통신 00명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보유자	●주민등록등본1부 (사진 3매)	합격자 개별통지

5. 원서교부 및 접수 8월 28일까지 (본대학 서무과) ※수시접수가능

원서교부 ▶서울 불교 문화센터 (불교방송국) (02)703-0108 ▶대구 적선사불교서점 (053)255-8875 ▶제천 묘장암 (0443)653-3249 ▶목포 축성암 (0693)461-1212 ▶원주 법웅사 (0371)742-2701 ▶진해 삼밀사 (0553-542-6531 ▶하동 도림사거사림 (0595)882-4585

6. 특전사항 ◇법사고시 경유 법사호 수여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 문수보살의 가피가 어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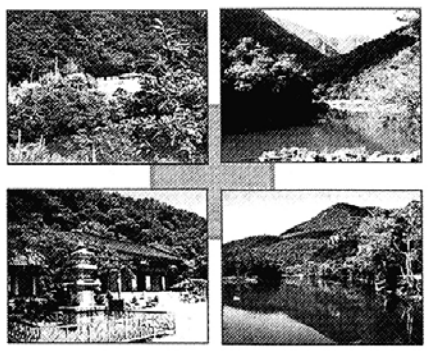
방생기도 도량 반야사



성제스님

삼보 귀의하옵고,
반야사는 문수동자와 세조임금에 얽힌 전설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천년고찰로
불자님들의 기도영험이 탁월한 곳입니다.
때묻지 않은 이곳에서 복전(福田)을 일구십시오.

☞ 반야사는…



- 신라 성덕왕 19년(720) 의상대사의 수제자인 상원대덕이 창건했으며 벽계 정심선사가 견성후 보림했던 수행처입니다.
- 조선 세조임금이 반야사에 들렀을때 문수동자가 나타나 망경대로 인도했는데 이곳에서 목욕한 후 모든 번뇌가 사라진 세조 임금이 어필을 남긴 유서깊은 도량입니다.
- 큰개울이 태극형태로 흘러 저수지를 형성하고 절을 에워싼 산봉우리는 연꽃형태를 띤 대명당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 경부고속도로 황간인터체인지에서 10분거리로 망경대, 물한계곡등 인근에 명승지가 즐비합니다.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134 T)0414-742-7722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법주사 말사 반야사

주지 성제 합장

우리 모임에선

불과회 청소년교도소 위문

대한불교제과인회(회장 정관수)는 30일 천안 청소년교도소를 방문, 위안법회를 봉행한다. 각 회원들이 직접 만든 빵을 비롯해 음료수, 과일 등을 재소자들에게 보시하고,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
(0417)574-6983

지하철 법우회 정기법회

서울지하철공사법우회(회장 민병훈)는 7월6일 오후 7시 자체법당에서 정기법회를 연다. 지도법사 조계종 포교원 연구실장 화암스님의 법문이 있을 이날 법회에서는 직장직능 불교신행단체 지도자대회 참석소감 발표와 친목도모의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02)412-0108

한전반야회 봉정암 순례

한국전력 반야회(회장 김문수)는 창립 9주년을 맞아 7월 16일~18일 봉정암에서 구도정진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에는 자생적으로 결성된 11개 사업소 불자회 회원과 창립 준비 중인 5개 사업소 회원들이 함께 하며, 17일 새벽 백담사에서 아침예불을 한 후 봉정암에 올라 철야정진을 할 예정이다.
(02)3456-5784 홍기성

대구운불 정기교육 회향

대구운전기사불자연합 정법회(회장 류지순)는 6월24일 자체법당 혜림원에서 지난 4일간 실시한 정기교육 회향식을 갖는다. 이번 교육에서는 불교기초교리 및 포교방법, 친절 서비스 등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053)764-0766

연합회 결성 직장직능불자회 불심모으기

공무원 전국조직 연말 발족 실무위 구성
가수 탤런트 배우 불자예술단 추진 합의
한전 11개 불자회 묶어 연합회로 운영

각 직장별, 직능별 불교신행단체 연합회 및 연대모임 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이 19일~20일 서초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직장직능 불교신행단체 지도자대회에 참석한 74개 단체 1백70여 명의 직장직능불교회 지도자들은 신행단체의 활발한 활동과 연대강화 등을 위해서는 직장·직능별, 지역별 연합회 구성 및 연대조직 결성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단체 지도자들은 11개조로 나뉘어 밤 늦게까지 조별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8개 중앙부처 불자회와 8개 지방자치단체 불자회, 3개 정부산하기관 불자회, 3개 경찰서 불자회 등 25개 단체 공무원 불자들은 빠르면 올 12월 전국 공무원을 망라한 공무원 연합조직을 결성하기로 하고, 실무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연합조직 구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감사원과 복건복지부 불자회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청과 경기도청이 주축이 돼 실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대한불자가수회도 올해 안에 가수, 탤런트, 영화인 등이 참여하는 '대한불자예술단'을 발족하기로 하고 밑그림을 그렸다.

또한 강남 본사를 비롯 11개 사업소에 불자회가 결성돼 있는 한국전력불자회도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돼 온 각 사업소 불자회를 묶어 연합체를 구성할 계획을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한전반야회, 담배인삼공사 등 송파구내에 있는 직장불자회 결성 등 각 지역별로 연대모임 결성을 위한 의사타진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한편 조별토론에 앞서 직장직능 불교신행단체 지도자대회에서는 전국 직장직능 불교신행단체를 상대로 실시한 포교원의 설문조사 결과 및 종책방향에 대한 발표와 서울시 청불심회, 교사불자연합회 전북지부의 직장직능법회 모범사례가 발표됐다.



◇직장직능 불교신행단체 지도자대회 참석자들은 "진작에 이런 행사가 있었어야 했다"며 "조속히 정례화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또 발원문 낭독 및 원의범 동국대 명예교수의 초청강연, 결의문 채택 등이 있었다.

포교원장 정련스님은 20일 회향식에서 "직장직능 불교신행단체 불자들과 고락을 함께 하는 좋은 벗이 되기 위해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불자교정인 임원수련
7월3~5일 송광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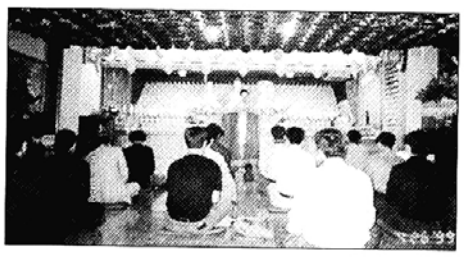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오희창)는 7월3일~5일 전북 완주 송광사에서 제3회 하계 임원수련회를 갖는다.

연합회장을 비롯 4개 지부장과 32개 지회장, 기타 임원 등 2백50여명의 불자 교정인들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연수회는 고산스님의 법문과 강백스님 특강, 참선지도, 발우공양, 철야정진, 친선게임 등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또 연합회 조직 활성화 방안 및 재정확보 방안, 지회와 불교교화위원회와의 관계설정, 회원배가 방안, 신행사례 등에 대한 토론도 있다.
(02)619-2781~4 교무과 문기두

"동체대비의 삶 살아가자"
수원교도소 · 구치소 불심회 합동법회

수원교도소불심회(회장 고왕식)와 수원구치소불심회(회장 심재환) 합동법회(사진)가 21일 봉녕사 수원포교당 보현사에서 봉행됐다.

2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는 수원교도소와 수원구치소간 정보교류와 불자들간의 신심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무우사 주지 화평스님은 법어를 통해 "공산주의는 남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사상의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랑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기독교사상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불교사상은 동체대비와 '너와 나는 하나'를 말한다. 6·25를 며칠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한번 되새겨 보자"고 말했다.



탐방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금강회

17년 전통 '화합불심' 자랑
소식지 '금강' 200호 발행
82년 창립…자체법당 갖춰


◇회원들간의 법우애가 돈독한 경산조폐창 금강회.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가진뒤 기념촬영을 했다.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것 중의 하나이면서 온갖 문제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돈. 그 돈을 찍어내는 한국조폐공사 경산 조폐창에 굳건한 믿음으로 불퇴전의 보살이 되겠다는 서원을 세운 불자회가 있다. 1982년 11월, 38명의 불자들이 모여 결성한 금강회(회장 김길선).

금강회는 창립 이후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정기법회를 봉행해 오고 있다. 또 지난 89년 마련한 자체법당에서 출퇴근 전후나 점심시간등의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개인정진에 힘쓰고 있다.

금강회가 발간해 통권 2백호에 달하는 〈금강〉지는 회원들은 물론 조폐창 직원들에게도 인기가 있어 친목 도모 및 정보 교류에 톡톡히 한 몫 해내고 있다. 회원가족의 애경사를 꼼꼼히 챙기는 것도 금강회의 자랑거리다.

그러나 금강회는 매년 6월 봉행해 온 부여와 옥천 조폐창 불자회와의 합동법회를 올해는 열지 못했다. IMF 한파로 경산, 부여의 2개 조폐창으로 통폐합되면서 구조조정이 단행돼 지난해까지 1백80여명에 달하던 회원이 반으로 뚝 떨어진 것. 회원들은 "회원수와 불심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며 "금강석같은 불심으로 새롭게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김길선회장(48)은 "올해 부처님 오신날을 계기로 모임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직장불교의 모범적인 전통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금강회는 상반기 중에 조직을 재정비 하고 7~8월부터 회원들이 전법사로 나서 회원확보에 진력할 계획이다.

대구 직장불교협의회 구성에도 구심적 역할을 했던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금강회. 굳건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금강회의 모습이 기대된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용성스님 제135회 탄신법회

용성스님 제135회 탄신법회가 전북 장수군 죽림정사 대웅보전 건립현장에서 봉행됐다. 도문스님(대각사 주지)은 법어를 통해 "15년전 은사 등헌스님의 유언을 이렇게 실현하게 돼 감격스럽다"며 "용성스님의 상구보리 하화중생 보살도의 유훈을 모두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법회에는 용성스님 문도와 김상두군수, 정영신 번영회장 등 스님과 지역 유지를 비롯 각 사찰 신도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법화종 운경 총무원장 취임법회

대한불교 법화종 창종 53주년 기념 및 운경 총무원장, 법찬 포교원장 취임법회가 23일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서 봉행됐다. 법화종 스님들과 신도 등 6백여명과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총지화 총지종 통리원장, 선진규 조계종 전국신도회장, 이정규 서대문구청장 등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신임 총무원장 운경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법통정립과 신뢰행정으로 책임을 완수하는 집행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천태종 울릉도 성인사 낙성식

천태종 울릉도 성인사(주지 비륭) 낙성식이 20일 울릉군 서면 남양 1동 현지에서 거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도용 종정, 운덕 총무원장, 정산 감사원장 등과 천태종 각 부장 스님, 정종태 울릉군수 등 지역 기관장과 신도 등 총 1천여명이 동참했다. 성인사는 92년 법당 기공식을 봉행한 이래 7년 불사끝에 전통양식으로 1층 요사 60평, 2층 법당 33평을 완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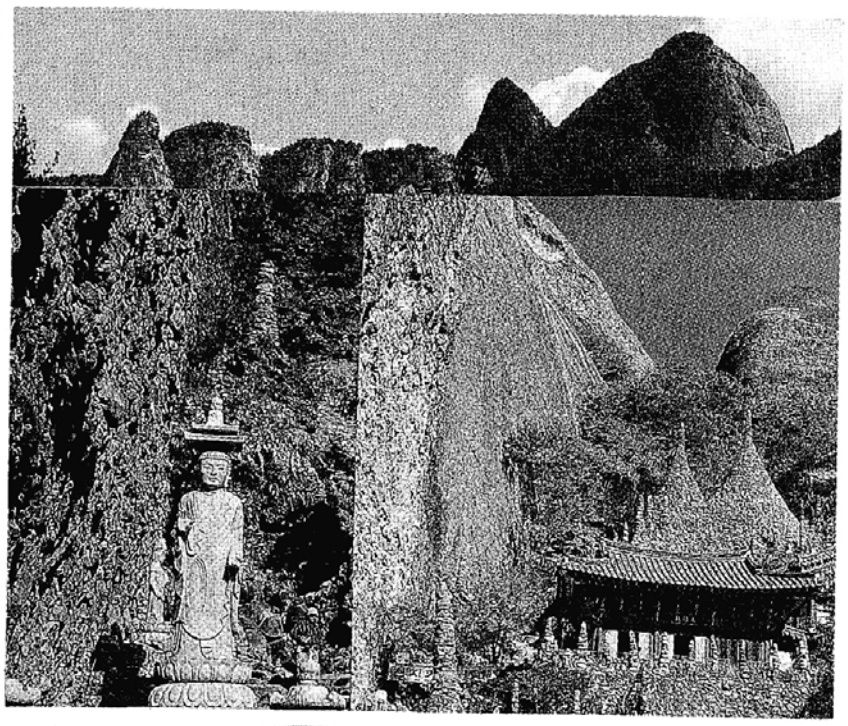


육군 호국용해사 불상 점안식

강원도 삼척 육군 철벽부대 호국용해사(주지법사 이광희)는 23일 불상 점안식 및 낙성법회를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천은사 주지 일봉, 삼화사 주지 원행, 등명낙가사 주지 성우스님을 비롯 3백여명의 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현해스님(월정사 주지)은 "부처님의 가호로 건강한 군생활을 영위하면서, 국가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9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5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김 성 철(승가대교수) · 권 탄 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권 기 종(동국대교수) · 혜원스님(동국대교수) · 윤 열 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 정 섭(금강선원이사장)
2년 교과목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암도스님(전교육원장) · 최 봉 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정 병 조(동국대교수) · 오 국 근(동국대교수) · 남 수 영(동국대교수) · 계환스님(동국대교수) · 김 상 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장 휘 옥(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99년 6월 15일~ 99년 7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 학 일 시 1999년 8월 7일(토) 오후 5시 (동산교육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 서 보 급 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042)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이렇게 들었다 — 대화 — "좋은 말은 나와 남 모두 이롭게"

북한이 최근의 서해사태를 빌미로 22일 어렵사리 열린 베이징차관급회의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등 남북간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객을 억류하고, 이산가족상봉문제에 대한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남북간의 대화가 더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대화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첫번째 의사소통수단이다. 남북간의 대화뿐 아니라 부부, 친구,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대화 없이는 관계유지가 제대로 되기 힘들다. 상대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대화에 익숙하지 못해, 이로인해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 앞에 닥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자세로 대화해야 하는지 부처님 말씀을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거친 말을 멀리 함으로써 저를 해치고 남을 해쳐서 피차 함께 해입는 일을 면하고, 좋은 말을 익힘으로써 저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해서 남과 내가 널리 이롭도록 해야한다. 〈대아미타경〉

▨승단을 화목하게 이끌어 가는데 긴용한 일이 여섯가지 있다. 첫째 성실한 말, 둘째 성실하고 친절한 행위, 셋째 성실성과 동정심, 넷째 공유재산을 평등하게 이용하기, 다섯째 순결한 마음으로 같은 계율 따르기, 여섯째, 사물을 모두 바르게 보는 일이다. 〈팔리 율장대품〉

▨참다운 뜻은 참다운 말을 많이 들음으로써 얻게 된다. 많이 듣는다는 것은 뜻을 잘 알라는 것이요, 말을 잘 하라는 것은 아니다. 〈방등경〉

▨어리석은 사람이 어진 사람을 깔보고 헐뜯더라도, 어진 사람으로선 끝내 성내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 헐뜯음과 꾸짖음을 참아가면서 수순하는 말을 해야 한다. 〈대장엄존경〉

▨온갖 죄는 진리 아닌 것을 말하는 입과, 내세를 배척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팔리문법구경〉

▨부처님께서 사의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제 간략히 말하리니 명심하고 잘 들어라. 착하게 말하는 것이 제일이니 이는 곧 성인의 말이로다. 험담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거짓없이 진실한 말이 세번째이며, 법답지 않음을 피하는 법다운 말이 네번째니라."이 말씀을 듣고 바기사가 일어나 게송으로 찬탄하였다. "말씀마다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남또한 해치지 않는 것이 착한 말이라 할 것이요, 부드럽고 사랑스런 말로 남을 기쁘게 하며 모든 허물 짓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말하는 것, 반드시 기쁨을 얻고 열반에 나아가리라. 착한 말씀 칭찬함은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요, 진리를 진실대로 말하는 것 최상이다." 〈별역잡아함경〉

▨거친말을 해서는 안된다. 말할 때에는 남도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악이 가면 화가 오게 마련이니, 폭력의 보배를 그 몸에 받아야 하리라. 좋은 말을 하되 종(鍾)이나 경쇠를 고요히 두들기듯 하라. 몸에 시비가 없으면, 미혹의 세계에서 벗어나 편안할 수 있으리라. 〈법구경〉

▨차라리 진실한 말을 해서 적을 만들지언정, 비위 맞추는 말을 해서 친우를 만들지 말라. 차라리 바른 가르침을 설하고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그릇된 가르침을 설하고 천상에 태어나지 말라. 〈보살본연경〉

▨만일 어떤 비구가 설법할 때 그 중에 어떤 비구가 있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자. '저이가 말한 글귀는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그 뜻은 바르다' 고. 비구는 그 말을 들거든 옳다고도 말하지 말고 그르다고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마땅히 그 비구에게 말하라. '어떤가 비구여, 내 글귀는 이러하고 너의 글귀는 이러하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 만일 그 비구가 곧 대답하되 '내 글귀는 이러하고 네 글귀는 이러하다.네 글귀가 낫다.' 그 비구는 이렇게 말할때 비구는 또한 말하기를 '이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그르다고도 할 수 없다.' 하고, 마땅히 그 비구를 충고하고 꾸짖어 그치게 하고 마땅히 함께 연구하라. 이렇게 다 함께 화합할 것이요, 서로 싸움질을 하지 말라. 여래의 정법 가운데서 마땅히 자기 등불로 유쾌한 안락을 얻어야 하고 안락을 얻어 마쳐야 한다. 〈청정경〉

새천년 평화 이끌 종교의 힘은 '관용'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새천년 종교계 과제' 세미나

새 천년을 위한 종교계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같은 물음에 답을 찾는 세미나가 24~25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회장 고산 조계종총무원장) 주최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각 종교대표자와 신도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발표된 이어령 새천년준비위원장의 기조강연과 '민족공동체의 미래와 종교'(이재정 성공회대학교 총장), '종교와 생명문화'(김용정 동국대 명예교수)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종교계의 과제를 찾아본다. 〈편집자 주〉

국민의식개혁 공생윤리 회복

주제발표 김용정〈동국대 명예교수 · 철학〉



경제발전에 힘입어 개인의 소득이 상승하였으나, 빈부의 격차로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급격한 경제발전이 황금만능주의와 향락주의를 만연시켜 인간의 도덕성을 타락시키고, 수다한 범죄가 활개를 치게 되었다. 또한 대량소비로 대량폐기물이 쏟아져 나와 역시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민의 자각과 정화의 실천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여기에 바로 우리 종교가 앞장서서 범죄를 물아내고 환경정화에 솔선수범하는 첨병역할을 해야 할 당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다원화 사회에 있어서의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문화가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에 영합하여 극단적 이기주의 경향을 띠고 있어 여러가지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개개인의 의식개혁과 근본적 자각이 없이는 지금의 복잡다단한 사회를 정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종교가 해야 할 일은 전국민의 의식개혁운동의 선봉에 서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은 먼저 타자에 대한 근본자각이 있은 연후에 가능할 것이다.

진정한 초월적 종교체험이 있는 곳에 진정한 인간의 의식개혁이 있게 될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내가 타자와의 공생의 윤리를 회복하려면 마치 빛을 갚아야 할 것 같은 일종의 책임의식을 가질 때 가능하다. 불살생의 계율을 첫째로 내세우는 불교의 최고의 덕목은 자비이다. 자비는 붓다 이래 불교의 중심 덕목이다. 자비란 말은 벗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는 대신에 불이익과 괴로움을 제거해 주려는 근본적인 도덕의지와 종교적인 자비를 나타내는 복합명사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경제적 부의 문제가 인간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고도의 산업화 내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인간의 평등과 경제적 소유의 배분의 문제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종교의 사회적 기능은 공동체 감정을 고양하고 배분의 정당성 부여와 각종의 갈등 내지 불만 해소의 하위기능까지 분담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종교는 서로 다르더라도 인류는 하나이며, 모든 종교인이 그 하나의 문(門)을 통해서 인류평화에 협동해야 할 것이다.

자기속에 非自己 지니는 것이 종교

기조강연 이어령〈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



새 천년의 과제가 문명-문화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중심에 종교 파워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세계구도와 그 운명은 문명-문화 즉 종교 파워가 충돌할 것인가, 융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종교지도자들에게는 "글로벌의 전쟁을 밀레니엄의 평화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이 21세기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더구나 두려운 것은 종교의 중심이 단순히 종교 내부나 그 지도자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광범위한 정치 경제의 세력과 얽힌 지구세력화로 전환한다는 문제이다.

문제를 단순화하면 글로벌리즘의 세속적 단일 시장의 공간과 밀레니어미즘의 신성한 통합된 종교의 시간이 하나가 되면 바그너(Wagner)의 "제신들의 황혼"의 경우처럼 전쟁 상황이 벌어지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유불선(儒佛仙) 삼도의 융합처럼 종교간 공생의 평화 상황이 실현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다.

새천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타자배제가 아니라 나와 다른 타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더불어 살아가려는 관용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관용이 없으면 세계는 분쟁과 갈등의 도가니로 화하게 될 것이다.

관용은 윤리적 가치체계라기보다 생물학적 생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소화기관은 끝없이 흘러 들어오는 외계의 이물질을 배제하기 위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로 받아들여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생물학자들은 이 관용을 연구하면서 훌륭한 철학자로 변한다. 그리고 종국에는 종교적인 마인드(mind)를 갖게 된다. "자기 속에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비자기(非自己)를 지녀야만 한다"는 점이다. 자기 속에 있는 비자기의 모형,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사랑이며, 유교의 인(仁)과 서(恕)이며, 불교의 자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는 타자를 인정하고 나와 다른 자와 공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콘비비알리티(conviviality) 그리고 상생의 원리를 갖지 않는 한, 오늘날과 같은 "아름다운 덫"이 되어 전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리즘과 밀레니어미즘의 세속과 신성의 결합 또한 관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여 내부속에 외계를 교묘하게 보존하는 것, 그래서 외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면서도 어느 지점에 경계를 만들지 않으면 의부와 나를 구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결국 소화기관의 면역계에는 생물이 외계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절묘한 장치인 '관용'이 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관용이 나의 종교와 이질적인 종교간에서 일어나야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종교 안에 있는 비자기 체계의 종교의 작은 모델을 만들어 두는 것, 그러면서도 독자적인 경계선을 항상 어디엔가 쳐두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될 때 기독교는 기독교의 목소리, 불교는 불교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가지면서도 다른 종교와 공존해 가는 '관용'의 세포를 증식해 갈 수가 있다.

천년화의 종교 최대의 가치시스템은 관용이며, 글로벌리즘의 혼잡문화를 평화로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파워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사람관계 중시 상생정신 회복

주제발표 이재정〈신부 · 성공회대학교 총장〉



행복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와 연대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의 복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종교의 가치와 역할이 사회 전반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대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다수의 대중이 기업의 지배력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권력행사의 장에 새로운 주체로서 참여 법과 제도의 구체적인 개혁 등을 통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참여의 확대와 민주주의의 심화를 상승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 가족, 지역과 근린 생활권은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가족, 친족, 연고, 지역집단은 인간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 단위이다. 가족질서의 재구조화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정책적 비전의 수립은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초석이 될 것이다.

노동운동, 시민의 각성, 시민사회에 뿌리박은 정당 등 힘있는 시민사회만이 당면의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약육강식의 논리로부터 우리를 구제할 수 있는 안전판이다.

종교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교조적인 교리를 내세우거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종교의 울타리 안에서 평화를 누리려 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가 점차로 이러한 영역과 별개의 제3의 섹터에 의해 점점 더 좌우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바로 시민사회의 영역이다. 이 시민사회의 영역은 자발성과 도덕성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의 제반 문제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새 천년을 준비하면서 다시 종교의 역할 즉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화해와 상생의 역사를 회복시켜야 한다. 이것은 오늘의 종교가 그 동안 철저하게 지켜 온 배타적이고 신비적인 종교의 전통에서 벗어나 대립적 사회와 분단의 역사를 통합하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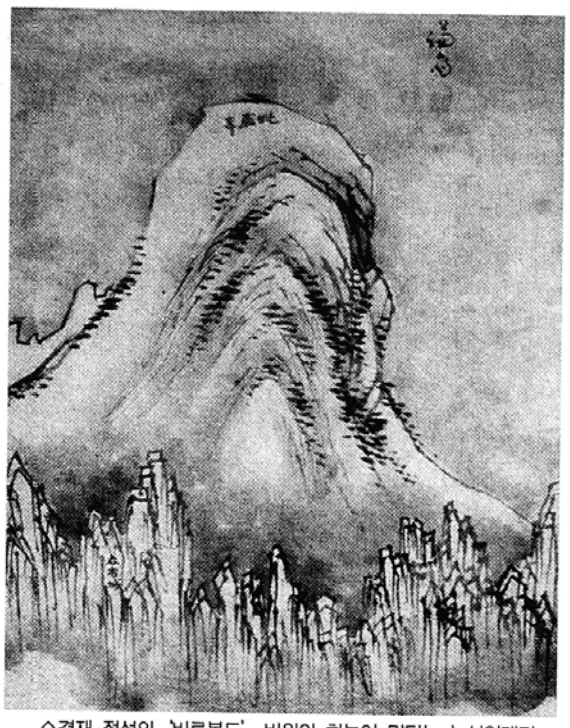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겸재 정선의 '비로봉도'. 바위와 하늘이 맞닿는 능선일대가 비로봉이다.

일본내 '한국범종' 60여구

재일동포 강건영씨 '범종을 찾아서' 출간

신사·수장고 묻혀있던 한국종 45구 명문등 소개

일본으로 넘어간 우리나라 종은 얼마나 되며 어떤 종들일까. 지금까지 일본의 신사나 수장고에 묻혀있던 한국의 종은 60여구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45구를 발굴·소개한 〈범종을 찾아서-신라·고려·조선의 종〉이 일본에서 출간돼 주목된다.

범종에 얽혀있는 역사적 사실은 물론 명문·크기·소재지 등을 밝힌 〈범종을…〉은 9년간 일본 전역에서 한국의 범종을 조사해온 재일동포 강건영(60·관서지구 한국인의사회장)씨가 발간한 것.

왜구·왜병의 약탈, 일본상인의 수입 등 갖가지 이유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범종 가운데 강씨가 확인한 것은 신라종 5개, 고려종 36구, 조선종 4구 등 총 45구. 그러나 일본인 소장가가 비장하고 있는 범종의 수까지 포함한다면 60여구에 이른다는게 강씨의 지적이다. 이 가운데 조오구우신사에 소장된 범종(833년)은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우사 신궁의 범종(904년)을 비롯 26구는 일본의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일본의 불교미술사에서 차지하는 한국종의 문화적 가치를 가늠케 한다. 또 이 책에는 제2차 세계대전때 미군의 함포사격을 받아 용두만을 남긴 채 파괴된 오키나와 파상궁 종의 원형을 담고 있는 사진도 소개하고 있다. 파상궁 종은 고려 전기인 956년에 제작돼 일본으로 넘어간 종으로, 당시 '환상의 종'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비한 소리를 냈다고 한다.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종 대부분은 19세기초까지도 고대 중국의 요·동진 등의 종으로 잘못 알려져왔다. 이후 양식있는 일본 학자들에 의해 재조명되고, 국보 또는 문화재로 지정되는등 학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와테현립대학 니시자와 준이치총장은 〈범종을…〉에 대해 "한반도의 빛나는 문화유산인 범종을 일본에 알리는데 알맞은 전문서"라고 말했다.

강씨는 임란왜란 때 포로로 붙잡혀간 유학자 강항(姜沆)의 후손. 강씨는 강항이 머물렀던 사찰 츳세키지(出石寺)의 고려 범종에 매료되어 9년간 일본의 북단 하치노헤·모리오카 시에서 남단의 쓰시마·오키나와 섬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누비며 한국의 범종을 추적했다. 강건영씨는 "일본인 소장가들이 비장하고 있는 10여구의 범종을 조사하는 대로 책을 보안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이 책을 한국어로도 출판할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중요무형문화재연합회 장주원 초대회장

"전통문화 보존 민족얼 살릴터"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것은 한민족의 얼을 지키는 일입니다. 연합회는 우리의 중요무형문화재를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발족한 중요무형문화재연합회(이하 연합회) 초대 회장 장주원(64·경기대 석좌교수) 씨는 "무형문화재 지정제도가 시행된지 35년이 지난 지금 지정보유자는 175명에 이르지만, 각 보유자들이 현행 제도나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기능이 단절되고 있다"며 "연합회는 세미나와 전수회 등을 마련해 이같은 현상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손에게도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폐쇄적인 전수에서 탈피, 개방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전통문화를 전승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매달 한차례 전통문화 세미나와 기능보유자 강연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연합회에 참여한 주요 기능보유자는 판소리 명창 조상현·안숙선·정광수씨, 가야금 이영수씨, 안성유기 기능보유자 김근수씨 등 100여명. 중요무형문화재 제100호 옥공예 보유자인 장회장은 "올해안으로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원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겠다"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일민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그림전

장엄한 금강산 '진경산수'

배삯을 들이지 않고도 불보살이 머무는 금강정토, 금강산의 진면목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잇따라 마련된다. 일민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각각 금강산에 관한 대규모 전시를 연다.

일민미술관은 7월 7일부터 8월 29일까지 '몽유금강-그림으로 보는 금강산 300년전'을 연다. '몽유금강…' 전에는 겸재 정선(1676~1759)부터 소정 변관식(1899~1976)에 이르기까지 300년에 걸쳐 그려진 금강산 그림과 민정기·김호득·윤동천씨 등 현대 작가 15명이 옛 작가들이 금강산을 그린 같은 지점에서 직접 사생하고 그린 것과 금강산과 관련된 기행시문·사진자료 등도 전시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7월 13일부터 8월 29일까지 금강산에 관한 모든 예술 작품을 한 자리에 선보이는 '금강산 특별전'을 연다. 금강산의 장안사, 백천동, 명경대, 정양사, 보덕굴, 비로봉 등을 회화, 도자기, 공예,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는 월정사 '천왕탱화' 등 다수의 불교문화재도 선보인다. 천왕탱화는 과거 금강산 장안사에 소장되었던 신중탱화다.

또 내금강의 명물인 토산을 붓으로 톡톡쳐 입체감을 한껏 살린 정선의 '금강산도'를 비롯 금강산의 명승처를 그렸던 심사정·김홍도·이인상 등의 그림도 함께 전시된다. 오종욱 기자

화제의 전시

지현명씨 '불보살조각전'

7월7~12일 대구 신미화랑

흙으로 불보살을 빚는 지현명씨의 조각전이 7월 7일부터 12일까지 대구 신미화랑에서 열린다.

'불동', '명경', '일면불 월면불' 등 조소 10여점이 소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 지씨는 수행승과 노인 그리고 아이의 눈을 통해 우리에게 선경의 경계를 보여준다. 또 '불일(佛日) 시리즈 5점에서는 아이를 안은 여인의 모습으로 자비심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재삼 생각하게 한다.

(053)424-1442



◇지현명씨의 '불동'.

김홍진씨 '금강삼매전'

7월8일까지 남양주아트센터

중첩되는 동심원을 연상케 하는 작품세계로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달래온 김홍진씨가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아트센터에서 '금강삼매' 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 김씨는 '금강삼매' 시리즈 20여점을 선보이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갖가지 사람·사물과 부딪치며 겪는 갈등과 충격을 비워낼 수 있는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김씨는 91년 'MBC 미술대전' 93년 일본 '신전' 등을 연 중진화가다.

(0346)592-0665

청안스님 수맥차단 음반 출시

도레미 레코드사에서 "귀신 쫓는 스님"으로 알려진 퇴마승 성안스님의 수맥차단 음반인 'Nags Tears(용왕의 눈물)"가 출반됐다.

이 음반은 연주부문과 랩형식의 불경음악부문으로 나눠진다. 연주부문은 성안스님과 전문 연주인들이 밴드를 이뤄 드럼 징 종 등의 쇠소리를 곁들인 연주를 하고, 불경부문은 힙합음악의 선두주자인 Drunken Tiger의 타이거 J.K가 염불을 곁들인 랩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도레미레코드사측은 "이 앨범은 볼륨을 높임으로써 장애물을 음파로 투과하기 때문에 멀리있는 곳까지 집 전체의 수맥이 차단되며, 음악에서 좋은 기가 발생하여 기수련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종근 기자(gamja@buddhapia.com)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자문위원회

2001년 6월 청주서 연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자문위원회가 오는 2001년 청주에서 열린다. 청주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자문위원회가 지난 10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제4회 회의를 열고, 오는 2001년 6월 개최 예정인 5회 회의를 청주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세계기록유산 자문위원회는 서적, 그림 등 세계 각국 문화재의 가치를 심사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유네스코 산하기구

이에 따라 청주시는 2001년에 열리는 세계기록유산 자문위원회에서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직지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있는 찬불가 전문 록그룹사운드 '아미타'가 7월4일 계룡산 갑사 '산중음악회'를 비롯해 11일에는 논산 육군훈련소 위문공연도 갖는다.

찬불가 록 그룹 '아미타' 7월 전국순회공연

또 26일에는 구인사 학생수련회 초청 콘서트도 개최한다.

드럼과 전자기타, 신디사이저, 싱어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아미타'는 98년 6월 창단이후 교도소, 군부대, 봉축법회 등에서 음성공양을 통한 찬불가 포교에 힘써왔다.

한편 '아미타'는 9월에 자작곡을 중심으로한 기존의 찬불가를 편곡해 음반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전통문화학교 첫 신입생 모집

문화재관리학과·조경학과 20명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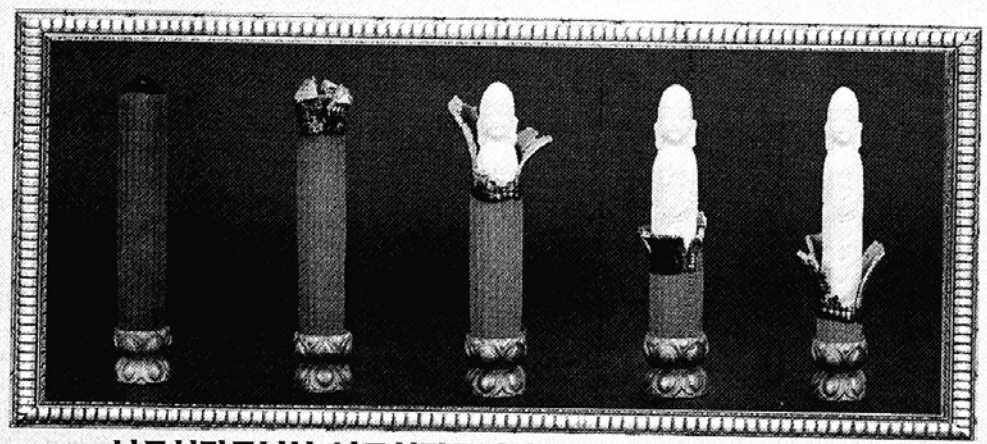
국립 4년제 대학인 한국전통문화학교가 내년 3월 개교와 함께 200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학과는 전통조경학과 20명과 문화재관리학과 20명.

'전통조경학과'는 궁원 사찰 서원 사적공원 등의 내외 공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며, '문화재관리학과'는 고고학 미술사 민속학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행정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조교·보조자 등은 생활기록부 만점 인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042)481-4692

국내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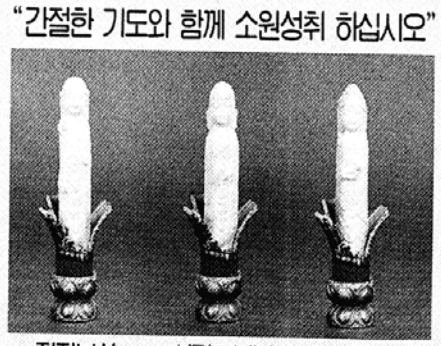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현상공덕향은 외형이 원추형으로 금석의 연꽃문양 좌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점화 후 약 20여분이 지나면 외형상으로 나무색 향이 연꽃형상처럼 벌어지며, 향이 타는 중에 법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타고난 다음에 향 연기는 소멸되고 법상은 깨끗한 재가 되어 향로 속으로 들어 갑니다.
현상공덕향은 외형과 겉모습을 중시하지 말고 소신공양의 대원을 이루어 부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향입니다.
현상공덕향은 초하루, 보름, 재일 및 법회와 방생기도에 사용되는 고급 향입니다.
•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취운향당의 천연향재로 제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 •

"간절한 기도와 함께 소원성취 하십시오"



지장보살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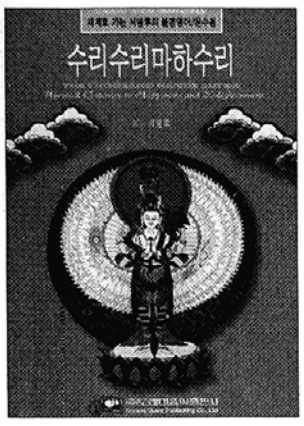
제조원 : 金城通商

Tel : 051) 324-3731 Fax : 051) 324-3733

귀 수익금 일부는 불교 발전기금으로 기탁됩니다. 귀

발명특허출원 : 48510
의장등록출원 : 19350
상표등록출원 : 28434

• 구입처 : 서울/현대불교신문영업부 02)732-1522,동영02)308-6600~1 / 인천:무성 032)575-6057 / 대구:불교대구방송사업팀 053)427-5114 / 부산:동진기획 051)555-1087,대성불교사 051)332-0289 /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



'수리수리마하수리' 영어 배우며 천수경공부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첫권 펴내







〈천수경〉 영어해설서 〈수리수리마하수리〉가 3개의 테잎과 함께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은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시리즈 첫 번째 권. 〈천수경〉은 사찰의 모든 의식에 사용되는 한편 불자들이 많이 독송하는 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때문에 서병후씨는 "불법의 핵심사상을 함축한 대표적 경전 〈반야심경〉보다 먼저 영역했다"고 말한다. 불경영어 시리즈를 출간한 서병후씨는 팝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 그는 서울 상대를 졸업하고 64년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시리즈'를 시작으로 경향·중앙일보 빌보드지 등에서 연예부 기자생활을 한 국내 최초의 팝칼럼리스트이다. 또 89년 도미, 명상과 수행으로 불교에 심취해 불교연구에 뛰어들었다. 캘리포니아 베버리힐즈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사성제와 8정도를 수련생들에게 외우게 했고 심지어 태권도장에 '동양사상센터'를 설립, 미국인들을 상대로 불교강의와 수행을 본격화했다. 또 71년 서울 디스코 테크 '날바나' 공연, 미국불교 포교에 나선 숭산스님의 영문설법집 〈Only Don't Know〉 번역 등을 통해 포교활동까지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서병후씨는 풍부한 영어실력과 불교공부를 바탕으로 〈수리수리마하수리〉를 펴냈다. 그는 이번 〈천수경〉영역을 위해 국내에서 출간된 각종 〈천수경〉 관련 서적부터 밀교경전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서적을 참고했다.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 가운데 몸과 우주를 뜻하는 내외(內外)의 경우 '밖의 만달라는 우주(cosmos), 안의 만달라는 인간(the person)'이라고 영역했다.

그는 이번 영역작업에서 다라니에 대한 번역시도가 가장 어려웠다고 말한다.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조차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스럽고 신비한 소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언과 대다라니의 영어음사를 한문경전의 전통적 발음에 따랐고, 다라니 내용도 밀교 전통에 따라 번역 해석하지 않았다. 불경공부를 통한 영어공부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수리수리마하수리〉는 천수경 불경영어 강의와 독송 천수경 두 부분으로 구성됐으며, 독송 및 강의식 테잎을 함께 출반해 경전을 통한 영어공부에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했다. 저자의 미국식 발음을 들으며 경전공부와 영어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시리즈는 경전을 통한 영어공부, 영어를 통한 경전공부를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이 책은 신행과 포교를 겸한 영어 레슨 가이드북인 셈이다.

서씨는 "미국내 한국사찰은 교포들을 중심으로 한 신도구성에 머물고 있는등 세계화 발길이 약한 실정이다"며 미국내 한국불교의 현실을 걱정했다.

서씨가 세계로 가는 불경영어 시리즈를 내놓게 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서양학자 서양불교인들과 명상과 수행을 하며 경전의 영역 필요성을 절감한 그가 신세대 신지식인들과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불경시리즈를 기획한 것이다. 이 시리즈는 영어학습을 통한 경전공부로 한국불교세계화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레미출판사는 금년말까지 제2권 〈반야심경〉을 출간하고 〈금강경〉등 불교 주요경전을 계속해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60분짜리 테이프 3개 포함 값 2만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불교적 재산관리법 4등분으로 나누어라

대만 성운스님 '인간불교의 경험'



"불교는 돈과 재산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 황금은 독사와도 같지만 동시에 포교와 중생구제, 수행의 양식이다. 소위 '군자가 재물을 좋아해 이를 취하되, 도를 지킨다(君子愛財 取之有道)'는 말과 같이 여법한 재물은 중생에게 복과 이익을 줄 수 있어 많을수록 좋다."무소유의 종교로 알려져 있는 불교. 그렇다면 불교인은 재산을 모아서는 안되는 것일까. 불교인의 재산에 대한 관점과 재산을 모으는 방법, 재산의 사용방법 등을 경전을 근거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인간불교의 경험-재산 관리법〉이 대만과 미국에서 동시에 출간됐다. 저자는 대만 불광사 주지 성운스님.

성운스님은 불교인이 재물을 모으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공업 상업 농업 등 각종 기술을 익히는 것을 들고, 근검 절약 너그러움 신실 보시 등을 실천하면 반드시 부를 얻게 된다고 말한다. 성운스님은 〈잡아함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를 4등분으로 나눠 관리하라고 설한다. "4분의 1은 의·식·주에 사용하고, 4분의 2는 사업경영과 투자에 사용하며, 나머지 4분의 1은 어려운 때를 대비해 저축하라"는 것이 그 예다. 스님은 이밖에도 〈심지관경 염사품〉 〈대보적경〉 〈반니원경〉 등을 근거로 불법에 어긋나지 않는 재산관리법을 현대인의 재테크 개념과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다.

미국 Weatherhill 출판사(E-mail=SDBA@ix.netcom.com) 펴냄, 값 14.95달러.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성본스님, '선의 역사와 사상' 재출간



각 사찰의 여름참선수련회를 앞두고 선의 역사와 사상에서부터 어떠한 수행방법을 해야 할 것인가 등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선서가 재출간됐다.

동국대교수 성본스님이 지은 〈선의 역사와 사상〉은 올바른 선수행이론과 실천방법을 제공해 준다. 이 책은 선불교에 대한 기본정신과 수행방법, 선의 역사와 사상, 그리고 선수행을 통해 체득한 선각자들의 생생하고 활기있는 체험과 역사적인 사실들을 전하고 있다.

〈불교시대사 刊, 값 1만5천원〉

옛그림속 금강산의 사찰들

이태호교수 '조선미술사 기행1'



겸재 정선을 비롯 옛 화가들이 남긴 금강산 그림 현장을 답사하고 쓴 〈조선미술사 기행 1〉이 나왔다.

'금강산 천년의 문화유산을 찾아서'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이태호 전남대학교 교수가 지난 98년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 북한지역 문화유산답사기행을 하고 쓴 책이다. 〈조선미술사 기행 1〉은 '옛 화가의 발자취를 찾아서' '한국 산수화의 모태, 조선후기 금강산 그림'과 산수화의 대상으로 사암풍경과 불교유적을 화폭에 담았던 곳을 답사하는 '불교유적을 찾아서' 등으로로 나눠져 있다. 불교유적을 찾아서는 신라 9세기 석탑부터 20세기 효봉스님 행적까지 약 1200년간의 불교유적사가 담겨져 있다.

저자는 "폐사지를 찾는 발길마다 상처가 깊게 배어 있었다"며 "신계사, 장안사, 표훈사, 마하연 등은 옛 그림이나 사진에서 보았던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보덕암과 마하연의 칠성각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남아 있는 목조건물은 한군데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세상 刊, 값1만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승려와 철학자	장프랑수아	문 예 촌
2	거지성자	전 재 성	선 재
3	오직 모를뿐	은 석 준	물병자리
4	타래	보 현	찬 섬
5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 형 조	여시아문
6	화엄의 길 생명의 길	도 법	선우도량
7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8	과란눈스님의 한국선수행기	김 종 명	예문서원
9	티베트에서 온 행복의 열쇠	주 민 황	정 우 사
10	티베트 성자와 보낸 3일	심 재 룡	솔

구입문의:(02)737-0695

채외신간

웃는 부처



카툰(Cartoon)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웃는 부처(Buddha Laughing)〉가 출간됐다. 미국 불교잡지 '트라이씨클'에 연재된 카툰 85점을 모은 이 책은 사람과 사물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심오한 가르침을 카툰으로 다룬 이 책은 깨끗한 눈으로 현실 문제인 삶과 죽음에 다가설 수 있도록 부처님 지혜를 유머와 풍자로 이야기 한다. Bell Tower 출판. ISBN 060980409X

달라이 라마 이야기



남미 중견화가 피레 드레트리씨 소설 〈달라이 라마 이야기(Tales of Dalai Lama)〉가 나왔다. 달라이 라마의 성장기 조명, 그가 떠나는 구도의 길로 독자들을 이끌고 있는 이 책은 '증도'의 참 뜻을 설명해 준다. 드레트리씨는 이 책에서 완벽한 결혼 현실과 환상, 이성과 감성, 역사와 신화 등 대조적인 주제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 스스로 인간의 변덕스러움과 불성을 찾아내게 한다. Christopher Howell 출판. ISBN 0899240984

문화의 맞은편에 선 여성불자



여성의 눈으로 불교의 교리와 문화를 읽고 있는 책이 출간됐다. 불교사회로 향한 여성해방로자들의 비관을 모은 〈문화의 맞은 편에 선 여성불자(Buddhist Women Across Cultures)〉에서 저자 쵸모는 불교 사회에서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 통념을 밝히고, 여성의 자유와 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사회가 변한 만큼 불교여성의 지위를 재 고찰할 것을 요구한다. 뉴욕주립대 출판. ISBN 0791441385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화제의 책

내일이면 늦으리 | 송암스님 지음

광덕스님 시봉하며 배운 수행자의 길



송암스님(47)은 광덕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불광학생회 지도법사, 불광유치원 이사장, 불광사 불광법회 부주지등 불광사·불광법회를 이끌어 오는데 앞장선 포교사다. 그러면서 스님은 '시봉'이라는 수행자 본연의 자세도 잊지 않고 있다. 불광사·불광법회 법주 광덕스님이 열반하자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경험했던 시간들을 되새기며 백일기도를 하는 데서 수도승적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내일이면 늦으리〉는 송암스님이 광덕스님을 은사로 출가하면서부터 최근까지 시봉해 온 일들을 써온 글들을 모은 책이다. 〈경서원 刊, 값 8천원〉

화제의 책

지혜문 행복문 | 덕진스님 엮음

고승법어·경전 설화서 얻는 깨우침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고뇌에서 벗어나 편안과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스님이 엮은 〈지혜문 행복문〉은 부처님의 핵심사상이 담긴 〈대장경〉과 우리나라 중국 인도 고승들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깨우침을 주는 이야기' 시리즈 두번째 권으로 출간된 이 책은 〈본생경〉 〈유행경〉 〈능엄경〉등 57가지 경전에 실린 설화를 쉽게 엮었다. 각 설화속에는 연기사상, 팔정도 등의 가르침이 녹아 있어 신심증장에도 도움이 된다.

〈부다가야 刊, 값 4천4백원〉

화제의 책

가정법회 | 이학종 편저

불자가정 신심높이는 법회교안집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법보신문 이학종 기자가 쓴 가정법회 교안집 〈가정법회〉는 가정에서 법회를 볼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알기쉽게 설명한다. 가정법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할 일은 교안작성.

이 책은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찬불가, 금주의 성구, 발원문, 등을 각 부문별로 가족구성원이 돌아가며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함부 경전을 바탕으로 한 금주의 성구와 140편의 발원문은 가정화목을 이끌어내는데 유용하다. 〈운주사 刊, 값 1만원〉

주머니 속 대장경 303 - 선(禪)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오늘의 언어로 열어 보이는 本地風光

언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선(禪)의 세계

● 최근 출판가엔 가히 한국판 선의 황금시대라 할 만큼 관련 서적이 다투어 출판됐지만, 이처럼 원문의 맛을 살리는 것에 더해 탁월한 문학적 향취까지 풍기는 책은 흔치 않다. (문화일보 김종락 기자)

● 붙립문자(不立文字)의 선을 언어를 통해 그 본질을 소개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나 자신까지 해체해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광표 기자)

● 선(禪)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뿐 아니라 궁극적인 물음, '너는 누구냐'는데 답하기 위한 준비에 충분히 감당할 책이다. (한국일보 장병욱 기자)

● 선불교의 진면목을 간단명료하게 보여 주는 화두집인 『무문관(無門關)』을 번역 해제한 이 책은, 동양적 혹은 불교적 세계관에서의 자아찾기 과정을 제시한다. (세계일보 이준수 기자)

● 이 책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 현대인들을 선의 세계로 초대한다. …… 달마라는 페르시아 승려에게서 출범한 선(禪)이 6조 혜능에 이르러 기반과 동력을 얻기까지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고 있다. (시사저널 성우제 기자)

한형조 지음/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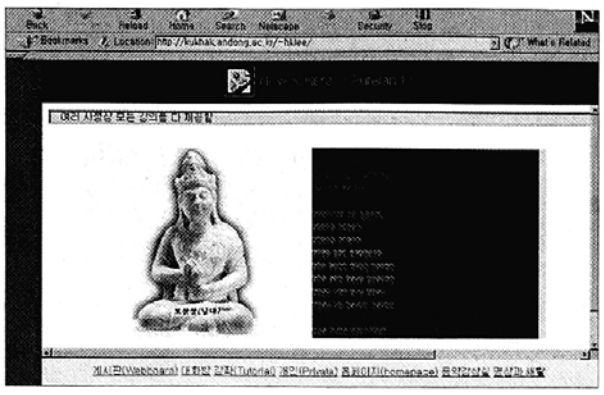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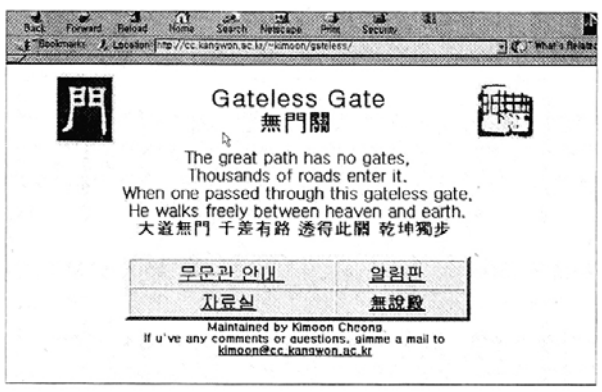
불자교수들 홈페이지 클릭하면 '불교의 바다'

해주스님·정승석교수등 6명 잇달아 개설

〈불자교수들의 홈페이지 주소록〉

해주스님	http://plaza.snu.ac.kr/~kahr-bs
정승석 교수	http://bora.dacom.co.kr/~jungss/ksipmain.htm
정기문 교수	http://cc.kangwon.ac.kr/~kimoon/gateless
이효걸 교수	http://kukhak.andong.ac.kr/~hklee
고성운 교수	http://anu.andong.ac.kr/~soko, http://soko.andong.ac.kr
진월스님	http://seos.dongguk.ac.kr/uri-korea





경전말씀, 인도문화유적, 학회 소개 등 불자교수들의 특색있는 홈페이지들이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는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최근 해주스님(동국대 불교학)은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아직까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깔끔한 디자인이 눈에 띈다. 불교분과 소개, 연혁, 회원, 행사안내, 자료실 외에도 종교학회에 대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불교분과에서 발표된 모든 논문들을 공개하고 아울러 발표회 때 미처 못다한 토론을 홈페이지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사이버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정승석 교수(동국대 인도철학)는 인도철학회 홈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학회 소개를 비롯해 인도철학 학회지의 논문 주제들을 알기쉽고 간략하게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인도철학지에 논문을 발표한 사람들의 학문적 경력과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연구 발표자 소개 코너도 있다. 정 교수가 제공하는 인도 철학 자료실에는 인도에 관한 자료와 인도의 사상과 문화 전반, 불교 관련 예술, 특히 인도 철학과 불교 분야에 유용한 정보나 자료가 있는 곳으로 링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승석의 연구실에는 정 교수의 개인 자료, 연구 목록, 논문과 불교 강의 등과 함께 인도의 종교 문화 유적도 사진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인도에 다녀온 정 교수가 직접 찍어온 사진들로 마하라쉬트라주에 있는 아잔타 엘로라 바자 등 유명한 불교석굴사원과 산치대탑, 오릿사주의 불교사원 등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코너이다. 힌두교 관련 자료로는 카주라호, 카르나타카주, 오차, 오릿사주, 라자스탄주, 타밀나두주 등의 힌두사원들과 비디샤의 석굴유적 등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자이나 교와 힌두사원터의 회교유적 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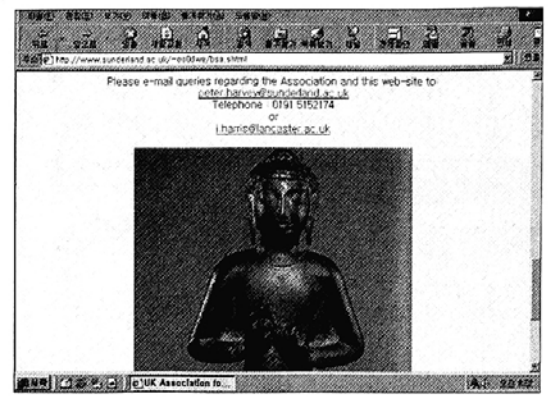
강원대 불자교수들의 경전강독모임인 무문관은 정기문 교수(강원대 경제학)의 홈페이지에 한코너를 장식하고 있다. 'Gateless Gate 無門關'의 자료실에는 한문본 〈수능엄경〉, 불교 용어 사전, 한글 〈능엄경〉, 〈능엄경〉 번역본, 청담 스님의 〈금강경〉 해설, 〈금강경 오가해〉, 일본어투 생활 용어 순화 자료, 아비달마(구사론) 등이 수록되어 있다.

중원의 미륵불, 제비원 미륵불, 당나라 보살상 등 불보살상이 연이어 떠오르는 이효걸 교수(안동대 동양철학)의 홈페이지. 이 교수는 명상과 해탈 코너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호흡법을 다룬 〈안반수의경〉을 소개하고 있다. 안반수의의 기본원리에서 시작해 실천원리 방법, 수식(數息)과 상수(相隨), 지(止)와 관(觀), 환(還)과 정(淨), 안반수의의 효과 등이 알기쉽게 설명되어 있다.

화학전공자인 고성운 교수(안동대 화학)는 화학관련 자료를 소개하는 사이트에서 부처님이야기, 불경, 불교사이트 등을 소개하던 홈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잠시 주소이전 등을 이유로 서비스를 쉬고 있다.

진월스님(동국대 강사)은 종교연합선도모임(URI)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URI 운동에 대한 소개와 헌장 기준 초안, URI Korea 회칙, 입회원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영국불교학협회

불교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

7월6일 티벳불교사상 조명 학회 열어

영국에서 불교학 연구에 중점을 두고 대학 및 대학원 학생 그리고 관심있는 불교 수행자와 불교 학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단체가 바로 영국불교학협회(United Kingdom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이하 UKABS)이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불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특정 개인의 독자적인 활동에 그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아주 작은 소그룹 규모로 불교를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 대부분이 불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류학, 동양학, 비교 종교학, 법학, 철학, 심리학, 종교학, 신학 등과 같은 인접 학문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연구되어 심도있는 불교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영국에 있는 뜻있는 불교학자들이 모여 맨체스터대학(Manchester University)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불교학 연구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UKABS 상임위원회의 회장은 영국 맨체스터대학 비교종교학 코신스 교수가 맡고 있다. UKABS가 설립될 당시의 헌장에는 "이 협회는 불교를 주제로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의 영국 내 및 국제적인 연대를 통한 학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되어 있다.

UKABS는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또 불교학 관련 학문을 연구중이거나 불교 관련 회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학회 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 불교, 서구불교의 발전을 포함하여 불교의 역사적·현대적 측면에서의 연구, 사회문제의 이론적·수행적·방법론적 연구, 불교의 경전적·언어학적·고고학적·미술사학적 연구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별로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위해 중요한 중간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UKABS 회원 자격은 이 협회가 하는 불교학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일반인에게 준회원, UKABS 정기총회에서 연회비를 납부한 학자에게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UKABS 총회 안건은 상임위원회 정족수 회원(10명)의 만장일치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신입회원들의 가입 신청에 대한 찬성·반대 결정권을 가질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UKABS에서는 정기간행물 〈불교학 고찰(Buddhist Studies Review)〉를 발행해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 간행물의 편집장은 맨체스터대학 러셀 웹 교수가 맡고 있다. 또 인터넷 상에 이 협회를 소개하는 부정기적인 〈전자 소식지〉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런던에서 7월6일 열리는 제3회 영국불교학회에 대한 정보도 열람할 수 있다. 이번 학회에서는 불교 교리에 담겨있는 동시대 사상 즉, 신비주의, 직관주의, 사실주의 등을 찾아내고 티벳불교 사상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http://www.sunderland.ac.uk/~os0dwe/bsa.shtml

"시간적 관점 연기해석 무리"

홍성기씨 '마츠모토의 연기해석 고찰'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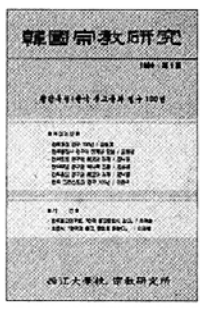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스님) 주최로 19일 동대에서 열린 비판불교 2차 세미나에서 '연기와 시간:마츠모토 시로의 연기해석에 대한 중관적 고찰'을 발표한 홍성기 강사(아주대)는 "1989년 마츠모토 시로 교수(고마자와대)가 〈연기와 공-여래장사상비판〉을 단행본으로 낸 것을 계기로 비판불교라는 조류가 생겨났다. 마츠모토의 연기해석과 공관 불교와 지배계급간의 유착문제에 관한 견해는 그가 처음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지만 그의 주장은 그 내용에 있어서 오랫동안 불교에서 논란이 되어 온 불교의 이해에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기를 시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마츠모토의 시간적 연기해석은 문제가 있다. 중관의 구조적 연기해석 즉 연기의 상의적 해석을 바른 해석으로 삼아야 한다. 연기의 시간적 해석이 야기하는 모든 문제들은 12연기가 결코 순차적 인과계열에 바탕을 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너무나 명백히 시사하고 있다. 지분들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직선적으로 해석할 경우 순관과 역관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인과관계를 불일불이(不一不異)의 연기적 분할과 조합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성철 강사(중앙승가대)는 '중관사상에 대한 마츠모토의 곡해(曲解)'에서 "단순한 사회윤리적 문제에 대한 관심에 의해 촉발되었던 비판불교 운동이 급기야 불교의 거의 모든 교설을 부정하게 된 근본 이유로 이제설(二諦說)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며 "공의 교설 중 이제설의 역할에 대해 숙지하게 되면 불교의 다양한 교리가 제 나름의 위상을 갖고 조화롭게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종교연구' 창간호 나왔다

길희성교수 '한국불교사 연구 어제와 오늘' 실어



서강대 종교연구소가 펴낸 〈한국종교연구〉 창간호는 창간특집으로 한국 종교문화연구 100년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번 창간호에서 길희성 교수는 '한국불교사 연구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하면서 "한국불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국불교전통 전체를 통불교적 시각에서 보는 담론과 한국 불교 정체성의 문제, 한국불교 종파사와 조계종의 정체성에 관한 혼란된 견해들, 한국불교의 국가불교적 성격을 둘러싼 문제 등이 더 철저하게 규명되고 정리되어야 할 큰 쟁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국유교연구 100년-김승혜 교수(서강대) △한국도교 연구의 회고와 과제-김낙필 교수(원광대) △한국무교 연구의 역사적 고찰-김성례 교수(서강대) △민족종교 연구의 회고와 과제-김낙필 교수(원광대) △한국 그리스도교 연구 100년-이찬수 강사(동국대)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학술단신

'강좌 미술사' 11호 나와

한국불교미술사학회(회장 문명대)는 인도미술특집으로 〈강좌 미술사〉 제11호를 발간했다.

11호에는 △스와트 카르카이 간다라 마애불상의 비교연구-문명대 교수(동국대) △사르나트 양식의 불타상-肥塚 隆 교수(일본 대판대) △마투라 불교미술의 기원문제-S.C.Sharma 관장(인도 베나레스대 박물관) △루마라스와미의 불상기원론-이주형 교수(서울대) 등 9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종교학회불교분과 워크숍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위원장 해주스님)는 7월10일부터 11일까지 남원 실상사에서 야함불교를 주제로 하계 워크숍(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워크샵은 해당 전공자가 자유로운 강론 및 토의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참가 대중들과 함께 불교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다. 워크샵의 성과물은 이후 각 분야별 입문서로서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사찰조경연구' 6집 발간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소장)가 〈사찰조경연구〉 제6집을 발간했다.

6집에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2회 정례학술회의 '모악산 불갑사의 종합적 고찰'에서 발표된 '불갑사의 역사와 인물'-이만 교수(동국대), '불갑사의 전적'-강순애 교수(한성대), '불갑사의 건축'-김봉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등 8편이 수록됐다.

신간

일타 큰스님의

불자의 기본 예절

바른 수행을 위한 불자 예절의 길잡이 !



바른 수행의 밑거름이 되는 불교집안의 예절.
불가(佛家)의 독특한 예절에 담긴
깊은 상징성과 깨달음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불교예절의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말씨,
걸음걸이와 앉음새, 합장법, 절하는 법,
법당에서의 예법, 법문 듣는 법,
세수·목욕·입측법 등 절집안의 생활예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I. 불자의 마음가짐과 언행
II. 합장법과 예배법
III. 사찰에서의 예절
IV. 법문 듣는 법
V. 절집안의 생활예절

4×6 판 / 3,500원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일러주고자, 일타스님 자신과 가족·제자·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신국판 / 5,000원

생활속의 기도법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4×6 판 / 3,500원

일타 큰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책

· 부드러운 말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 신국판 / 값 5,000원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전하시는 큰스님의 법어집.

· 기도(新禱) —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큰스님 주변의 기도성취 체험담 모음집.

· 시작하는 마음 — 신국판 / 값 5,000원
보조국사 《초심 初心》의 해설집.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 신국판 /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강설집.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 신국판 / 값 5,000원
《자경문 自警文》을 알기 쉽게 푼 해설집.

· 범망경보살계 1 - 5 — 신국판 / 각권 6,000원
큰스님의 보살계 법문.

· 법공양문 — 신국판 / 값 5,000원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 감로법문 — (5개 1세트) / 값 12,000원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범보시는 원하시는 분은 송판시로 연락주십시오 : 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사념분별 멈춘 멸진정 중시

경전 속의 禪 사상 24

유가사지론 ㊦

마음 가라앉혀 흔들림 없게 하라
요가 선정법 수행경지 다룬 논서

글쓴이

조환기
〈동국대 강사〉

〈유가론〉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특히 '본사분(本事分)'에 나오고 있다. 여기서는 수행의 기본이 되는 마음의 본성, 그 마음의 움직이는 방향,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상태, 수행 자체, 수행에 따른 단계적 결과, 수행의 궁극적 결과를 다루고 있다.

인도불교에서 유식사상이 등장하기 전에 유행하던 사상은 중관철학의 공(空)사상이다. 중관은 공사상을 부정의 논법을 사용하여 가르쳤다. 중관파는 존재에 자성(自性)이 없으나 인간이 언어와 교육에 의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존재의 본래 성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정의 방법으로 타파하고 있다.

이 공사상을 체득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존재와 실체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그 분석의 방법이 불교의 선정(禪定)이다. 이 선정을 더욱 강조하면서 선정 체험 속에서 나타나는 일체가 모두 마음의 허망분별에 불과함을 긍정적인 설명의 방법으로 진행해 나간 것이 유식사상이다. 이것은 〈화엄경〉의 '삼계는 모두 마음 뿐이다(三界唯心)'와 맥을 같이 한다.

〈유가사지론〉(이하 유가론)의 산스크리트어는 〈Yogācāra bhūmi śāstra〉이다. 유가(瑜伽)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요가의 음사이다. 즉, 유가란 요가를 불교적인 선정법과 수행에 따라 행한 것을 말한다. 한문으로 사(師, ācāra)는 수행자를 말한다. 지(地)란 수행의 경지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유가론〉은 '요가를 행하는 수행자들의 경지를 논한 논서'라는 뜻이다. 한역경전 100권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으로 수행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인도에서 요가의 수행법은 거의 모든 철학과 사상에서 수용하고 있다. 부처님도 처음 출가하여 당시의 수행자들에게서 요가의 수행을 했음은 불전에서 전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부처님은 부처님만의 수행법으로 이들을 모두 넘어선다.

그것이 불교의 수행관으로 정립된 4선, 4무색선, 멸진정(滅盡定)의 9차제정이다. 특히 멸진정이 부처님만의 독특한 수행법의 완성이라고 할 것이다. 이 수행관이 불교의 지관(止觀), 선(禪), 사마디(三昧)로 정립되어 있다. 지(止, samatha)란 산란한 마음의 작용이 그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탁류(濁流)가 흐르면 물 속을 볼 수 없다. 마음의 수행에서도 들뜬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관법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따라서 탁류를 가라앉히듯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들뜬 표상의 마음이 가라앉으면 마치 맑은 물 속을 들여다보듯이 마음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를 관(觀, vipasyana)이라고 한다. 관법이 깊어지면 마음이 흔들림이 없게 된다. 이를 사마디(samadhi) 등으로 부른다.

〈유가론〉에서는 초정려로부터 제4선까지의 4선을 상세히 논하고 있다. 또한 4무색선에서는 4무량심인 자비희사(慈悲喜捨)를 제3선과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과 배대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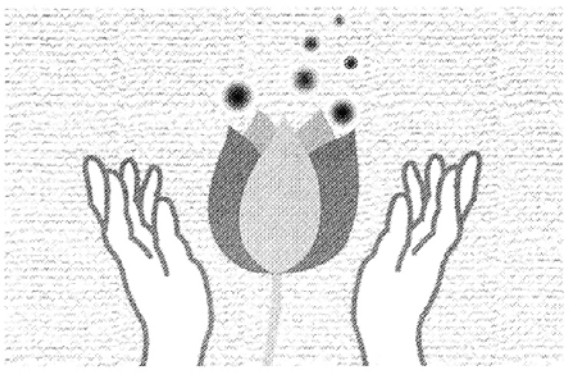
〈유가론〉에서는 특히 멸진정을 중시한다. 멸진정에 들면 모든 상념(想念)의 작용은 멈춘다. 즉, 모든 심(心)과 심법(心法)이 멸한 상태를 말한다. 멸진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止, 4선과 4무색선)와 관(觀, 4선과 4무색선이 지닌 지혜)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이에 따른 수행을 하면 멸진정 즉, 삼매의 경지에 들어간다. 모든 마음의 작용이 끊어지면 사념분별(思念分別)하는 작용이 멈추어진 상태가 된다. 이때는 목숨(壽), 체온(煖), 식(識)만 남는다고 한다.

수행을 하여 멸진정을 체험하고도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존재인 인간은 선정에 들어갔다가 다시 깨어났을 때 산하대지를 동일하게 인식하게 된다. 그것은 왜 그럴까? 이를 〈유가론〉에서는 알라야식으로 설명한다. 즉,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 완전한 적멸의 상태인 멸진정에 들어갔다가 다시 현재의 삶에 돌아오면 알라야식 안에 저장되어 있던 종자가 현행하면서 동일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알라야식의 발견은 유식학파를 대표하는 사상이 된다. 그리고 그 알라야식은 깊은 선정 체험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유가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명상법인 선정의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가론〉은 선정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작용, 수행의 과정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산책 자연과 인간

모든 존재 관계속에 공생
농약남용하면 자연 · 인간 동시 피해



자연계의 온갖 현상은 모두 관계하는 것끼리 서로 서로 작용한 결과다. 이는 일본의 카와다 카오루 박사의 말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그 독립적 실체가 없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것들은 단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이다. 우리 부모님 대 까지만 해도 뜨거운 물을 버릴 때는 반드시 적당하게 식혀서 버렸다. 그분들이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당신들의 생활에 생명에 대한 존중이 배인 것이다. 결국 지금의 우리들은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 쉽게 두려움 내지 혐오감 가지고 인간 중심의 사고를 자연에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흙이란 과연 더러운 것인가? 그래서 피해야만 하는 그 무엇인가? 언제부터인지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흙장난을 하지 않는다. 도시에서는 부드러운 진흙을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적어졌지만 부모들이 흙은 더러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고 나서는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그러나 흙이란 잘 알다시피 온갖 종류의 생명들이 살고 있는 집합체이고 우리의 먹거리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황토를 이용한 정수, 옷감, 벽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었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흙이란 더러워 우리가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생명 현상의 근원 중의 하나로 우리와 떨어져서는 안되는 존재이다.

또한 사람들은 벌레를 싫어하기 시작했다. 병원균을 옮기는 파리나 바퀴벌레, 독을 가진 벌레들, 뇌염을 옮기는 뇌염모기, 또는 피부를 부어오르게 하는 모기 등에 대하여 혐오감 갖는 경우는 그런데로 이해가 되나 무당벌레, 딱정벌레, 매미 등 인간에게 해를 주지 않는 벌레들을 무서워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단지 보기 싫다는 혹은 익숙지 않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살이 있는 생명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농부들은 자기 몸에도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이 더 많이 찾는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 농약을 친다. 그리고 농부들은 땅이 힘을 회복하기도 전에 생산을 높이기 위해 화학비료를 필요 이상으로 땅에 뿌려, 흙은 자신의 왕성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 땅에서 자라는 농작물들은 병충해에 약하게 되고 그래서 농부들은 다시 농약을 과다하게 뿌리게 되고, 악순환의 반복이다. 거기에 더하여 일손의 부족으로 김매기 대신에 제초제를 뿌린다. 많은 사람들이 월남전의 고엽제 피해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도 농도는 다르지만 제초제도 결국 고엽제의 일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결국 벌레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자연과 벌레와의 관계, 사람과 벌레와의 관계 등에 관한 무지에 의해 자연 파괴, 먹거리의 문제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소비자들이 벌레를 싫어하니 농산물에 잔뜩 농약을 뿌려 시장에 내놓는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벌레를 죽이는 농약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벌레들은 그대로 살고 농작물에 해를 주는 벌레들만 죽는다는 생각 또한 잘못이다.

언제부터 사람들은 자연보호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단어는 역설적으로 우리들이 그만큼 자연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자연의 모습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만큼 우리들과 같이 살고 있는 생명체에 대한 인식을 한번쯤 다시 해 보는 것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태국 나니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⑤

소(牛)의 흔적 ②

욕망이라는 장애물은 흥미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해결되는 순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오래도록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좋은 예가 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피자, 파스타, 아이스크림 등 특정한 음식을 먹고 싶을 때가 있다. 우리는 처음에는 참아내려고 하지만 결국 집을 나서게 되고, 그 음식을 파는 가게를 찾아가 음식을 먹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어떤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족감이라 할 수 있는 그 느낌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한 입 베어무는 순간부터 우리의 욕망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우리는 새롭게 생겨난 욕망을 오래 묵혀두지 못한다. 욕망이 고(苦)라는 사실은 이 과정을 자세히 살피면 알게 된다. '욕망'은 어떤 과정 혹은 상태가 끝나는 곳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며, 그 바람을 좇는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다.

사실 욕망은 세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장애물보다도 친숙하다. 다른 장애물이란 분노, 졸음, 불안, 불신 등이다. 이 네가지 장애물은 '도피'라는 말로써 갈무리할 수 있다. 우리의 경험을 돌이키면 이 장애물들은 싫은 일이 목전에 닥쳤을 때 생기는 반응이다. 이 장애물들은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서 사물을 설명하고 정직하게 노력할 때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삿된 감정은 놓아버려야 한다.

불교는 버리는 공부
욕망·아상 苦의 원인

'나'의 가족이니 '나'의 수행이니 하는 식으로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견해는 또 다른 고(苦)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탐·진·치라고 부르는 번뇌들이 표면상 나타난 이름과 모양일 따름이다. 마치 발우를 보고 크다 작다, 예쁘다 하는 것과 같다. 큰 발우를 원하는 사람은 어느 발우든지 작다고 할 것이다. 바로 탐·진·치 삼독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 내고, 그로 인해 차별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따라서 모든 장애물은 우리의 내면에서 생겨나는 '견해'라고도 할 수 있다. 모든 유·무정물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대해, 수행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품고 있는 의견과 생각들이라는 것이다.

생활 여건이 윤택해지면서 우리는 손쉽게 문화와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됐다. 그런데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적 지위도 누리며, 경제적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 세간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사찰을 찾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대부분 그들의 마음은 사물에 대한 고정된 견해로 꽉 차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들은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무나 똑똑한 분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사찰을 등지기 쉽다. 그런 자세로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수행에 임하는 우리는 삿된 똑똑함을 버려야 한다. 그것은 마치 오물이 가득한 컵과 같아서, 수행의 어느 순간에도 소용이 없다. 썩은 물이 비워진 다음이라야 그 컵을 쓸 수 있는 이치와 같다.

우리들의 수행은 똑똑함도 초월하고 어리석음도 초월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견해를 비워버려야 한다. 우리가 만약 스스로 '나는 머리가 좋아' '나는 돈이 많아' '난 중요한 사람이야' '불교에 대해서 난 모르는게 없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상(我相)'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불교는 자아를 버리는 공부이다. 비어있음, 공(空), 열반을 배우는 종교이다. 행여라도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고통만 당하게 될 것이다.

번역=오증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불심과 불성은 절이나 경전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있다

화엄법계의 소 울음 소리를 들었느냐

석만용 스님 지음 변형국판 / 320쪽 / 값 7,000원



이 명상록을 접하는 독자들은
금방 저자인 스님이 법당 안에서만 사시거나
경전의 글귀에만 매이시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중생의 삶 가운데 절간을 짓고 중생의 애환과 눈시울에서
경전을 읽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겪은 대로 말하는 글예술의 수필이 독자로 하여금
지은이의 삶을 머리속에 그려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상이라 한다면
스님의 이 명상록은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믿는다.

시인, 경상대학교 도서관장 - 강희근

명예, 혹은 명성의 고삐, 체면과 윤리, 도덕의 굴레,
자존심의 송곳, 물질의 멍에…….
나는 이 모든 굴레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각자 판단의 잣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아는 만용스님은 누구보다도 많이 벗은,
그래서 담을 것이 넉넉해져가는 큰 스님이라는 사실이다.

소설가 - 김수용

삶에는 지혜와 용기와 진실이 필요하다

삶이란 뭐꼬

석만용 스님 지음 변형국판 / 256쪽 / 값 7,000원

"누더기 같은 욕망을 버려라."
"쓰레기같은 집착심도 버려라."
"결레같은 망상, 똥같은 오만과 편견도 버려라."
나는 한동안 삶에 지친 군상들에게 버릴 것만을 강조했다.
그들이 뽕잎을 먹고 크는 누에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몇번이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섶에는 신선한 뽕잎이 고갈되지 않아야 한다는
삶의 법칙을 최근에야 깨달았다.
그러니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불제자인가.

삶이란 변화가 있고 희망이 존재하는 저마다의 오솔길이다.
나는 한 마리 과랑새가 되어 지친 발걸음을 옮기는
중생들의 머리 위에서 노래공양이라도 하고 싶다.
그간 저질렀던 무심, 무능, 무학의 소치를 일부나마 덜기 위하여.

도서출판 빛샘 전화(대) : (02)3143-1516 · 팩스 : (02)3143-1518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하남시, 백제불교 초전지 '가능성'

사지 14곳·마애불·불상·탑지등 성보 산재
백제문화硏 "천왕사 마라난타 창건사찰 분명"



◇하남시 불교유적 분포도.

삼국시대의 불교문화가 숨쉬는 땅. 시 면적의 대부분이라 할 90%가 71년부터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그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 경기도 하남시에 사학·고고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대박물관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하남시 전역에서 실시한 제2차 지표조사 결과 개두사지, 봉수사지, 상가창동사지, 범굴사지, 신복선사지, 하산곡동사지 등 절터 5곳과 불교유물 2기를 추가 발견하고, 교산동 토성에서 하남위례성으로 추정되는 초석과 적심석 90여개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가 백제왕조 6백60년 가운데 기원전 18년에서 기원 475년까지의 한성백제 시기의 수도인 하남위례성이자, 마라난타가 침류왕 2년에 절을 세웠던 백제불교의 초전지로도 추정되고 있다.

90년대 초부터 하남시 교산동 토성을 하남위례성으로 지목해온 백제문화연구회(회장 복선규)도 초석과 적심석군에 주목하고 "이곳이 왕궁터로 밝혀진다면, 마라난타가 창건했던 백제불교의 초전지는 천왕사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고대국가에서는 방위와 수호신을 중시했고, 동진의 왕실불교를 수용한 백제가 왕궁을 중심으로 각 방위에 사찰과 성물을 두었다는 추론이다. 부여의 백제 왕궁터인 부소산성 남쪽에 정림사지가 있듯이 교산동 토성 남쪽 사지 역시 그와 같은 격의 대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하남 지역에는 14곳의 사지에 불교유적이 산재해 있으며, 이 가운데 교산동 토성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선법사 약사마애불, 서쪽에는 동사지와 금암산 미륵마애불, 남쪽에는 천왕사지, 북쪽에는 교산동 복단사지 등이 있다. 하남시의 주요 사지와 유물을 살펴본다.

■천왕사지

광주향교에서 남동쪽으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하사창동 골말 부근의 절터로, 1·2차 지표조사를 실시했던 세종대박물관은 주초석 분포로 보아 대략 사지 규모를 1만평 이상으로 추정했다. 1차 조사에서 고려 초기에 제작된 '명문 기와' '대형 좌대' 등이 발견돼 고려 초 창건된 사찰로 추정됐으나, 2차 조사에서 사지 내 민묘의 뒤쪽에서 거대한 사리공 석재가 발굴, 천왕사 창건 연대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사리공 석재 주변에서 다량의 전돌과 난간석이 나와 전탑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곳에서는 높이 2.88미터에 달하는 국내 최대 '광주 철불'(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 발굴되기도 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다량의 슬래그가 발견돼 천왕사에서 직접 주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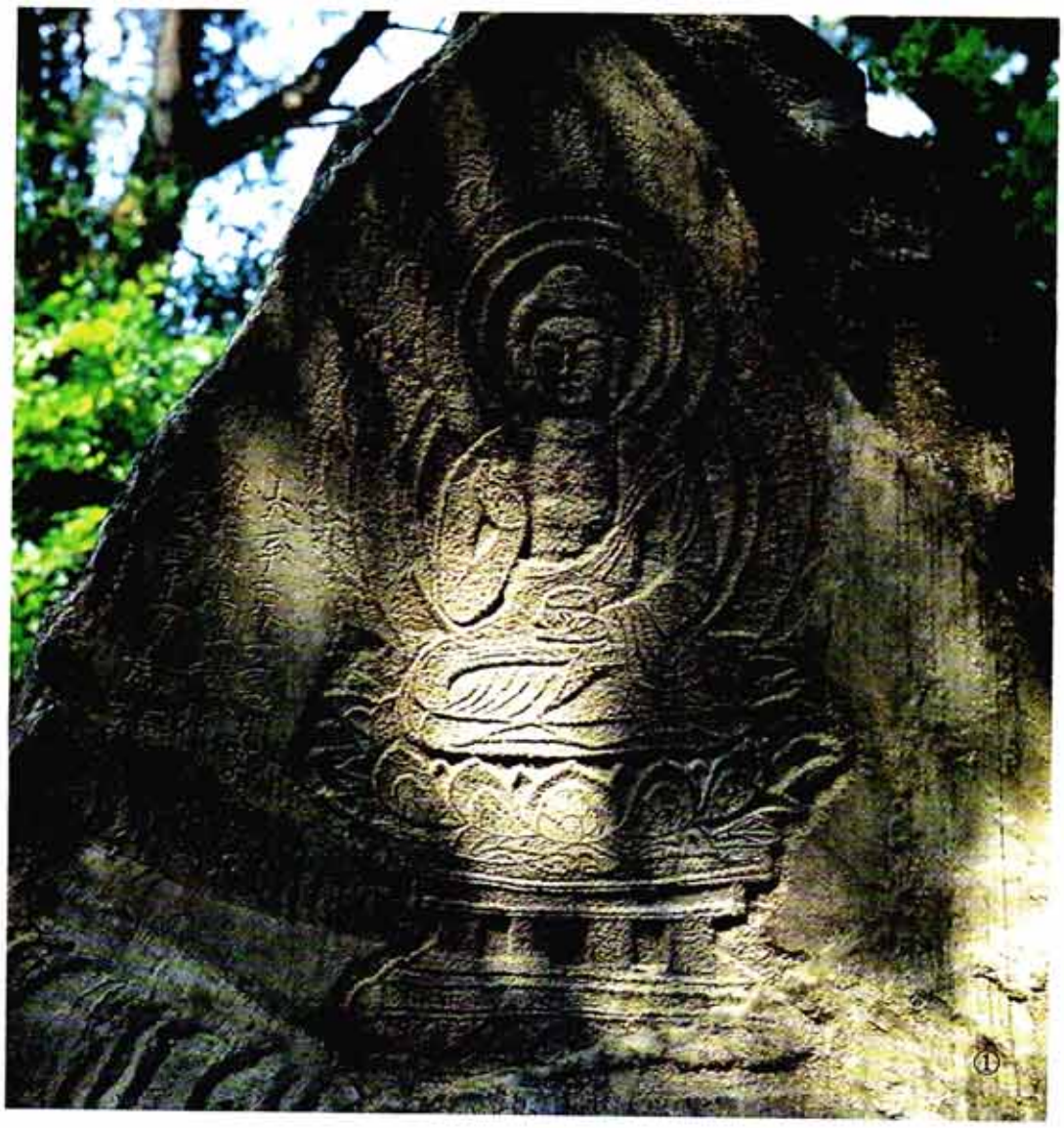
천왕사의 기록은 '원종국사혜지탑'(고달사지 소재)과 〈고려사〉 등에 있는데, 비문에는 "태조 왕건이 양주 삼각산 장의사에서 구족계를 받은 원종대사를 모셔와 광주 천왕사 주지로 있게 했다", 〈고려사〉에는 "신돈이 공민왕 15년 4월에 재상들과 천왕사의 불사리를 맞이했다" 등이 남아있다. 고려 태조가 친히 당대 고승을 존숭케하고, 불사리가 있을 만큼 천왕사는 지리·정신적으로 왕실과 가까웠던 대찰임을 짐작케 한다.

■동사지

동사지는 이성산 남쪽 고골저수지 부근 야산 기슭에 자리잡은 절터다. 1차 발굴을 시도했던 동국대박물관은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10세기경 중창된 '광주동사'로 밝혔다. 또 초석의 규모로 이곳의 대웅전이 경주 황룡사의 금당에 필적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초석렬 내에 있는 석재 팔각대좌를 발굴했다.

그러나 초석은 대웅전터로, 그 안에서 발굴된 팔각대좌는 본존불을 봉안했던 것으로 추정한 동국대박물관과는 달리 팔각대좌 중앙에 나있는 '구멍'에 초점을 맞춰, 팔각대좌는 '심초석'에 가깝고 주변 초석에는 목탑 기둥을 세웠다는 의견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즉, 대웅전터보다는 목탑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백제문화연구회가 동사지에서 1.6미터 크기의 '치미'를 발굴했는데, 지금까지 국내에서 치미가 발굴된 곳은 왕사(王寺)의 격을 갖춘 미륵사지와 황룡사지 두 곳 뿐이다. 따라서 동사지의 정확한 쓰임과 규모 그리고 연대를 밝히기 위해서는 재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학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금암산 마애불. 백제시대 조성된 태안 마애불과 양식이 비슷하다.

■선법사와 금암산 마애불

객산과 금암산에서 각각 하남위례성으로 추정되는 곳을 바라보고 있는 불상이 바로 선법사와 금암산 마애불로 제작 연대는 삼국시대. 〈남한비사〉에는 "춘궁리 사리고개에 있는 석불은 도성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문화연구회는 두 곳의 마애불도 왕궁의 동·서에서 동일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고려 경종 2년에 중수했다"는 명문이 새겨진 선법사 마애불 발 밑에서 '팔연잎' 연화대가 발견됐는데, 그 중심에 5개의 원이 새겨져 있었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5방을 중시한 백제시대의 마애불이 중수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남한비사〉에는 약사마애불 인근 약수터의 물을 백제왕이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부여의 고란사에도 똑같은 기록이 있다.

금암산 마애불은 동국대박물관이 조사했던 마애불로, 가슴에 굵은 띠주름은 태안마애불과 흡사하다고 보고됐다. U자형 주름은 백제 마애불의 특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약사마애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약정사지·자화사지

약정사지는 함동에서 서쪽으로 금암산록을 따라 약 500m 거리에 있는 사지로 92년 '약정'이라고 새겨진 기와장이 발견돼, 이 일대가 백제의 초도였을 가능성을 높여준 사지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약정사는 한산에 있다"는 기록이 있다. 자화사지는 금암산 정상에서 동쪽 능선에 위치한 사찰로, 1차 지표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사찰로 추정되고 있지만, 〈남한비사〉에는 일제시대 도리이가 이곳에서 '법륭사'라고 쓴 와편을 발견했는데, 일본의 나라현 법륭사의 벽화 글씨와 필법이 동일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자화사지의 발굴에 들어가면 이곳의 창건 연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적연구

지금까지 하남시에 대한 학술 조사는 세종대박물관의 지표조사와 동국대·한양대박물관의 동사지·이성산성 1차 발굴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 지역 사지와 유물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내년부터 교산동 토성, 천왕사지, 동사지 등의 발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남시의 하남위례성' 설에 쐐기를 박겠다는 입장이다.

백제문화연구회 오순재 연구원은 "한산은 남한산을 기점으로 동으로는 검단산 서로는 금암산을 포함하는 '큰' 산일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교산동 토성의 초석과 적심석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왕궁지와 백제불교 초전지의 실체가 밝혀지는 것은 물론 하남시는 새로운 불교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석군 발굴에서 기대를 모았다.







①선법사 마애불. 고려초 중수했다는 명문이 남아있고, 마애불 아래에서 '팔연잎' 연화대가 발견돼 백제시대에 조성된 마애불로 추정된다.
②백제문화연구회가 찾아낸 약정사 명문기와. 하남시 일대가 한산임을 증명해 주는 유물이다.
③천왕사 명문기와. 교산동 토성을 왕궁지로 볼때 남쪽에 위치한 천왕사는 백제불교 초전지일 가능성이 크다.
④천왕사 사리공 석재(160×140). 석재 주변에서 다량의 전돌이 발굴돼 전탑의 초석으로 추정된다.
사진제공=전성영(사진작가)

■문헌기록

〈신증동국여지승람〉 '광주조'="약정사는 한산에 있다."
〈고려사〉, 〈고려사절요〉="신돈이 공민왕 15년(1366) 4월에 재상들과 함께 광주 천왕사의 불사리를 맞이하여 왕륜사에 두었다."
〈세종실록〉="세종 28년(1446) 4월 23일에 광주 천왕사의 사리 10과를 궐내에 바쳤다."
〈동국여지지〉="백제의 옛 도읍지인 하남위례성의 왕궁지는 궁촌(현재 춘궁동)으로 봉이 가할 것이다."
〈남한비사〉="서부면 춘궁리의 사리고개에 있는 석불은 백제 때에 외부로부터 수도로 통하는 고개에 불상을 두어 수호신으로 도성의 안전을 기원했다."
'원종국사혜지탑'="원종대사가 양주 삼각산 장의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는데 태조 왕건이 그를 모셔와 광주 천왕사에 주지로 있게 하였다."

오종욱 기자(gcbaocu@buddhapia.com)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㉕

今 達眞心 契無生滅之覺性
금 달진심 계무생멸지각성
起無生滅之妙用 妙體眞常 本無生滅
기무생멸지묘용 묘체진상 본무생멸
妙用隨緣 似有生滅 然從體生用
묘용수연 사유생멸 연종체생용
用卽是體 何生滅之可有
용즉시체 하생멸지가유
達人卽證眞體 其生滅 何干涉耶
달인즉증진체 기생멸 하간섭야
如水以濕性爲體 波浪爲用
여수이습성위체 파랑위용
濕性元無生滅故
습성원무생멸고
波中濕性 何生滅耶 然波離濕性
파중습성 하생멸야 연파리습성
別無故 波亦無生滅
별무고 파역무생멸

그러나 지금 진심에 통달하면 생멸이 없는 깨달음의 성품에 계합해서 생멸이 없는 신묘한 작용을 일으킨다. 신묘한 본체는 진실하고 한결같아서 본래 생멸이 없으나 신묘한 작용의 인연을 따르므로 생멸이 있는 것같다. 그러나 본체로부터 작용이 생긴 것이니 작용이 곧 본체인데 어찌 생멸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달인(達人)은 진실의 본체를 증득하였으니 어찌 생멸이 간섭하겠는가. 마치 물이, 습성(濕性: 물 그 자체를 뜻함)이 본체가 되고 파도가 작용이 되는 것과 같다. 물 그 자체는 생멸이 없기 때문에 파도 속의 물인들 어찌 생멸이 있겠는가. 그러나 파도가 물 자체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도 역시 생멸이 없는 것이다.

所以古人云 盡大地 是沙門一隻正眼
소이고인운 진대지 시사문일척정안
盡大地 是箇伽藍 是悟理人
진대지 시개가람 시오리인
安身立命處 旣達眞心 四生六道
안신입명처 기달진심 사생육도
一時消殞 山河大地 悉是眞心
일시소운 산하대지 실시진심
不可離此眞心之外 別有依託處也
불가이차진심지외 별유의탁처야
旣無三界妄因 必無六趣妄果
기무삼계망인 필무육취망과
妄果旣無 說甚依託 別無彼此
망과기무 설심의탁 별무피차
旣無彼此 則何可不可也 卽十方世界
기무피차 즉하가불가야 즉시방세계
唯一眞心 全身受用 無別依託
유일진심 전신수용 무별의탁

그러므로 옛사람이 '온 대지가 곧 사문의 한쌍 바른 눈(正眼)이요, 온 대지가 하나의 가람이니, 이런 이치를 깨달은 이의 안심입명처이니라' 하였다. 이미 진심을 통달했다면 사생 육도(四生六道)가 한 순간에 소멸하고 산하대지가 다 이 진심이다. 그러니 진심을 떠난 바깥에 따로 의탁할 데가 있을 수 없다. 이미 삼계의 망령된 인연이 없으니 반드시 육도의 망령된 과보는 없게 되고, 망령된 과보가 이미 없다면 무슨 의탁을 말하겠는가. 또 따로 피차란 없는 것이며, 이미 피차가 없는데 무슨 옳고 그름이 있겠는가. 시방세계가 오직 하나의 진심이라서 전신(全身)으로 수용하고 있으니 따로 의탁할 것이 없고, 또한 나타나고자 하는 곳이면 마음대로 왕생하되 아무런 장애가 없다.

시방세계가 오직 하나의 진심이니
무슨 옳고 그름이 따로 있겠는가

故傳燈云 溫操尙書 問圭峰曰
고전등운 온조상서 문규봉왈
悟理之人 一期壽終 何所依託
오리지인 일기수종 하소의탁
圭峰曰 一切衆生 無不具有靈明覺性
규봉왈 일체중생 무불구유영명각성
與佛無殊 若能悟此性 卽是法身
與佛無殊 若能悟此性 卽是法身
여불무수 약능오차성 즉시법신
本自無生 何有依託 靈明不昧
本自無生 何有依託 靈明不昧
본자무생 하유의탁 영명불매
了了常知 無所從來 亦無所去
了了常知 無所從來 亦無所去
요요상지 무소종래 역무소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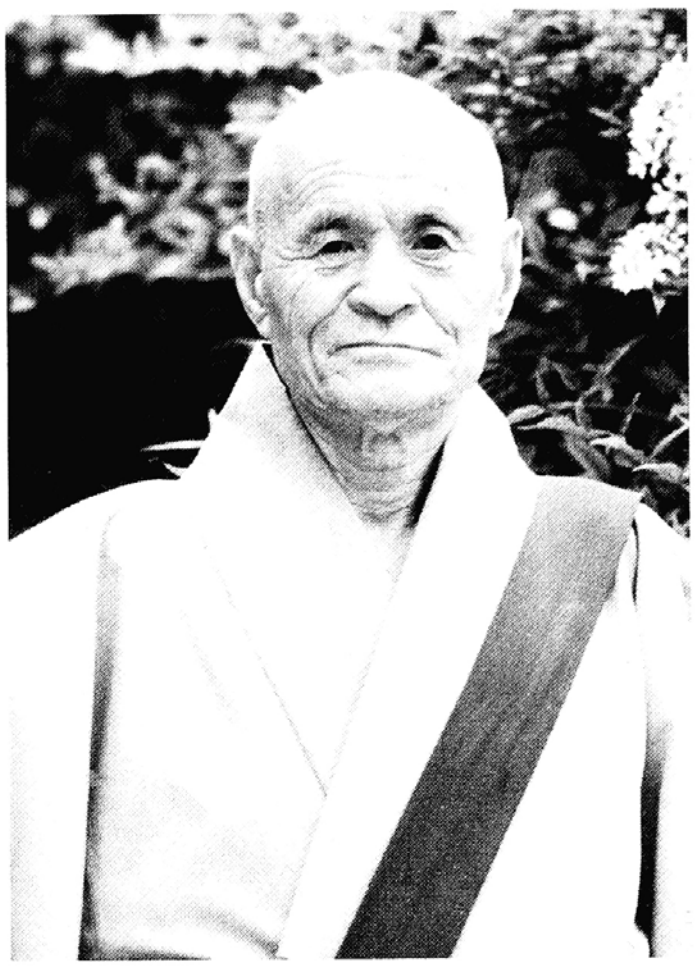
그러므로 《전등록(傳燈錄)》에 온조상서가 규봉선사에게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수명을 다하면 어디에 의탁합니까"하고 물으니 규봉선사께서 "모든 중생이 신령스럽고 밝은 깨달음의 성품을 갖추고 있으므로 부처와 다름이 없다. 만일 이 성품이 곧 법신인줄을 깨닫는다면 (법신은) 본래 태어남이 없는데 무슨 의탁이 있겠느냐. 신령스럽고 밝아 어둡지 않고, 항상 분명히 알되 어디서 온 것도 아니요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공적(空寂)으로써 자체(自體)를 삼되 그것을 육신이라 인정하지 말며, 신령스럽게 아는 자리로 자기 마음을 삼되 망령된 생각을 그것이라고 인정하지 말라."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양심에 거리낌 없으면

성공스님 〈부산 안양사 조실〉



· 1926년 경남 양산 生
· 1941년 운봉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 1943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 1948년 통도사 불교대학 대교과 졸업
· 1949년 금정선원 하안거 성만후 정혜사 선원, 도리사 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30안거 성만
· 1955년 충무포교당 주지 역임
· 1957년 충무 용화사 주지 역임
· 1967년 진주 연화사 주지 역임
· 1973년 금강경 독송 테잎 제작-아미타경, 천수경, 부모은중경 다수 녹음.
· 현재~1971년 이후 부산 안양사 주석

"씨뿌리고 갈아야 결실맺듯 믿고 배우고 그대로 행하면 견성성불의 싹 돋아요"

집을 지을 때 집을 받치는 네기둥이 있듯이 불법을 익혀 나가는데도 화엄경의 사주가 있습니다. 화엄경의 네 기둥은 신(信)· 해(解)· 행(行)· 증(證)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마치 집의 네 기둥 중 하나가 빠진 것과 같아서 그 집은 무너지고 맙니다. 불자들은 신·해·행·증을 두루 갖추어야 합니다. 흔히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법을 믿어야 합니다. 유교의 오행 금목수화토와 오상 인의예지신의 맥락을 짚어 가다 보면 신(信)이 토(土)에 해당됩니다. 즉 믿음은 흡사 땅덩어리와 같다는 말이죠. 땅이 바탕이 되어 산천이 뿌리내리듯 흙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믿음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듯이 믿는 데만 그치지 말고 믿음을 바탕으로 배워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대전제로 알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절에 다니고 책을 백권 읽어도 실천이 없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논을 갈고 씨앗을 심어야 하듯이 아무리 불법을 믿고 배워 알아도 실천이 없으면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 않고 수확물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증한다는 것은 앞의 세가지가 성숙하면 저절로 이루어 집니다.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신·해· 행 ·증 어느것 하나라도 가벼이 여기거나 빠뜨리면 안되는 것입니다.

불자라면 견성성불을 이야기 합니다. 마음 깨쳐 부처 된다는 말인데 그 말에 색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한쪽에만 치우치면 큰 공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귀의불양족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가지가 구족한 부처님이라는 말인데 그 두가지란 공부하는 것과 복 짓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를 해서 견성성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지어야 합니다. 지악작선, 즉 악을 짓지 말고 선행을 하라는 말입니다. 선행을 닦고 복을 지어야 자동차 수레바퀴처럼 공부와 복을 짓는 것이 조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견성성불만 하고 중생제도가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공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정각을 이루신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 중생제도부터 시작하셨잖습니까. 또 불경에도 자타일시 성불도라는 말이 있듯이 중생제도가 궁극적인 공부인 것이며 그것이 대승입니다. 복을 짓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보시가 있습니다. 보시는 외시, 내시, 법시가 있는데 외시는 물질적 측면의 보시를 말하며 내시는 몸뚱아리 보시, 즉 요즘 한창 생명을 나누는 운동이라고 하는 장기기증이나 굶주린 호랑이에게 몸을 던져준 이야기등에서 알수 있는 것이죠. 법보시는 법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 위에 부처님을 받들어 이고 다니는 것보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귀하다고 했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전부를 마치 방송이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계는 바로 밤가시와 같습니다. 물질에 치중하다 보면 서로 찌르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찌르고 이웃이 이웃을 찌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탐,진,치 삼독심은 밤송이의 두꺼운 껍데기입니다. 물질도 소용없고 삼독심도 결국은 버려야 하는 불필요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번뇌는 속껍질입니다. 세세한 번뇌까지 모두 벗겨 버려야만 밤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라야 비로소 즉견여래요, 여래진실상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선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밤 알맹이 마저 버려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알맹이에서 싹이 나면 또 다른 밤송이가 되기 때문이죠. 좋은 것도 버리고 나쁜 것도 버려야 한다는 결론이 저절로 나오지요. 물질에 대한 것, 심적인 삼독심, 미세한 잔걱정까지 싶지어 여래진실상마저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견성성불했다는 생각마저 버리지 않으면 백천제불이 눈에 든 모래와 같이 됩니다. 죄도 본래 성품이 없어 부처도 중생도 헛된 소리요, 모래 하나 털끝 하나 전부다 버리고 나면 나도 다른 이도 부처도 없고 불법의 대진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범소유상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물질의 세계를 총평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물질적인 세계를 총평해 보면 이것은 전부 유의 세계입니다. 모래도 유의 세계요, 털끝도 유의 세계요 말한마디도 유의 세계요 손가락 한번 까딱 하는 것도 유의 세계요, 할도 유의 세계요, 주장자도 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불법의 극단적인 차원에서는 유의 세계를 초월해서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무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할 때에는 털끝하나라도 남겨놓으면 안되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털끝 하나는 없는 것으로 치고 무의 세계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법의 세계는 무의 세계이며 바로 유의 세계에서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물과 얼음으로 비유하면 물이 흘러가는 것은 유의 세계요, 물이 얼어 동요가 없는 적정한 얼음이 되는 것은 무의 세계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는 것에도 영도에서 어는 것과 영하 십도에서 어는 것과는 다른 것처럼 견성

도서 출판 열린마음·열린세상 전화 (051)627-5498 팩스 (051)623-3946



4×6배판 / 값6,000원

'지장사상'은
잘하면 상을 주어 천당 보내고 못하면 벌을 주어 지옥 보내는 극단의 사상이 아니라, 지옥의 모든 중생이 제도되어 지옥이 텅 빌 때까지는 자신의 성불도 포기하겠다는 구제사상 이야말로, 이 시대 중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상이요, 신앙입니다.

지장사상과 지장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책으로
지장기도를 하는 불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침서

지장불교 공양차제법

찬술/석용산 스님 · 엮음/석효선 스님

이 책에 실려있는 "지장참부경", "지장왕보살지혜심경", "지장경약찬게" 등은 스님께서 직접 찬술하셨으며, "지장예참", "지장왕보살예찬문" 등은 한글로 번역하고, 노래로 엮어 대중들이 편히 읽고 신심 나게 독송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각권 값 3,800원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①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②여보게 저승갈 때 뭘가지고 가지
③사람이 그리워지는 시절
④성숙은 아픔의 동굴을 지나서
⑤친구하자, 친구하자

이 책들은 그 동안 스님께서 발표하신 글들 중 이 시대에 필요한 가르침을 가려 뽑아 작은 책자로 다시 엮었습니다. 세상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스님의 참모습을 바로 보고 진정한 자비실천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석용산 스님과 함께하는
마하무드라의 노래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 지장기도법회

●지장예참기도 ▶ 음력 매월 초하루(부산, 대구포교원) 오전 11시
●지장천도기도 ▶ 음력 매월 14일(부산), 18일(대구) 오전 11시
●지장예찬기도 ▶ 매주 수요일(부산), 금요일(대구) 오전 11시

큰스님 수행한담

선행 어렵지 않아요"



마음공부 한다는 것은 요동치는 중생심을 끊임없이 비워내는 일

◇1950년 정기법회를 지도했던 해군불자들과 함께 부처님오신날 기념법회를 가졌다.

말이 전해져 오던 곳이예요. 누구나 공부하면 문수동자를 친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겉모양은 그렇게 보았지만 직접 대화를 하고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밤 10시쯤 되어서 여름이라 마루에 앉아 정진을 하는데 그 맞은편 산에 둥그런 불이 하나 있어요. 한참을 보고 있으니 한 50m 정도 이동을 하더군요. 그러면 분명히 사람의 불이 틀림 없다는 판단이 서더군요. 그래서 산삼 캐는 사람의 불인가 보다 했는데 그 불이 금방 제 자리로 돌아오더군요. 그걸 보고 그 이튿날 거기 무엇이 있었나 싶어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사람의 자취도 없고 호랑이의 자취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 생각에 불이 갔던 그 자리에 무엇인가 있겠다 싶더군요. 오대산에는 산삼이 많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산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산삼이 있는데 아마 산신 기도를 해야 산삼을 캘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는 아직 여름이었고 산삼은 입추를 지내야 효험이 있기 때문에 7월 초순에 삼일간 산신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이 산삼 캘려고 산신기도 하자니 자존심이 상해서 삼일 동안 금강경을 읽었어요. 금강경을 삼일 동안 읽고 나서 그 자리를 갔어요. 그곳에 이상한 풀이 하나 있어서 손에 쥐고 뽑으니 산삼이더군요. 손에 흙도 안 묻히고 산삼을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금강경을 읽게 된 것이 매일 읽게 되었어요. 늘 금강경을 성불하고 도를 통했다 하더라도 차등이 있습니다. 근근히 살얼음 같은 도를 통했는지 두꺼운 얼음의 상태에 도달했는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러 오유심천, 즉 깨달음에도 깊고 옅음이 있다고 합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녹음한 금강경 독송 테잎은 알고 있고 많이 듣고 있다고들 얘기하더군요. 내가 독송 테잎을 만들게 된 계기를 무척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더군요. 그러나 내가 그 테잎을 만들게 된 것은 계획을 세우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독경을 하게 된 계기는 지금부터 36년전 오대산 중대 보궁에서 출발합니다. 상원사 위에 있는 적멸보궁에서 여름한철 기도를 하는데 하루 12시간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기도하는 이들이 많지를 않고 내 혼자 하다시피 했어요. 고산지대라 늘 비가 오락 가락 했는데 그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1시에 올라가서 4시까지 기도를 한 후 법당 청소를 하고 문을 열고 나오니까 보궁앞에 하얀 옷을 입은 열일곱 살 쯤 돼 보이는 젊은 청년 하나가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그래서 방 청소한 찌꺼기를 한쪽 구석에 버리고 자세히 볼 양으로 가가까니 그만 간데 온데가 없어요. 그곳은 그전부터 문수동자 친견이라는 일과적으로 한번씩 외우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후 마산포교당에 와서 지낼 적에 신도들이 늘 금강경 녹음을 해달라고 녹음기를 갔다 놓더군요. 녹음을 할려고 하니 어색하고 해서 그냥 테잎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은 계획적으로 독송을 한다 이렇게 했지만 나는 경읽는 것이 본래 평범한 내 생활인 관계로 다만 내가 산삼을 먹게 된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면 보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1973년 이었는데 한국불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랬는지 불자들이 가정마다 그 테잎을 사서는 금강경을 들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가까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어서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독경 테잎 내고 평생을 포교당에서 포교하는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큰절 주지 말아 본적도 없고 단지 법사로 평생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절에 다니고 불법 알아도 실천 없으면 헛일

'공부'와 '보시' 깨달음으로 가는 두바퀴

요즘은 우리때와는 공부여건이 많이 달라요. 지금은 절에 가면 승가대학이나 선방이나 전부 공양을 하면서 공짜로 먹여 주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강원에 가서 공부를 할려면 자기 양식, 학비를 가지고 가야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스님네들 한달 양식이 쌀 서말이었는데 그 서말 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그래도 공부하겠다는 열의가 대단했죠. 해방이듬해 통도사 강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큰절에서도 살림이 어려워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 방학을 일찍하고 학인들을 내보냈는데, 나는 진주 연화사에 가서 부전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는 콜레라가 심해서 그곳에 있던 4명이 모두가 콜레라에 걸렸어요. 세 사람이 하루 한사람씩 죽는 것을 보면서 시체를 덮어놓고 예불 모시고 그랬습니다. 나는 '소위 산중에서 공부하다가 도시에 와서 콜레라에 걸려 죽어서 되겠나' 싶어 관세음보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면서 세 사람의 시체를 내 손으로 치우고 난 다음에 살아났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기도할 때 죽더라도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죽는다는 각오로 했죠. 그러니 나는 부처님의 가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죠.

사람을 만나서 법문을 하다보면 사람마다 장소마다 다른 법문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참선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참선하라고 가르치고 경 읽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 경 읽으라고 가르치고 기도하라고 할 사람은 기도하라고 일러주게 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면 성취는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에 가면 선한 생각이 나고 공부할 생각도 나지만 집에 돌아가면 집 걱정이 앞서니까 공부할 때는 장소가 필요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무 때나 앉고 서면된다고 하지만 어느정도까지는 공부하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조용한 장소에 가서 공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가불자들이 조용한 장소만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활 중에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보면 공부의 근량이 무거워지고 세속이 멀어지게 됩니다. 즉 불법이 차츰 성숙해지고 세속법은 점차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스님들도 처음에는 산중에 있으면 공부가 되다가 세속에 오면 공부가 안되다가 산중에서 공부가 깊어지면 덜 익었던 것이 익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 덜 익었던 것은 점점 익어지고 세속에 익숙해 있던 것이 차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불자들은 그처럼 일상을 살면서 점점 불법을 익혀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악을 막고 중선을 봉행하라. 자정귀의 하면 시제 불법이라"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이전의 칠불이 공통적으로 설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말은 모든 악을 저지르지 말고 모든 착한 일을 받들어 봉행 하라는 것이죠. 바로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아침햇살 속에 문을 열면 먼지 움직이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그만큼 요동을 하는데 그것을 고요히 한다는 것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을 하다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세생생 보고 듣고 익혀놓은 것이 먼지 늘 듯이 떠도니 그것을 비워내기 위해 참선고 하고 경도 읽는 정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조정봉 〈서울시청 불심회장〉

〈下〉

주위 반대불구 구청강당서 대법회
서울시내 구청불교모임 22곳 결성

우여곡절속에 불교모임은 창립했지만 법회보기가 여간 쉽지 않았다. 당시 시대적 상황속에서 한가롭게 신행활동을 한다는 것은 여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럴수록 부처님의 감로법문을 애타게 기다리는 직원불자들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다. 나는 힘을 얻었다. 내친김에 '부처님 가르침이나 전해보자'라는 대원력을 세웠다. 먼저 2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동작구청 대강당에서 대법회를 봉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간부직원에게 상의했으나 일거에 거절당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 생각하고 '시민화합기원대법회'라는 법회 주제와 일정을 정했다. 또 국립 현충원내에 있는 지장사에 불상도 모시기로 했다. 그런데 주위에서 난리가 났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모한 짓을 하느냐. 죽고 싶으냐, 살고 싶으냐"는 등 정말 야단법석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 갈길을 갑니다'라고 결심하고 계속 추진했다. 주위에서는 내가 정신이 상자가 아니냐고 비아냥거리며 거세게 질타했지만 법회는 예정대로 개최됐다. 대강당은 입추의 여지 없이 성황이었다. 법사스님의 사자후는 구청청사를 메아리쳤다. 이렇게 해서 법회는 계속되었고 동참인원만도 매번 1천여명이상이었으니 당시 시대상황을 그렇게 무서워하던 회원들도 법회이후 무엇이든지 하자며 나서기 시작했다. 회원들은 법회와 명찰순례를 하면서 신심을 다졌다. 이러한 활동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심월회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회원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신행생활을 통해 회원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구청에도 불교모임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같은 의견을 회원들에게 제의하니 모두들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우선 서울시내 22개 각 구청 신행단체를 결성하기로 했다. 우선 연합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조계사에서 서울시 신행단체연합회를 출범시켰다. 13년전의 일이다.



당시 시대상황으로는 구청에서 법당을 마련하고 법회를 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회고해보면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다. 일반행정기관 중앙강당에 법당을 마련하고 법회가 진행되는데도 유·무형의 압박이 가해지고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불자인데도 불자가 아니라는 말하는 시대였다. 행정기관에 법석을 마련한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는 있을 수도 있지도 않았던 일이었으니 어찌 말로써 다 형용할 수 있겠는가. 이같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법회활동을 계속키 위해서는 공무수행도 철저히 해야 허물이 안생기기 때문에 밤낮으로 뛰었다. 집에는 쌀이 있는지 자식들은 학교에 잘 다니는지 나는 지금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각종 법회 사찰 등을 쫓아 다녔다. 이를 계기로 80년대 말 전국의 직장에서 신행단체가 속속 창립되었다. 심월회가 주축이 되어 지금까지 22년동안 창립된 구청 불교모임만 해도 22곳이 족히 된다.

나는 이제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함께 있던 법우의 장례를 치루고 시신을 묻으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곤 한다.

전국 산하를 누비며 우리 호법신장이 되자고 맹세하던 때가 그리워지는데 이제 그 법우들이 간곳은 흔적을 찾을길 없으니 말이다.

'하늘과 땅 내가 같은 뿌리요, 만물이 나와 한몸이라(天地與我同根 萬物與我一體)' 이제야 대행스님의 사자후가 나를 휘어감고 있음을 알리라. 또한 승찬조사의 신심명에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 상응하지 못하고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못할 곳이 없다'고 하였으니, 부처님께서 사해에 던지신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을 부여잡고 십바라밀을 벗으로 삼아 팔정도를 행하며 살아가리라.

국내 최초 단행본 출간!
부처님은 전생에 청개구리였다!
부처님 전생이야기
서희건 엮음
(문화재 전문위원)
2500여년 전에 씌어진 우화처럼 재미있고
눈물겨운 부처님 전생의 보물창고 자타카!
부처님의 전생은 기구하기 짝이 없다.
까마귀, 거북이, 코끼리에서부터 아이 낳는 여자,
도둑으로도 태어났었다. 한마디로 이 책은
부처가 되기 전 보살로 살았던 전생 이야기인 것이다.
이들 설화는 동화처럼 아주 재미있기도 눈물나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나 아라비안나이트, 우리나라
삼국사기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전2권|각권 값7,500원〉

박삼중 스님의
인연 이야기
처음으로 고백한 삼중 스님의 진솔한 라이프 스토리!
세 명의 의붓아버지를 둔 기막힌 팔자 이야기부터, 출가 · 환속 · 출가에 얽힌 숨기고
싶었던 여자 이야기, 그리고 사형수의 대부가 되기까지 처음으로 공개한 자전 에세이!
서대문 구치소 담 뒤에서 태어난 삼중 스님! 첫돌날 부처님을 모독하고 세상을 등진 젊은 아버지,
형무소에 수감된 또 다른 남자를 시중들기 위해 여교도관이 된 어머니! 그 어머니의 거듭된 재혼으로
세 명의 의붓아버지 곁에서 눈칫밥 먹던 소년 시절. 그리고 맨발의 출가와 환속으로 이어진 구도의 길에 만난
여인들과의 애틋한 사랑과 이별. 재소자 교화에 나선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큰손 장영자, 강신명 목사,
최 소피아 수녀 등과의 만남에서부터 보통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너무나도 질긴 인연 이야기들!
〈제1권〉 다시 태어나면 스님 인될래 | 〈제2권〉 그 만남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네
〈전2권|신국판|각권 값7,500원〉
문학수첩 전화: (02) 790-5999 팩스: 790-6656
http://www.moonhak.co.kr ▪ 이 책의 수익금(인세)은 재소자를 위해 쓰여집니다

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 7월 개관

국내최고 시설… '孝' 선양 현장

인덕노인복지관을 통해 노인복지포교에 앞장서왔던 복지법인 인덕원이 7월부터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업무를 시작, 국내 최고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 두 곳은 지금까지 어떤 복지단체도 실시해오지 않았던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한국노인복지 및 불교계 노인복지에 새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노인복지의 새 지평을 열게 될 서울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에 자리잡은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그저 하나 더 있는 시설이 아니라 한국노인복지의 역사가 다시 씌여질 수 있는 그야말로 '노인들의 낙원'을 만들겠다는 관장 성운스님(인덕원 대표이사)의 의지가 곳곳에서 넘쳐난다.

이같은 의지가 담긴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 오는 7월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다. 은평노인복지관은 기존의 다른 노인복지관과는 다른 몇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우선 지상 1층에 들어선 물리치료실, 기능회복실, 진료실, 중풍·치매주간보호소 등 건강클리닉 과정과 2층에 들어선 문화활동실, 사회교육실, 집단활동실, 취미실 그리고 3층에 들어서는 게이트볼장 등의 각종 문화프로그램이 상호연계돼 어우러짐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배치됐다. 여기에 노인전문 재활용품 대여센터와 잉여식품나눔센터, 종합상담 등의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어떤 노인복지관도 실시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 프로그램. 성운스님이 내놓은 이들 프로그램은 스님이 경소 노인복지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져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재활용품 대여센터는 보조기, 휠체어, 목발, 보청기, 돋보기, 보행기 등 노인들에게 필요한 실버용품들을 복지관 1층에 전시해 놓고 무의탁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로 대여해줌으로써 어려운 가정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치됐다.

소위 'Food Bank'라 불리는 잉여식품나눔센터는 경동시장 등과 각종 음식점 등지에서 쓰고 남은 음식물을 반입해 저장해 두었다가 독거노인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방문해 무료로 나눠주는 시스템으로 물자절약과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

종합상담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고려한 '노인 119' 시스템이다. '자비의 전화'로 이름지어진 이 프로그램은 전화상담요원을 배치해 고통받는 노인들의 고민을 해결해준다. 야간에는 녹음시설을 운용함으로써 24시간 상담체제를 갖추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달려간다.

중풍 및 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역시 은평노인복지관만이 갖는 독특한 프로그램. 이 하나의 프로그램에는 작업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등 각종 의료 서비스와 취미·오락·음악치료 등의 세부 프로그램이 수반되며, 가족교육 및 모임까지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정형·성형외과 의사들이 상주하며, 임상심리치료센터까지 가동된다.

고령자취업알선센터도 다른 노인복지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은평복지관만의 자랑거리. 노인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는 성운스님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복지의 범위를 더욱 넓혀보겠다는 각오다. 취업희망자 모집과 상담, 구인처 개발 및 취업교육 등이 이뤄진다.

건강클리닉-취미·문화교실 운영
푸드 뱅크·24시 상담·취업알선도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완벽한 건강클리닉을 갖추게 된다.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도 자랑거리.

이밖에도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재활을 돕는 기능회복훈련사업과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교육사업, 빨래방·목욕실 등 각종 복리후생사업 등이 펼쳐지며, 지역복지자원을 연결하고 사회복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역복지사업이 병행된다. 또 노인보건복지발전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사회조사를 하는 등의 조사연구사업도 진행된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는 장애인복지를 답습하는 수준으로 기본 메뉴얼조차 없는 상태. 그런 점에서 이같은 프로그램은 노인복지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성운스님은 자신감에 차 있으면서도 조심스럽다.

"은평노인복지관은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새로운 기틀을 다지고 걸음마수준인 불교노인복지 발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특히 많은 불자들의 관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불을 지폈다면 이제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들이 그 불이 계속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여건이 허락할 경우 은평노인복지관에 장례식장까지 운영할 방침이라는 성운스님의 말대로 이제 인덕노인복지회관과 은평노인복지관은 스님의 발원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덕노인복지회관

불교계 종합복지 새 모델 제시
치매노인보호소·어린이집·공부방·쉼터등 운영


◇종합복지모델을 제시한 인덕노인복지회관은 치매단기보호소를 집중 운영한다.

복지법인 인덕원은 기존 인덕노인복지회관과 함께 7월부터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게 됐다. 그동안 인덕노인복지회관을 통해 노인복지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 온 성운스님의 땀과 노력이 은평노인복지관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인덕원은 이 두 곳의 시설 외에 기존에 운영해 왔던 인덕어린이집을 포함한 어린이집 3곳과 옹암동청소년공부방, 노숙자쉼터 등 명실상부한 종합복지타운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인덕원은 5년여를 활동하면서 치매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와 단기보호센터로 불교계 노인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다. 98년에는 시로부터 치매노인 단기보호 시설로 지정되기까지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장애노인이 낮동안 시설에 입소해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간보호제도를 이용하는 인원만도 연간 6천여명에 이르며, 3달간 시설에 입소하는 단기보호제도를 이용한 연인원도 4천5백여명에 달하는 등 연간 1만명이 넘는 노인들이 인덕원의 도움을 받았다. 지금도 이곳에 입소하려는 노인들이 줄을 서 있는 상태. 성운스님의 노인복지에 대한 집념과 직원들이 이뤄낸 땀의 결실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들을 위한 교양 및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온 노인대학은 이 곳을 거쳐간 노인들에게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었다. 인근 경로당을 순회방문해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 이·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노인들에게도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원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받게했다.

인덕원은 또 97년 인덕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등 어린이복지포교에도 앞장섰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무료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하는 등 지역민들의 어려운 가정환경에 부담을 덜어주는데 주력했다. 또 1만여권의 도서와 시청각 자료를 비치해 주민들의 정서함양에도 기여해 왔다. 경소 성운스님이 강조해 온 '앉아서 기다리는 복지'가 아닌 '다가가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제 은평노인복지관이 운영됨에 따라 인덕노인복지관의 치매단기보호소를 제외한 모든 노인관련 프로그램은 은평노인복지관으로 이관된다. 대신 현재 15명이 정원인 치매단기보호소는 금년말까지 100명으로 정원을 대폭 늘려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물론 어린이집은 그대로 운영된다. 인덕노인복지회관은 치매·중풍노인들이 마음편히 쉬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

스님은 쏟아부었던 열정만큼 인덕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애착이 크다. 그 애착은 노인복지를 향한 신념이고 소명의식이다.

인·터·뷰

복지법인 인덕원 설립운영 성운스님



"부처님 자비정신 복지로 실천할뿐"

은평구 노인복지의 대부로 통하는 성운스님. 불교계에서도 노인복지에 관한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운스님을 선각자로 꼽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스님은 그런 말들에는 관심조차 없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대중을 교화한다는 수행의 기본을 실천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경로사상이 급격히 희박해진 요즘 시대에 더구나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에게 노인보호는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를 복지로 실천해보고 싶었습니다. 은평노인복지관은 경소 품꿔온 노인복지의 모든 것을 담아낼 그릇이 될 것입니다."

동진출가한 스님은 해인사, 월정사 등지에서 10년간 참선수행을 했다. 세상에 관심을 돌린 것은 70년대 중반 삼각산 기슭 삼천사로 옮겨온 후.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는 수행에만 매달릴 수 없었다. 그러던 차 1980년 조계종 사회부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천주교, 개신교에 비해 복지수준이 턱없이 낮았다. 스님은 마침내 94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하고, 96년 민간법인으로는 첫 노인복지회관인 인덕노인복지회관을 탄생시켰다. 그리고는 지난 3월 서울시로부터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수탁운영권을 따냈다.

"인덕원을 설립할 당시도 그랬지만 은평노인복지관을 수탁받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매달렸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복지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덕원이 치매 단기보호제도를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했다면, 은평노인복지관은 가장 훌륭한 노인복지관으로 만들 각오입니다."

일개 사찰이 복지법인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성운스님은 그 기적을 일궈냈다. 삼천사 신도들이 스님을 존경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성운스님은 인덕원을 설립하면서 닥치는대로 이웃들을 만났다. 그리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였다. 최장 45일까지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을 무료로 보살펴주는가 하면 노인대학 등을 통해 노인들을 변화시켜려 노력했다. 이를 주제로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사논문까지 썼다. 노인복지의 시작은 노인교육에 있다고 믿었고, 이 소신은 은평노인복지관을 통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생각이다.

"부처님이 모셔져 있듯이 복지시설도 사찰마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살아 숨쉬는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날까지 남은 삶을 노인복지를 위해 회향할 것입니다."

스님은 현재 은평구 사암연합회 회장으로 민관군이 함께 호국충혼 기원법회를 11년째 계속해 오는 등 '움직이는 불교'의 산파역할을 맡아왔다.

서울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개관을 축하합니다

수국사	관음사	각황사	법륭사	성광사	용덕사	불모사	해도사	지장사	천간사	천불사	영은사
진관사	대신선원	약사사	법성사	백화사	선림사	사연사	한림사	석광사	나원당사	묘법사	신흥사
삼천사	보현사	용화사	환의정사	연화사	석가사	행원사	황용사	심택사	봉은사	안양암	길상사
송전사	인의선원	수신사	광복사	용암사	연화정사	달마선원	미륵암	묘법정사	서원사	천신암	불광포교원
삼보사	수경사	정진사	약수사	삼화사	덕륜사	봉화사	예성사	홍상사	태국사	법인사	도솔포교원
시연사	성불사	성불암	보덕사	보문사	보타원	대원사	불광사	동림정사	대덕사	대은사	광운포교원

은평구 사암연합회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자기불성이 있다는 걸 무조건 믿고 일거수 일투족을 다 거기 놓으세요

우리는 항상 지구라는 주머니 속에서 같은 한자리를 하면서도 또 같은 한자리를 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각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만나고 찰나찰나 흩어졌다가 또 모이고… 진리를 참구하기 위해서 같은 자리에 우리가 또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도 항상 같이 한답니다. 우리가 혼자는 못 살아요. 물질계도 혼자는 못 살지만 정신계도 혼자는 못 살아요. 진리가 다 그러하죠.

내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한테 '자기 주처에 몰록 다 놓아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다구요. 내가 없다면 상대도 없고 세상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구요.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해왔죠. 그런데 열번 스무번 백번을 해도 그게 감지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말 되하고 또 되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을 믿고 놓아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어디서 온 건가? 이게 뭣고?' 한다면 벌써 일단은 늦습니다. 길을 가기가 늦어요.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무조건 믿어야 되겠죠. 그게 없다면 즉 자기 불성이 없다면 움쭉거릴 수도 없고 형성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볼종자가 없다면 어떻게 형성이 됐겠습니까. 그러니 이미 나에게 주처가 있고 그 주처 속에는 바로 내 불성이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 안되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놈이 하게끔 하고 다니니까요. 그게 바로 선장이거든요. 여러분의 몸은 바로 그 선장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거죠.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뭐든지 기초가 잘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오로지 그놈이 하는 거니까 그놈 한군데다 몰록 놓는 그 작업이 오로지라야 됩니다. 없는 걸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나가 있는 줄 알게 될 때, 몰록 놓아서 알게 될 때 그때에 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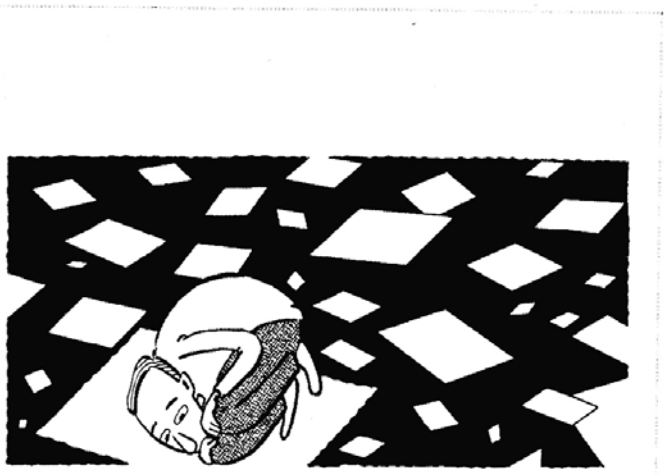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집착·욕심·습을 놓아야 둘아닌 도리 알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떳떳하고 다가온다고 해서 떳떳하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하고 다 놓아야 한다 이 소립니다.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으니까 양면을 다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면을 다 놓게 되면 '아, 이게 모두 내 마음에 달려있고 내가 모두 갖추어 가지고 있구나. 이 세상 만사 살아나가는 게 다 내가 사람이기에 갖추어 가지고 있구나. 이미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도 갖추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스스로서 편안하고 여여하게 들이고 내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살아나가는 생활 속에서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놓지 못한 분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편안하게 들이고 내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한데 합치면 공법으로 들어갑니다. 공심으로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마음은 체가 없다 이런 말을 항상 해드렸죠. 여기서 미국을 한발로 뛸 수도 있고 땅 속으로 한발로 한찰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물 속을 한찰나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늘을 한찰나에 둘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멀고 가까운 게 따로 없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공심으로 다 집어먹었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 말입니다. 그럼 사선(四禪)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사선이라고 하는 그 도리를 경전에는 따로 정의를 해 놨지만 나는 여러분이 즉흥적으로 빨리 들어가 게끔 하기 위해서 사선을 그냥 행선, 와선, 좌선, 입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선은 이미 그대로 생활화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눕고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이러는 것이 하나도 빠지지 않게 생활 속에서 다 집어먹고 가는 겁니다. 지구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데 좌선할 때는 그게 돌아가고 좌선을 안 할 때는 안 돌아가나요? 불교는 진리입니다. 불교는 어느 한 군데 국한된 종교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가 집어삼키려면 그 과정을 어떡하면 빨리 거쳐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선을 그냥 공심으로, 즉 말하자면 공법으로 집어먹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좌선이다 와선이다 입선이다 행선이다 이런 걸 따로 두지 말란 얘깁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이 간다 하더라도 요만큼도 틀리지 않고 쉬지 않고 돌아가는 참선을 그대로 한 겁니다. 이것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인간이 수레바퀴 같이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응용해서 법바퀴로 굴리느냐 하는 겁니다. 수레처럼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내가 그걸 꿰어 잡고선 공법의 바퀴로 굴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공법으로 다 집어먹었다 한다면 또 연기의 무의 법이 나옵니다. 연기법이라고 하지만 연기의 무의 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보통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단계를 거친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꺼번에 다 싸잡아서 그냥 평소에 하시듯 그대로 놓고 가면 됩니다. 그것도 건너뛰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계단 딛고 한 계단 딛고 이렇게 집어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열 계단이면 열 계단, 12연기법이면 연기법의 12계단을 하나로 한찰나로 뛰어야 됩니다. 뛰어도 손색이 없는 겁니다. 손색이 없는 까닭은 마음은 체가 없어 무한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뛰면은 적멸(寂滅)이 나옵니다. 공(空)이 나오죠. 공! 이것은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 오셨든 가난하든 못났든 잘났든 간에 놓는 과정을 자꾸 하라고 합니다. 적멸이 나와도 적멸까지도 팽개쳐야 되고 공이 나왔을 때는 공까지도 팽개쳐야 되죠. 여기 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고 본다면 어제도 없고 현실도 없고 미래도 없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느냐. 항상 말씀해 드렸지만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발자국을 떼어놓을 때 한발짝 없어지고 또 한발짝 없어지는 도리와 같이 우리 생활이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고정되게 한곳만 바라보고 있으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이걸 보면 저걸 봐야 하고 이걸 들으면 저걸 들어야 하고, 이사람 만나면 저사람 만나야 하고, 이 길도 걸어야 하고 저 길도 걸어야 하고, 갔다 하면 와야 하고 모든 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 드렸죠. 고정됨이 없어서 그렇다구요. 그래서 삼세가 공했다구요. 삼세가 공한 반면에 자기조차도 공했다구요. 고정됨이 없다고 한 자체가 바로 나도 공하고 전체가 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저께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또 같이 포용된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했다고 할 것도 없고, 한다고 할 것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고정된 게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몸뚱이 속에 생명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목이 말라서 내가 물 한 컵을 마셨다고 한다면 내가 마신 거겠습니까, 누가 마신 거겠습니까? 누가 마셨다고 할 수가 없죠, 개별적으로. 그렇죠? 포괄적이며 공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세워서 내가 했다 내가 먹었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자세히 이해가 가게 얘길 해 드려야 놓고 여러분이 말기고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 모습을 가지고는 뛰어넘을 수가 없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컴퓨터를 잘 다루는 연인끼리 끝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애인과 자기가 둘 아니게 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자기 모습이 없어져야만 둘이 아니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 사람네들은 컴퓨터만 잘 했지 부처님 법을 몰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몸을 다 태우고 모습을 없애고서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공한 도리를 안다면 내세울 것도 없고 지금 불가에서 말하는 소리로 본다면 죽는다 이 겁니다. 죽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글과 백지를 함께 볼 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라"고 하셨다. 이 세상에는 강을 건너신 분들의 뗏목, 즉 가르침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지만 그 뗏목들은 강 이쪽의 것이 아니라 강 저쪽의 것이다. 손짓을 해서 부른다고 건너편 뗏목이 내 앞으로 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뗏목을 스스로 만들어 건너야 한다. 나의 뗏목이란 무엇인가. 내 참 마음이 나의 뗏목이다. 모든 것을 나의 근본에다 맡기고 가는 것이 나의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는 것이다.

경을 보되 그 경에서 참뜻을 놓치는 사람은 마치 창 밖의 꽃을 보고 유리에 머리를 부딪치다 죽는 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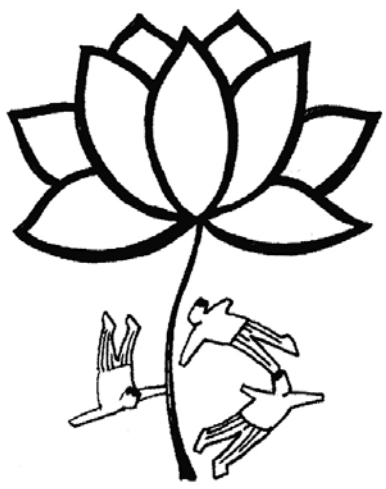
말에는 한계가 있다. 글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바로 알지 못하기 쉽고, 설사 바로 안다고 해도 사물의 이치는 너무 세세하므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을 듣되 마음으로 들어야만 한다. 비유하자면 경을 읽는다는 것은 나무의 잎새를 세는 것과 같고 경을 배한다고 함은 나뭇가지를 만지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잎새와 가지를 말씀하심으로써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일러 주셨다. 고로 뿌리에 물을 주어야 한다. 뿌리가 아니라면 나무는 죽는다. 꽃 피고 열매 맺는 도리도 뿌리에 있다. 일심으로 뿌리에 물을 주어야 한다.

금강경을 달달 외웠다 해도 무위법의 뜻을 모르면 글자만 보고 따른 것이지 부처님의 참뜻을 따른 게 아니다. 불교는 행이다. 경·율·론 삼장이 모두 행을 위한 설명인 것이다.

팔만 대장경을 모두 다 배우려면 재능있는 사람도 20년이나 30년쯤 걸릴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짧다. 고로 곧바로 마음 닦아라 하는 것이다.

주장자가 서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었을 때는 경전을 보되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을 보아라. 내 마음을 바로 밝혀 역력하게 나를 보았다면 옛 성현들이 말해 놓은 가르침의 방편을 참고해도 된다. 경을 보되 보지 않고, 경을 보지 않되 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이다. 내면 세계의 참자기를 알고 보아야 경전을 보더라도 글과 백지를 둘 아니게 거머쥐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올바로 안다면 과거에 선조들이 그렇게 많은 방편과 설법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처라는 이름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알지 못하니까 설법도 하고 염불도 있어야 하고 촛불도 밝혀야 했다. 현재도 그러한 방편 법을 다 따르는 게 예의로 되어 있지만 그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비단이 개발되어 진작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 무명짜는 방법을 고집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요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불의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덧붙여 짐이 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로케트 타고 날으는 세상에 차도 없어서 걸어가던 그때의 그 걸어간 얘기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

팔만 대장경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진리가 아니다. 병품 둘러치듯 지금 세상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게 팔만 대장경의 근본이자 진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돌아가는 실상 속에서 즉설이 되어야 하고 즉행이 되어야만 즉여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말 한마디 인도하기가 쉽지 않다. 스스로 실상 속에서 터득을 해야 자신이 들어가 본 곳에 남도 끌고 들어갈 수 있듯이 피안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물의 깊이를 알지 못했을 때는 고작해야 시늉만 내는 길잡이가 될뿐이다.

경전이란 이 세계를 말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경전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경전을 보느라고 실상을 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의 선사 중에는 수좌들에게 처음에는 오히려 경전을 보지 못하게 하신 분도 있었다. 경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면 경전 벌레밖에 될 게 없다.

역대 부처님들이 방편으로서 수많은 말의 덫을 놓았지만 그렇게 가르치고자 한 뜻을 가벼이 볼 수는 없다. 흔히들 걸핥기에 치우쳐서 '본래 공인데 있기는 뭐가 있으며 불을 데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으로 그것을 느낀 사람이라야만이 서슴없이 그렇게 할수 있지, 느끼지 못한 사람이 흉내나 낸다면 그 업은 수억겁을 거쳐도 벗기 어렵다. 그러기에 나로부터 상구보리 하화중생 해야 한다. 내 몸 속에 있는 그 의식, 마음들을 한마음으로 뭉쳐서 요리한다면 그때에 바깥으로 남을 유익하게 조절할 수있는 것이다.

협찬 : 주 인 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내모습 내생명 내부모자식 아닌것 없어

☞ 15면에서 계속

가 살았다고 세울 것도 없고, 했다고 할 것도 없고, 내가 죽어서 갈 곳이 있다고 할 것도 없고, 또 온다고 할 것도 없단 얘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공한 도리를 알았다면 죽지 않고도 하나가 되는 도리를 알았을 텐데 말이예요.

부처님의 마음은 일체 만물만생을 다 일대사의 인연으로 맺으셨어요. 그건 왜냐? 어떤 모습이라도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어떤 생명이라도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내 마음 아닌 게 없고,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기 때문이죠. 미생물에서부터 모두 전체가 말입니다. 꽃나무를 한번 볼때 '야! 넌 참 이쁘게 피었다.' 이런다면 둘이 아닌 거예요. 꽃나무와 내 마음이 모습은 다를지언정 둘이 아닌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꽃나무도 응해주고 나도 응하기 때문에 꽃은 시들어 가더라도 다시 활기가 나서 '아이,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참 고마워.' 하고 잎이 더 싱싱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찰나찰나 둘이 아니게끔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있으니까
세상 만물이 있고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음을
무조건 믿으세요

전체를 다 먹어치운 거죠. 자기와 둘이 아니게 말이예요.

우리가 한철 살면서 수레바퀴 돌듯하는 이 주머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일이 있는 자유를 못 얻어요. 내일이 있는 자유! 여여한 자유! 세세생생에 자유! 그래서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돌부처든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간에 그걸 탓 안해요. 너는 여자가 돼서 성불 못한다, 너는 애가 돼서 성불 못한다, 너는 늙어서 성불 못한다, 너는 악해서 성불 못한다, 너는 선해서 성불한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악이 돌아가면 선이 붙어 돌아가고 선이 돌아가면 악이 붙어 돌아가니까요.

우리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축생이나 아귀나 모든 미생물까지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미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왜 한탄을 합니까. 거기에서 좀 지혜가 있고 능가할 수 있는 폭이 넓으면 좀 낫게 살고, 폭이 좁고 그릇이 적으면 좀 힘들게 살고 이것 뿐이지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벗어나라 하는 것 아닙니까.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식구들이 다 부황이 나서 굶어 죽게 돼있는데 자식이 하나 나가서 '내가 죄를 걸머지더라도 할 수 없다.' 하고는 훔쳤다면 그게 보이는 데서는 큰 죄라고 갖다 가두겠지만 부처님 법에서는 '야, 참 지혜가 있어서 그래도 그거라도 훔쳐서 먹여 살렸으니 너 참 장하다.' 하고 오히려 상을 준다구요. 이것이 도둑질을 하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그런 넓은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다 갖다가 그래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옛날에 어떤 절에서 이런 예가 있었죠. 스승이 지쳐서 그냥 돌아가시게 됐어요. 죽물이라도 마시면 토하고 영 일어나질 못했죠. 다 살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막내 제자가 호미랑 소쿠리를 들구서 나가요. 그래서 "너 어디 가느냐?" 하니까 "그냥 어디 좀 갔다 올께요." 그러구 나가거든요. 예전엔 지렁이도 많았거든요. 아주, 이만큼씩한 지렁이를 골라서 그냥 물에다 씻어선 소금을 넣고 그냥 또 씻고 또 씻고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는 산에다가 솥을 걸어놓구선 폭 고아서 한 솥을 해놓고는 조금씩 갖다 드리는 거죠. 은사스님이 그 한솥을 다 잡숫고 나더니만 "아휴, 그게 뭔지 난 이제 살았다." 이러고 일어나시거든요. 그런데 그 형님들이 말입니다. 사형들이 "너는 살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생을 했으니 넌 무슨 죄를 받겠느냐."고 야단을 했습니다. 그 소릴 듣고 막내 제자 하는 말이 죄가 있다면 내가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사람이 생각하기에 달렸지 무슨 죄가 있겠느냐고, 부모가 죽게 돼서 살렸는데 무슨 죄가 되겠느냐고, 양면을 다 살렸지 않느냐고 그러더래요. 양면을 다 살렸다 이겁니다. 지렁이는 지렁이 대로 살리고 부모는 부모 대로 살렸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물으니까 저런 지렁이가 우리같은 스님네들한테 언제 어떻게 공양을 할 수가 있겠느냐, 자기 몸을 공양을 바쳤으니 이제 진화돼서 새로 탄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러니 스님한테 가기 전에 벌써 진화는 됐다 이겁니다. 그랬으니 그 수 없는 지렁이를 살렸고 우리 스님을 살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살생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축생들이나 아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스님 입에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 몇 천년을 기다려도,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줬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게 죄라고 하겠느냐고 그러더라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도 그 마음이 좁으냐 넓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쓰라고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악하게도 쓰고 선하게도 쓰죠. 잘못 쓰면 뒤죽박죽이 되죠. 그러니 마음을 뒤죽박죽으로 쓰지 말고 원칙대로 살아라, 진짜 착을 두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내 그릇을 내가 파악하고 건너뛰어라 이거거든요. 물을 건너 뛸 때도 내 다리가 그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봐서 건너뛰어야지 개천은 넓은데 내 다리는 거기 반도 안 간다면 건너뛰다가 물에 빠져 죽죠. 번연히 알면서도 건너뛰다가 빠져서 허덕거리는 거를 부처님인들 어떡합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서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하면 가까우면 매일 같이 오고 멀면 전화를 매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뭐가 건덕지가 있어야 어떻게 해보죠. 양쪽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같이 전화하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스님 또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좀 많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관하세요." 그랬죠. 그것은 내 마음의 요량이예요. 그 상대방을 살리려면 업이 있다 죄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건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이죠.

처음에는 관할 줄도 모르던 사람이 자기 남편이 나아가는 거를 보면서 아, 이렇게 좋은 공부를 그동안 안했구나 그러면서 자꾸 관하는 거예요. 관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드러난단 말이예요. 남편한테 잘못했던 것도 후회가 되고 막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다가 어느날 "스님, 제가 그전에는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 요즘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요. "왜 낼 수가 없어, 그냥 화내보지 그랬어." 그러니까 "아이, 화가 안 나는 걸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가르칠 겸 남편도 살릴 겸 해서 열심히 관하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건지려면 어떻게 방편을 해서라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차비도 못해 가지고 오는 사람이냐, 멀어서 자주 못 올 사람이냐, 아파서 자주 못 올 사람이냐, 또 가정이 남편과 더불어 좋지 않아서 못 올 사람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줘야 돼요. 이런 것도 생각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을 이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조그마한 일이지만 이 조그마한 일로 인해서, 지구의 공기막도 터지면 메꿀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조그마한 마음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마한 마음이 그렇게 점점 커진다는 뜻을 옛날에는 이렇게 비유를 했죠. '병 속에다 새를 하나 길렀는데 새는 커지고 병은 그대로 있으니 새를 어떻게 꺼내겠느냐?' 이렇게 말예요. 만약에 몸뚱이가 병이고 병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면 그 새는 저절로 커서 나고 들고 한다는 생각도 없이 나고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꺼낼 것도 없고 넣을 것도 없죠. 그런 과정까지 다 살펴서 해결 할 줄 믿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마음 공부를 가르치려는 마음이 간절하면 병 얘기가 다 나오고 새 얘기가 다 나왔겠습니까.

달마대사는 양무제 더러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스님네들한테 웃을 해주고 절을 지어주고 온갖 뒷바라지를 다 했는데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면 너무 공덕이 많아서 하나도 없다는 거구나 이런 걸로 좀 들었으면 양무제 왕도 지혜가 좀 넓었을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달마대사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달마대사는 죽지 않았어요. 달마대사는 짚신 한 짝은 땅에 두고 나머지 짚신 한 짝은 주장자에다 걸고 나왔죠. 그렇게 보인 이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모두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그 뜻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묘지를 파보니깐 달마대사의 몸은 없고 신발 한 짝만 있더라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남전스님이 고양이를 죽이고 조주스님에게 그 죽인 얘기를 하니까 조주스님은 신을 한 짝 벗어서 이고 그냥 쏜살같이 나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공부를 잘하면 그냥 빙긋이 웃을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덕산 노스님이 바리떼를 들고 시간도 안되고 종도 안쳤는데 떡 하니 나갔단 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간도 안되고 종도 안 내렸는데 저 스님은 바리떼를 들고 저렇게 왔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제자들이 옹졸했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말후구라는 이름만 듣고서 저 스님이 말후구를 모르시네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오산입니까. 덕산스님은 그 사람들의 말후구라는 것도 부숴버리려고 내려왔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도 못한채 시간을 따지고 종을 내리는 걸 따지고 그러니까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그거를 무마시키지 못해서 웃는 걸로 타파했다 이겁니다.

탈렌트가 배역을 맡아서 역할을 하다가 그 역이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인간도 한철 살다가 끝나면 그뿐입니다. 지구라는 이 주머니만 생명이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주머니에서는 바깥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답답하시죠. 좀 툭 틔어 가지고 바깥을 내다볼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보는 것만이 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다보면 뭘 하느냐 이거예요. 이 물 그릇을 보기만 하면 뭘 하느냐, 목마를 때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천이 아니면 이건 도가 아니다, 전부 아니다 이겁니다. 오신통이라는 것도 여러분의 몸뚱이에요. 타심통이니 천이통이니 숙명통이니 신족통이니 이런 것도 전부 이게 육체의 통속이라구요. 통속에서 마음이 한발짝도 못 나가면 어떻게 지구 바깥을 나갈 수 있고 우주 바깥을 나갈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우주를 자유자재로 돌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일체 만물만생 생명체를 다, 하늘과 땅 또는 이 중세계를 포함해서 어떻게 다 일대사로써 흡수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나 아님이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요즘 컴퓨터 쓰실 때 무슨 바이러스가 뭔가가 입력해 놓은 걸 다 없앤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도 걱정할게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쪽에서 막아도 되고 그쪽 사람이 그렇게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연구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만약에 남의 회사 거를 훔쳐온다 또는 남의 나라를 집어먹기 위해서 훔쳐간다 이런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훔쳐가지 못하게 하면서 남을 망하게 하지는 않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으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배운 사람 만 명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일불이에요, 일불, 만불이 일불이고 일불이 만불이에요. 그래서 부처도 '내가 부처다' 할 수 없죠. '내가 했다' 이럴 수도 없구요. 하여튼 그러면서도 여여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를 잉태한다고 그러죠. 옛날에 선사들이 말씀하신 거지만 돌장승이 눈물을 흘린다 또는 돌장승이 어린애를 낳는다 등등 이런 것도 전부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보기 위해서 툭툭 쳐보는 겁니다. 좀 알았다 하고 날뛰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울죠.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관속에 넣었다 한다면 어머니가 우는 것과 자식이 우는 것을 방편으로 말을 하자면 돌장승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동자는 흐느껴 가면서 울고 있구나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둘이 아닌 순간 우는 모습은 없어졌지만 모습 없는 그 마음이야 어디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그렇게 했겠죠. 움죽거릴 수 없는 돌장승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그러니 그것이 다 이치에 어긋나는 게 아니죠.

살다보면 참 내가 이 세상에 생긴 게 극히 고마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무리 잘 생겼든 못 생겼든 또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공부라도 하게끔 인연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마운가.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없이 돌아가면서 별의별일이 다 생기고 그러는데 만약에 자식을 기를 때 아무 돈걱정도 없고 웃 걱정도 없고 먹는 거 걱정도 없이 아이가 돈 쓸때는 그냥 척척 줘서 다 쓰게 하고 이런다면 그렇게 기른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고생도 해보고 배도 고파보고 망치질도 해보고 참 그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라야 부하를 다 이끌고 살 수 있는 거죠. 배고파보지 않은 사람은 남이 배고픈 걸 몰라요. 생각도 못하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일체가 다 그렇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자식이 무슨 사고가 나서 죽었다 이런다면, 내 자식이 금방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한다면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등 상관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도리를 웬만큼 아신 거예요.

누가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이끌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 모든 것을 하되 착을 두지 말고 해라 이런 거죠. 그런데 정말 모습이 금방 이 자리에서 죽었는데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뛰지 않느냐. 자기를 검증해 볼 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거나 자기 자식 죽었다고 하는 거나 자기 부모가 죽었다고 하는 거나 아무 상관이 없으면 됐어요. 다른 건 다 착을 떼어도 자식 착은 떼지 못한다는 그런 말 있죠. 그만큼 어려운 공부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죠. 어느 젊은이가 입산을 하러 왔는데 스님이 볼기를 "권속과 재물을 다 버리고 왔느냐?" 하니까 "다 버리고 왔습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스님이 보기에는 잔뜩 짊어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기를 "권속은 짊어지고 왔어, 마음에 잔뜩 넣고 왔으니 그게 버리고 온 거냐? 다시 버리고 오너라." 또 재물도 보니까 식구들 수대로 나눠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재물도 다 버리고 오너라."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그럼 다 버리고 오겠습니다." 하고는 재산 모아놓은 것을 다 그냥 불에 태울려고 하고 패물은 다 물 속에 다 넣을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공중에서 소리가 나기를 "얘야, 그렇게 버리라는 게 아니다." 이러더라는 거죠. 하하하. 그렇게 버리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라, 버리되 그렇게 버리라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 얼마나 묘한 법입니까, 이게.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병원에서 10년동안 아파서 누워만 있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등 뒤에 이렇게 혹 같은 것이 붙어나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만 있던 사람인데 그걸 보는 어머니 마음이야 오죽 했겠습니까. 그래 여길 찾아왔어요. 나는 그랬죠. 나는 누구 아픈 걸 낫게 해주고 잘되게 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예요.

그러나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마음으로 결정을 짓고 부처님전에 정성껏 마음 내시고 또 부지런히 관하라구요. 그리고 아들한테도 관하는 걸 일러주라고 그랬어요. 또 그때 나와 있던 책도 열심히 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어느 날 책을 서른 번을 봤다면서 너덜너덜한 책을 들고 한번 왔더라구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어떤 체격이 건장하고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주장자를 짚고 오더니만 "야, 이놈아, 젊은 놈이 이렇게 10년이나 드러누웠다니 말이나 돼? 게을러 터진 새끼." 그러곤 그냥 허리를 얼마나 내리치던지 "아이구! 아야" 하면서 벌떡 일어난 게 그때부터 일어나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게 정신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물질계만 있는 게 아니로구나.' 하구선 그때서부터 미국에 가서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지금도 잘 산답니다.

여러분도 겁낼 게 하나도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생사도 벗어날 겁니다. 열심히들 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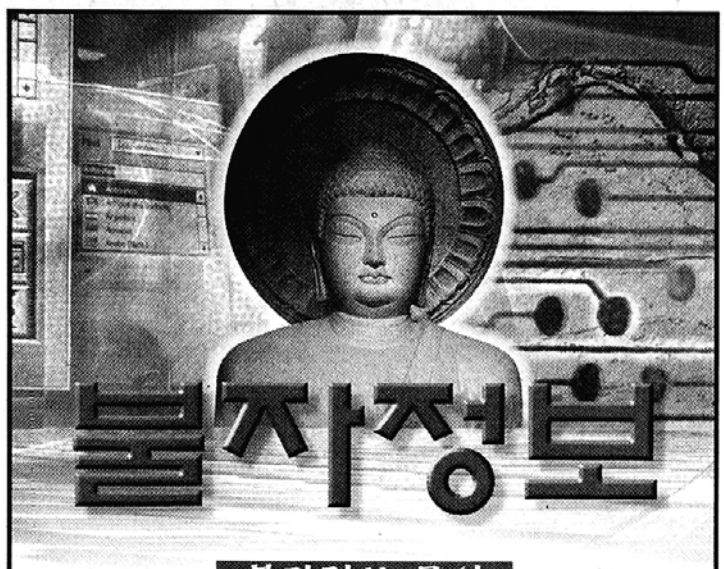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편안한 마음을 갖고 산다면
하늘 무너진다해도 여여하니
모든일 대처하려면 놓으세요

공한도리 알면 '내가 했다' 내세울것 없죠
목마를 때 물마시듯 실천 따라야 참된 道

※위 법문은 1999년 4월 4일 법형제회 정기 법회때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1166-3858

간 병 신
교육받은 전문간병인 항상 대기로
유료 간병 서비스는
물론 무의탁 노인 등에게
무료로 간병 자원봉사
불심깊은 불자간병인
전화 : 02)363-7884
팩스 : 02)364-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무료직업소개소**

강좌

통지판매 易학교육전문학원 교재로 만든 5주속성 易학 학습지
농협 : 037-01-298413 (예금주)글향기
SBS 모닝와이드(운명을 배워 운명을 개척한다)에
박규병(전직교사·59)원장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5주 속성 프로그램 소개
易학교육전문학원 02)332-8729(代)

Tibetan Buddhism and Meditation taught in English
The Seoul Shambhala Dharma Study Group offers free instruction to both foreigners and Koreans. Join us on Sundays from 10a.m.to noon at The Mind Garden(Chongshin Segyewon) Bookshop and Teahouse in the lower lever of the Wonsuh Building (747-7033) Behind the Hyundai Corporation Headquarters beside the Secret Garden (Piwon). Line 3 Anguk Station (exit 3)
For further information, call Tim Addison at 786-4942 or visit http://www.shambhala.org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화엄경 (80권) - 1,400,000원
법화경 (7권) - 170,000원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99)932-7252
011)545-7252 김창본 처 사

견성(?)개인지도
-, 마음의 실체를 보아 병과 운명을 고친다.
-, ?→마음(잠재의식)→생각(의식)→몸→운명
-, 개인병 근기에 따라 번뇌와 망상고 정념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여 체득
-, 수련테프 판매
박민수 참선교육원
(062)251-2733
017)609-9068

구인

전통 불교 의식 모집
관음시식 도량게
복청게 초게향
◆교육기간 ◆
3개월(개인지도 가능)
전통불교의식 연구원
0351)865-4893

법화종 박일현스님을 찾습니다.
이 분 외에 포교당
양로원 고아원 운영하실 수
있는 분 연락바람.
018)245-7310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
흥 도 사
02)2234-2198

공고

사명변경 공고.
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476번지 소재
선왕사를 **관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999.6.1
주소: 정읍시 476번지 관음사 0681)536-0772
◇주지 : 산해 ◇원주 : 김영자(송설당)
◇관음사신도회 : 회장 김옥철,
부회장 김윤배, 부회장 김문규, 김완수
◇관음사여신도회 : 회장 이정숙,부회장 주숙자
김형순 유정희 및 사부대중 일동

수양원

수양,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불교용품

◆청학사 수양원◆
■수양·기도·공부·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보 리 수♣
취급품목: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출판



◆『전등록』 전5권 드디어 완간 ! ◆
9년에 걸친 대장정 끝에 완간된 **{전등록}**. 기존의 학자들에 의한 번역과 달리 인가받은 명안종사인 대원 문재현 선사께서 구절구절 바른 법을 밝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리에 맞지 않을 때는 한 자 한 자, 조사 당시에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를 추적하여 번역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는 '돌아올 환(還)'자가 '영위할 영'자로도 쓰였으며 '어조사 우(于)'자가 '넓고를 우'자로도 쓰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법리에 맞게끔 번역했습니다. 이와 같이 작업된 점을 널리 알려 정법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책명을 **{바로보인 전등록}**으로 고쳐서 출간하며 〈바로보인 출판사〉에서 출간된 모든 책 역시 같은 뜻에서 '바로보인'을 앞에 넣어 개명합니다.
☎ 02-597-2460 도서출판 바로보인

기타

귀 건강추구! 자연치유
(스트레스 해소 氣 기운 보강) 춘천 玉山家 옥
(주)대일광업. 서울중앙판매소 : (02)777-0105

귀 달마스님
◆사주 : 대운·행운·신수
◆작명 : 출세 문자 비법
◆관상 : 빈부 귀천 학당
◆풍수 : 자손 창성 번영
◆부적 : 발원 소원 성취
남녀 선착순 10명 철학특별지도
▶상담 시간 : 평 일 10:30 ~ 17:00
(일요일 휴무) 토요일 10:30 ~ 15:00
02)999-5551
02)928-5551 달마사

제주 (땅)전문컨설팅
저희 가람공사에서는 불자님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하여 투자가치가 높은 제주 전지역 임야, 준농림지, 과수원, 전원주택, 기타 물건을 몸보시 하는 마음으로 성심껏 상담및 전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물건 다량확보)
가람공사 공인중개 사무소
전화 02)488-4304
H.P : 011)9002-2404

사 람 을 찾 습 니 다.

◆성명 : 경순이
◆생년월일 : 1942.3.18일생(59세)
◆주소 : 부산시 동구 범일 1동 1363 4/3
◆연락처 : 051-632-3438
0525)343-6180(농장)
051)632-3409
017)583-3438(핸드폰)
빈손으로 만나 4남매를 키운다고 너무나 고생했소. 모든 문제는 나의 불찰로 인해 생겼으니 일체 묻지 않고 무조건 해결하겠소. 부디 속히 연락주시오.
당신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은 남편이.
연락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후사금 3백만원)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항상 피곤하신 분
술을 자주 드시는 분
간염, 당뇨병, 고혈압, 체질개선
정력증강, 손발냉증, 변비, 요통등...
■가격: 분말 230g 39,000원
환 250g 45,000원
동양물산(주)
02)637-2345/02)677-4265

불자가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믿고 맡겨 주십시오."
대구 진전점 대표
원응 곽 영 순 합장
053)639-1100
011)509-9456

사찰안내

사찰 (급) 안내
◇위치 : 충북 ◇부지 : 1,000평
◇법당 : 60평 ◇요사 : 80평
◇가액 : 1억 5천만원(급매)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소개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안내
◆위치 : 충남 공주에서 15분거리
◆대지 : 500평
◆법당10평, 요사채30평, 종각
목욕탕, 화장실, 마당500평(잔디)
◆가액 : 1억 2천
◆특징 : 천연수, 산세수려
안대가 좋음(사정상 급매)
016)314-0108

사찰(급) 안내
◆ 위 치 : 경남 산청
◆ 부 지 : 약 2113평 건물5동(법당, 산신각, 요사채2동, 샘터, 창고, 목욕탕, 화장실 1동)
◆ 가 액 : 2억 5천만원(단 가격 절충시 법당의 팜음상은 포함되지 않음)
◆ 매매희망기간 : 올해 7~8월중순까지
◆ 특 징 : 그림같은 아담한 기상 오염되지 않은 청정수가 마을앞을 흐르며 수지좋은 식수는 풍부하고 넓게 다듬은 도량은 좋은 수종으로 식수하여 정차 좋은 도량이 될 가능성을 지녔음.
◆산에까지 도로포장 및 주차장 있음.
053)651-9363/0596)973-0305

사찰 안내
◆ 위 치 : 경기 이천 장호원 (서울 약1시간 거리)
◆ 대지 약 435평(건물5동), 대광전 27평 (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법전 거실 1, 방 3), 요사 43평 (방11 식당 화장실독립)
◆ 가 액 : 3억 5천
◆ 특 징 : 취락시가지 확정, 도면 열람가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신고속도 건설중(서울근린지역), 녹지푸른 산을 낀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012)925-6118

사찰 안내
◆위치 : 대전 논산 국도 중간지점
◆산속에 위치하여 기도도량으로 적합
◆법당 : 35평(목조건물 외 5포 내 7포)
◆삼성각 : 5평(목조건물)
◆요사채 : 35평(현대식 건물)
◆대지 : 602평
◆가액 : 답 사후 가격 절충
0461)733-3048/011)458-3048

포교원 안내
◆위치 : 전남 초등학교 사거리
◆평수 40평, 법당, 방3, 상담실, 주방, 세면장 시설, 삼존불·신중단·지장단·약사단
◆가액 : 보증금 3백
월 40만원·시설비 2200만원
0342)752-1080/016)257-8484

포교당 안내
◆위치 : 경북 의성군 안계면 면소재지
◆대지48평, 방3, 주방(현대식 건물)
◆포교에 최적합한 지역임.
◆가액 : 3천 8백만원
0576)862-0329
011)9570-3533

포교당 안내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 321-47(89번 버스 종점옆)
◆평수 : 40평
◆삼존불, 영가단, 삼성각, 신중단, 방2, 세면장, 주방
◆가액 : 보증금1,500 월7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2)521-7512/017)339-0566

사찰 운영하실 분
◇위치 : 대구
◇법당 : 13평 ◇요사 : 30평
◇부지 : 58평
◇가액 : 2억2천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사찰 양도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포교당 안내
◆위치 : 광주시내 요충지
◆2층 45평
◆가액 : 전세 4천, 월세가
◆시설비 있음.
062)224-2851
011)633-2851

절터·별장 안내
◆위치 : 충남 홍성
◆부지 : 약1800평
◆가액 : 평당 7백만원
◆자연암반에서 샘물이 100톤이상 용출됨. 경관수려 교통편이 양호
0451)633-3878
011)432-2101

절터 안내
◆위치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무주구천동 인근
◆부지 : 320평
◆가액 : 평당 45,000원
(주)0598-942-2400
(야)0598-944-2467

포교당 안내
◆법당 40평, 스님실 2개, 욕실, 화장실, : 계74평
◆옥상 60평 사용가능.
3층건물의 3층.
◆최신설비로 완벽시공, 법회중.
0331)283-7682~3

포교당·철학관·법당
◆위치 : 부산 동래구 안락 2동
◆평수 : 35평
◆가액 : 월세 (천만원에 35만원)
◆시설비 약간
051)531-2682
016)558-8753

법당 안내
◆위치 : 모래내 시장내
◆법당15평, 큰방1, 주방1, 목욕탕1
◆가액 : 3천 (월세)
032)468-3210
011)238-3210

고가 한옥 안내
◆위치 : 공주군 반포면
◆대지 : 407평, 임법당 있음.
◆가액 : 상담후 결정
0613)336-0504

사찰 안내
◆위치 : 과천 대공원 청계산 뒷편
◆법당 : 30평 ◆반지하 : 40평
◆1층 : 요사채 30평
◆가액 : 상담후 절충
02)502-2932

포교당 안내
◆위치 : 대구시 동구 신안3동
◆방 2, 주방 1, 법당, 옥상 사용가능
◆삼존불, 후불탱화, 신장·산신탱화
◆시설 완벽
053)942-0700
011)501-2219

포교당 안내
◆위치 : 광주시내 요충지
◆2층 45평
◆가액 : 전세 4천, 월세가
◆시설비 있음.
062)224-2851
011)633-2851

토지 안내
◆위치 : 경남 밀양 단장면
◆토지 780평 (사용가능한 평수 1천평)
◆특징 : 산세가 좋고, 계곡물이 좋은 수양도량
◆가격 : 1,900만원
011)845-3430

부지 (급)안내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1601-3호 평촌B/D 303호
0343)3866-444
016)212-0988
한라부동산 컨설팅

서울,부산지역 사찰구함
서울 부산시내 또는 근교 사찰이나 암자를 구합니다.
전화상담시 상담내용은 보안유지합니다.
한국불사 02)561-7020 018)273-9390

사찰 안내
◆위치 : 서울시내
◆부지 : 약400평(국)
◆법당 20평, 요사 30평
◆오백나한불사중
좋은인연 02)561-7020 018)273-9390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내
◆ 부지 700평, 법당 25평, 요사180평
◆산세좋음. 전통사찰임
◆가액 : 답사후 절충
좋은인연 02)561-7020 018)273-9390

포교원 안내
※ 아미타도량 급매 ※
◆위치 : 장안평 사거리 지하철역앞 최요지
◆법당 : 40평 (시설최상급)
◆큰방4(주방,화장실,목욕탕)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2500만원
※철학원도 가능 (아주생활편리)
02)2212-1255

사찰 안내
◆위치 : 경주시내(위치좋음)
◆평수 60평, 법당1, 방3, 주방 일체시설 완비
◆가격 절충가
017)334-2581

사찰 운영하실 분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근교
◆부지 : 약1000평(대지 약740평, 임야 250평)
◆법당 40평, 요사 40평, 미륵불, 관음불
◆가액 : 답사후 결정
◆특징 : 주차장 및 조경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대작불사에 적합한 포교 및 기도도량 입니다.
※전국의 사찰, 사찰부지, 포교원 양도, 양수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02)389-7880/019)390-6110

생활정보

15초이내 접속불량은 무료

(통신) 다음달부터 PC통신 이용 때 처음 15초 이내에 접속이 끊어지면 통신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보통신부는 PC통신 초기 접속 불량으로 이용자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이같이 요금체계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접속불량으로 부당하게 내야 했던 연간 24억원 정도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연체 불이익 강화

(금융) 7월부터 여러 개의 신용카드중 하나만 연체하면 다른 카드도 이용한도가 줄거나 심지어 거래가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삼성-LG-국민-외환 등 4개 신용카드사는 7월부터 회원연체정보 공유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보공유대상은 결제일로부터 5일이상 10만원을 넘는 대금을 갚지 않는 사람이다.

8월부터 근소세 경감 혜택

(세금) 연급여 1500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4인가족 기준)는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동안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거나 일부 돌려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각종 공제한도를 금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되, 과거처럼 연말정산때 일괄적으로 환급하지 않고 근소세경감조치가 발효될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동안 나눠서 깎아주기로 했다.

국내 외국어 어학연수 프로

(연수) 한국외국어대 생활협동조합은 7월부터 이 대학 용인캠퍼스에서 국내 외국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연다. 6주간 개설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일본어·중국어·독일어 등 제2외국어 교육을 중점 실시하며 매일 4교시 수업에 4교시는 선택과목으로 진행된다. 선착순 접수. (0335)330-4153

우체국 전자상거래 실시

(쇼핑) 정보통신부는 7월1일부터 우체국 전자상거래 홈페이지(www.epost.go.kr)를 통해 지역 특산품 1천7백여 품목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우체국 주문판매를 이용할 경우 우체국 통장을 개설하거나 직접 우체국을 방문, 접수해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신용카드로도 직접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현대미술과 옷의 접목

(전시)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이 7월28일까지 '아트·아트웨어-옷, 그 겉과 안'전을 열고 옷이 현대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미술로서의 옷' '예술로서의 옷' '패션으로서의 옷' '오늘, 우리의 옷'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현대미술과 옷의 접목을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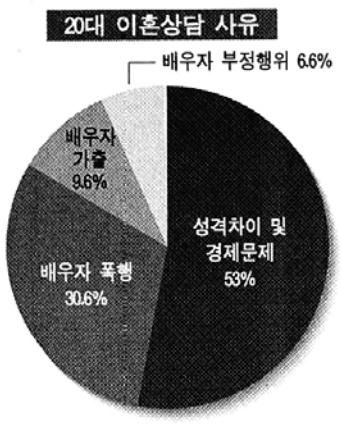
화난다고 이혼하는 신세대

20대 이혼사유 '성격차·경제문제' 53%
"사랑 지키고 가꾸는 노력 부부의 도리"

한평생을 봄처럼 따뜻하게 보낸 부부도 아름답지만,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며 투쟁하고 인내하고 마침내 바다처럼 흘러가는 부부도 아름답다. 결혼은 완성을 향해가는 두 사람의 약속이요 믿음이다. 이 약속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렇게 살아왔다.

최근 2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첫아이를 낳았는데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시아버지가 임의로 아기이름을 지어 출생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친정엄마와 함께 가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이혼상담을 했다. 화난다고 이혼하려는 신세대 부부들, 이처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이혼하려는 신세대 부부들이 늘고 있다.

올해 1~5월 가정법률상담소에 이혼문제로 상담하러 찾아온 사람은 2천5백여명, 이중 신혼에 해당하는 20대의 이혼상담 건수는 258명으로 무려 10%에 달한다. 20대의 이혼상담 이유로는 △성격차 및 경제문제 고부갈등 등으로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배우자의 폭행 △배우자의 가출 △배우자의 부정행위 순. 특히 배우자의 가출 중에는 남편의 가출이 76%로 30대(58.2%) 40대(60.8%)에 비해 많았다.



가정법률상담소 통계자료

지난 20일 법원은 아내를 구박하며 외도를 일삼던 한 대학교수가 아내의 가사소홀과 잇단 가출을 이유로 낸 이혼청구소송을 기각해 화제를 모았었다. 판결문의 요지는 '부인이 가사를 소홀히 하고 늦게 귀가한다는 남편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불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의 외도이며,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부인을 무시하고 폭행을 일삼은 남편의 이혼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나라의 왕을 보면 그 나라의 형편을 알 수 있고, 그 남편을 보면 그 아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어진 아내는 어진 남편을 있게 하며, 어진 남편은 어진 아내를 있게 하니 모두가 다 제 허물이요, 상대방을 탓하지 않는 것이 부부간의 도리라는 가르침이다.

전문가들은 행복을 상대방에게서만 찾지 말고 부부관계를 공부하라고 권한다. 사랑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는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 또 누구보다도 상대방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고, 두 사람이 자란 가정의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이 늘어가는 요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갈등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권한다.

사람들은 천생연분을 만나는 것을 운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천생연분을 완성시키는 것은 운이 아니라 노력이다. 누구나 공감하는 이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몇 해 살아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이혼을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랑을 지키고 가꾸려는 노력,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남편의 도리요 아내의 도리다. 힌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인간의 욕망 끊임없이 계속 그 욕망의 실체는 무엇인가
'라캉의 욕망이론' 관심끌어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욕망을 갖는다. 그리고 그 욕망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1901~1981)은 욕망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같은 라캉의 욕망이론이 최근들어 한국 지성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창립된 '라캉과 현대정신분석학회'는 최근 첫 학술회의를 열고 그 성과물을 모아 〈우리시대의 욕망읽기〉(문예출판사)를 내놓았다. 이화여대 기호학연구소도 최근 〈욕망 그리고 도시와 문화〉(호영)를 펴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욕망이론을 소비 영화 사랑 언어 성 등에 비추면서 현대 소비사회의 취약함이나 허구를 그대로 짚어낸다. 예를 들면 사랑은 영원히 충만될 수 없는 허상이기에 욕망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그렇다면 불교는 욕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욕망은 무명(無明)에서 시작되 연기법에 의해 소멸되고 다시 생성된다. 무명은 곧 무지(無知)이니 욕망은 보리심(菩提心·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반대의 개념에 가깝다. 욕망은 집착을 낳고 고(苦)를 낳는다.

〈남전장경〉에 "애욕은 격렬한 욕망으로서 삶에 대한 집착의 근본이 되며,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두를 탐내게 되고, 때로는 죽음을 원할 정도의 극단적 욕망으로 변한다"는 말씀이 있다. 조그만 즐거움을 버리고 참진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욕망이론이 제시하는 궁극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이다.

한국인 4명 복제 신청
윤리규제법 만들어야

미국의 응용세포기술연구소(ACT)가 지난 18일 인간 배아를 복제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윤리는 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경희의료원 이보연 교수팀이 4세포기까지 인간 배아를 복제하는데 성공하고 실험을 중단했었지만 ACT의 복제는 4백세포기까지 분열한 배아를 얻었다는 점에서 인간 복제에 매우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ATC는 정상적인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는 14일 이후부터는 생명체로 간주, 이전 단계에서 이를 소각 처분했으며 실험 목적도 인간 치료에 필수적인 기간 세포를 얻는데 있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윤리학계에서는 어느 단계의 배아부터 생명체로 볼 것인가, 또 의학적 목적의 실험이라면 모두 정당화될 수 있느냐를 놓고 여전히 논쟁이 진행중이다.

한편 지난 3월 한국에 들어온 다국적 인간복제기업을 표방한 클로니이드사 한국지사에 한국인 4명이 자신을 복제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경희의료원 이보연 교수는 "인간복제는 이미 여러차례 성공한 동물복제처럼 어렵지 않은 생명공학기술"이라며 "국내에서도 인간복제를 막는 윤리규제 법안을 만들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각종 상술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론

종교차별은 망국병



윤청광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군법당 건립시주금 뇌물 인정 유죄판결 명백한 불교탄압"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분쟁과 투쟁과 살육이 일어나고 있다. 개인과 개인간에, 집단과 집단간에, 민족과 민족간에, 국가와 국가간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투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탐내고, 증오하고,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분쟁과 투쟁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분쟁과 투쟁은 종교분쟁이요, 종교전쟁이다.

일찌기 역사가들이 지적한 바 있거니와 세계 1차대전과 2차대전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망자보다도 종교분쟁과 종교전쟁 때문에 희생된 사망자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 한가지만 보아도 종교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저 먼 옛날의 십자군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우리는 20세기에도 수많은 종교전쟁을 보아왔고, 겪어왔고, 그 가공할 살육전에 몸을 떨어야 했다.

베이루트에서는 기독교민병대와 회교민병대가 만나면 총부터 쏘아대는 종교전쟁이 십수년간 지속되었고, 영국의 에이레에서는 같은 기독교도들 간에 신교냐, 구교냐하면서 둘로 갈라져서 수십년동안 서로 죽이고 죽이는 무자비한 살육전을 벌여 왔으며, 보스니아에서도 회교도들과 기독교도들 간에 피비린내나는 살육전과 보복전을 벌여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인종청소 전쟁'이라 불리운 코소보사태도 예외없는 종교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어디 그뿐이랴. 이 지구상에서는 또다른 종교전쟁이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사이에서, 인도에서, 스리랑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종교전쟁에서는 무자비한 학살과 보복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그 비극이 오래오래 지속된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듯 우리는 가장 무자비하고 가장 참혹한 세계의 종교전쟁을 보아오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부 극단적인 개신교도들의 타종교 침탈행위에 우려를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 불교계는 일부 광신적인 타종교인들의 공격적 침탈행위로 인해 수많은 법당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수많은 성보(聖寶)가 부서졌으며, 심지어는 수십구의 불상이 목이 잘리는 참혹한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불교방송법당이 습격당하고 불교TV 스튜디오에 방화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군법당의 불상이 내팽게쳐지고, 군불교 법당앞에 오물이 뿌려지는 만행도 겪었다. 그뿐만 아니다. 행정관청에서도, 전직 대통령도, 국가시험일 선택에서도, 우리는 종교차별을 겪어왔고 참으로 치욕적인 홀대를 수없이 당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군부내에서 군부대안에 사찰을 짓는 것을 둘러싸고 독실한 불자였던 김모장군이 군법당을 지으면서 받은 시주금을 뇌물로 간주해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불교계가 분개해 하고 있다.

25개 불교단체들이 '군법당 건립 시주금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명서를 발표, "군법당 건립에 사용된 3천만원의 시주금을 뇌물로 인정, 유죄를 선고한 것은 군정신력 강화를 위해 이루어진 군법당을 뇌물수수의 수단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한국불교 전체를 욕먹이는 행위이며 군대내에서의 조직적인 불교탄압 행위"라고 규탄했다.

만일 이들 불교단체들이 지적한대로 군부대에서 '조직적인 불교탄압 행위'가 이루어지고 의도되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일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전체 군내부의 법당설립추진이 위축되고 나아가 군불교교가 보이지 않는 압력과 탄압을 받게된다면 군당국은 물론 김대중정부 자체도 '종교차별정권'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며, 강력한 불교계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실속의 불교를 지향하는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9년 봄 호

지상중계 혜거 스님과 떠나는 불교진리탐구 ❷
좌선(坐禪),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좌선의』를 교재로 좌선의 의미와 참선하는 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 좌선의에서 말하는 좌선하는 법

불교계진단 9 / 불교계 승·재가 인재양성불사의 현주소
흔히 말하는 불교의 인물부재, 결국 사람을 키우지 않은 업보라는 지적이다. 그 근본 원인과 승·재가의 인재양성불사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9 / '99건축문화의 해 특집
우리 옛 절의 건축체험 1
가보았어도 또다시 가보고싶은 절, 부석사.
부석사는 자연을 닮아 흐름이 살아움직이는 듯 느껴지는 도량이다
젊은 건축가 류경수 씨와 함께 새롭게 음미해보는 부석사의 건축체험.

문화시평 / 불교교리의 현대적 해석
엔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이 불교의 중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교리적 근거를 통해 소개한다
- 제3의 길과 불교의 中道

특집 / 희망의 상징, 이 시대의 미륵신앙
민중들의 삶의 희망으로 이 땅을 지켜온 우리의 민족신앙, 미륵.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소하고 어렵고 불안한 이 시대에 정신적인 희망을 가져다주는 미륵신앙을 재조명한다.

21세기 불교정보화를 위한 과제
인터넷 불교사이트 만드는 법과 운용하는 법

인물포커스 /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학술편
근,현대 재가불자들 중 각 분야별로 불교활동의 현저한 업적을 남기고 타계한 선각자의 삶을 조명하여 재가불교운동의 당위성과 모범적인 불자상을 정립한다.
- 화엄학과 심론연구의 대가 현곡 김잉석 박사
- 근대 한국불교학의 태두 포광 김영수 선생

우리시대의 匠人 / 불교문화를 빚는 사람들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젊은 장인들의 숨결을 느껴본다
- 전통 창호(창과 문) 장인, 심용식 씨

사찰과 자연생태 / 1 해우소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절집 화장실, 해우소(解憂所).
최근 환경미화를 이유로 사라져가는 해우소의 자연친화적인 구조와 형태를 소개한다

고전산책 / 백파 스님과 추사 김정희의 對論 4
백파 스님의 편지 - 김참판 정희에게 답함

특별기고 / 인각사 보각국사비 복원기

서평 - 허운 스님의 『참선요지』

불교계 주요일지(1998.12 - 1999.3)

불교관계논저 종합색인(1998.12 - 1999.3)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각 사암 스님께 드립니다.


윤홍숙 (41세)

윤홍숙 보살은 출가의 뜻이 있어 집을 나가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본인이 출가를 하겠다면 한집안에 출가자가 있다는 것은 크게 복된일이 오니 집안 모두가 환영합니다. 그러나 정리 할 것은 정리하고 형제 모두에게 환영과 축복속에 출가를 바라오니 혹 스님들께서 윤홍숙 보살을 아시면 설득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홍숙 보살님의 출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세간법이 불법이고 불법이 세간법인데 세간을 외면한 불법이란 있을 수 없으니 집에 와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모든 형제와 인연있는 분들의 축하 속의 출가하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연락처 0351-861-0161 / 011-396-8525 임응순
02-3480-2184 / 02-956-4014 윤미숙

BBS 법륜스님 '1백일 강좌' 세상시름 덜어주는 감로수

부처님 근본 가르침 통해 고민 해결…7월17일 종강 재방송 검토

21일 오전11시. 불교방송의 인기 프로 법륜스님의 1백일 법문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를 녹음하고 있는 서초동 정토포교원 중앙법당.

평일인데도 3백여명의 불자들이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법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메모지를 준비해 법문 내용을 적고 있는 보살, 현장에서 듣는 것도 부족해 법문 내용을 녹음하고 있는 대학생 등 마치 입시생 교실을 연상케 할 정도로 진지하다.

또 법문에 참여한 사람들도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경인지역은 물론 충청 강원 등 전국에서 모여들 정도로 열기가 대단하다.

청법가에 이어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의 법문이 시작됐다. "자 한 번 따라 읽어 보세요 '부처는 자기의 성품을 지은 것이니 몸 밖에서 구하지 말라. 자기의 성품이 미혹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자기의 성품을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니라' 이 말씀은 육조 혜능스님의 가르침을 적어 놓은 〈돈황본 단경〉에 나오는 가르침으로 성철 큰스님께서 해설해 주신 대목입니다."

BBS 청취자들은 매일 밤 11시5분 주파수를 불교방송에 고정해 놓으면 1백분동안 차분하고 따스한 법륜스님의 감로 법문을 들을 수 있다.

4월19일부터 방송되고 있는 이 프로에서 법륜스님은 불교의 첫걸음, 부처님의 일생, 불교의 근본사상, 불교 변천사를 포함해 〈반야심경〉과 〈금강경〉, 〈육조단경〉 등에서 발췌한 내용을 토대로 실생활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청취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가 이처럼 법회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라디오 청취자들에게도 주목 받는 이유는 인간성 상실, 자연환경 파괴 등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서 찾고자 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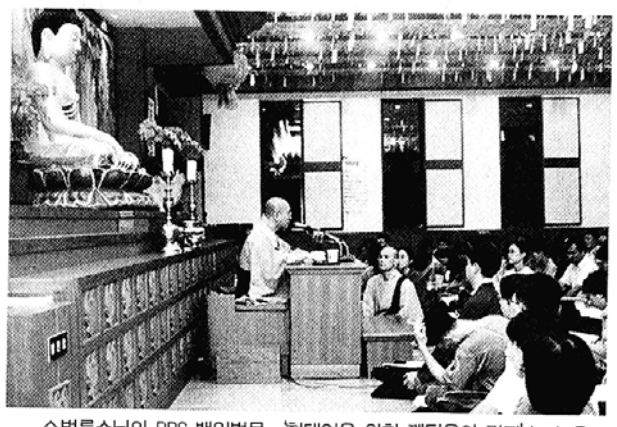
하지만 가장 큰 인기 비결은 초발심자들이 자칫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끼기 쉬운 불교 교리나 용어를 쉽고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주는 강의식 법문에 있다고 청취자들은 입을 모은다.

방송을 못듣는 날이면 가족들에게 녹음 부탁을 할 정도로 열성적인 직장인 이소희씨(24)는 "타 종교를 비방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폭넓은 예화를 들어 법문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며 "사회문제나 여성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계해 설명하는 것이 이 방송을 계속 듣게 되는 이유"라고 즐거워 했다. 또 주부 이선미씨(54)와 대학생 김철운군(23) 등 네티즌들도 하루 종일 일이 안풀려 지쳐 있다가도 밤에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나면 용기와 힘이 생긴다고 하이텔을 통해 청취소감을 올려놨다.

박상필PD는 "어려운 시기에 이 시대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며 "청취자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방송이 끝난 뒤 재방송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는 청소년 청취자가 많은 심야 시간대에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비롯해 대학생, 직장인, 주부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불교 교리를 통해 해소해 주면서, 폭넓은 청취층 확보라는 새로운 성과를 얻어내 주목을 받았다. 지난 25일 서초동 법당에서 마지막 녹음을 마친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는 오는 7월17일까지 방송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법륜스님의 BBS 백일법문.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는 녹음 현장(정토법당)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명사들의 건강비결 ⑨



박 경 훈 '불교저널' 편집인

새벽마다 뒷산 거닐며 명상 음식 가리지 않고 적게 먹어

새벽 3시30분이면 잠자리를 털고 일어선다. 월간 〈불교저널〉 창간호를 7월 20일 세상에 내놓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박경훈 〈불교저널〉 편집인(67,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배달된 조간신문을 보고, 뒷산으로 향한다. 운동과 명상의 시간이다. 빨리 걷거나 맨손체조로 약간 땀이 날 정도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운동이다. 최근에는 월간잡지 〈불교저널〉 창간을 준비하면서 걷거나 운동하며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한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6시쯤. 메모를 정리하고, 원고를 쓰고, 책을 읽는다. 아침식사 메뉴는 죽. 특별한 것은 아니고 전날 먹고 남은 밥을 끓인 것이다.

"건강을 자랑하지도 않지만, 건강을 위해 특별히 먹는 것이나 운동에 신경쓰지 않아요. 그저 글 쓰고 책 만드는 일을 업으로 알고 살아왔죠."

그러나 특별한 비결이 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다.

"내가 지금도 일을 하려고 욕심을 내는 것은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나면 반갑고 즐거운, 그래서 스트레스도 풀고, 적당한 긴장을 얻습니다. 일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화학, 수학을 전공한 친구도 있어요. 그들의 정확성이 나에게는 훌륭한 가르침이 됩니다."

주위에서 술, 담배를 끊으라고 권유하지만, 끊는다거나 줄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식생활과 관련해서도 까다롭지 않다. 음식을 가리지 않으며, 즐겁게 먹는다. 단지 적게 먹는 것만큼은 지킨다. 이것도 건강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많이 먹으면 졸음이 오기 때문이라고.

스트레스는 즉시 풀어버린다. 원고를 쓰다가 막히면 놓아버린다. 대인관계도 방하착(方下着)이다.

"바둑 두는 사람에게서 들은 얘긴데, 다음 수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 판을 포기하라더군요. 그런 쉼표가 있어야지요. 건강에 대해서는 자랑하지도, 숨기지도 말랬는데, 이렇게 드러냄이 민망할 따름입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입시생 참선지도' 프로 신설

불교TV 28일부터 부분 개편

불교TV(사장 허문도)는 28일부터 '입시생을 위한 참선지도' '혜원스님의 선체조' '사찰 통신' 등 3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한 부분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우선 '입시생을 위한 참선지도'(월~토, 오전 6시45분~오전6시55분). 이태영 한국요가수련원장이 진행하는 이 프로에서는 불교 수행법을 통해 시험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참선 내용과 지도 방법 등을 제시해 준다. 또 '혜원스님의 선체조'(월~토, 오전6시55분~오전7시5분)는 선체조의 준비자세부터 유법행선 등 실생활에서 간단하게 응용해 볼 수 있는 선체조를 '함께 생각해 보는 불교 이야기 코너'와 함께 방영한다.

이외에도 종단이나 사찰소식 등을 음악영상과 함께 꾸미는 '사찰통신'(월~토, 오전8시15분~오전8시25분)도 불교 정보와 함께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



◇ 선체조의 준비자세부터 유법행선까지 소개하는 '혜원스님의 선체조'.

단편영화 '천년동안 미륵은…' 8월 촬영

화엄-화쟁사상 돌미륵 통해 형상화

단편영화만을 고집하며 자신의 독특한 영화 세계를 구축해온 신성호감독이 최근 불교영화 '천년동안 미륵은 그곳에 서 있었다'를 제작 기획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천년동안 미륵은…'은 밀레니엄시대를 앞두고 '전쟁' '이데올로기' '대중' 등 우리 역사의 모순이였던 세가지 화두를 돌미륵을 통해 형상화 한 작품. 이데올로기의 상처를 안고 사는 재혁, 종교적인 구원에 의지하는 평범한 진주, 신세대 여성 은지가 함께 돌미륵을 찾아 다니며 각자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신성호감독

신감독은 "등장인물이 각기 지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화엄과 화쟁사상에 대해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영화는 8월부터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며 홈페이지(www.121.co.kr)를 통해 연기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대불청 이상대회장 사의표명

7월4일 임시 대의원총회

그동안 물의를 일으키며 탄핵 위기에 직면해 있던 대한불교청년회 이상대 중앙회장이 사임할 전망이다.

회원간 불협화음을 초래하고 지난해에 정화개혁회의를 지지하는 듯한 성명서를 발표해 물의를 일으켜 퇴진요구를 받아오던 이상대 회장이 7월4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제39차 대불청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회장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중앙의 업무 마비, 사무실 폐쇄조치, 전국불청대회 무산 등 제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회장직을 사임할 의사를 밝히고, 수석 부회장을 통해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중앙회장 사임의 건과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불청 '법회 활성화'

서울불교청년회(회장 김인택)는 19~20일 베어스타운에서 정체성회복을 위한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부서 임원을 보강하고 조직화해 부서 및 법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등 및 리본, 용루손잡이 제작을 통해 수익사업을 벌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기초교육원 임원인선 및 시청각교육의 건과 2~3개월 단위의 연수원교육 실시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됐다.

청소년 소식

심성개발 · 극기훈련

삼천사 부설 인덕어린이집 제1회 여름불교학교가 7월 24일~25일 열린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참선을 통한 자아 심성개발, 수련을 통한 극기훈련 등을 통해 불성개발을 통한 종교적 만남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02)353-3004

어린이 · 청소년 캠프

금강경독송회 제6회 하계 어린이 청소년 캠프가 7월 24일~26일까지 개최된다. 어린이는 경주 오케이그린목장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은 포항 금강정사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0562)261-2231 오성민

파라미타 임원 연수

파라미타연합캠프 운영요원 연수회가 7월 3일~4일 오대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다.

연합캠프운영요원들에게 사전 연수를 통해 담당업무를 숙지시키고, 행사 진행요령을 습득시키기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회에는 전국에서 1백2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02)723-6165

청교련 사천지부 창립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경남 사천지부가 창립된다. 청교련 사천지부(지부장 이길열)는 7월 3일 현성스님(청교련 이사장) 초청 창립기념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심리검사 · 학습상담

목동 청소년회관은 매주 월~금요일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지능검사, 성격검사, 적성검사, 학습검사 등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또 중학생을 위한 방학특강 학습방법 향상 프로그램, 자기표현훈련, 심리극 등의 상담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어린이 한문서당 열어

사단법인 우리문화사랑(원장 김충호)가 7월 19일~8월 27일까지 매주 월, 수, 금요일 오전 10시30분~11시30분 초등학교 4,5,6학년을 위한 한문서당을 연다. (02)3675-5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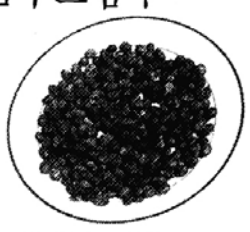
함지골 여름방학 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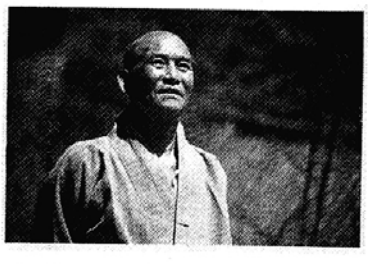
함지골수련원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여름 문화특강을 7월 26일~8월 20일까지 2차에 걸쳐 연다. 동요, 농구, 만화, 기타, 우리가락, 글쓰기 등을 옴니버스식으로 진행한다. (051)405-5222

호남지역 명예학생기자 모집

부처님 닮으려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발행하는 청소년 소식지 월간 〈무지개걸린 나무〉에서는 호남지역에서 활동하는 명예학생기자를 모집한다. 나무 편집실은 호남지역 청소년불자의 소식을 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영호남 교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053)783-4478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 檀단 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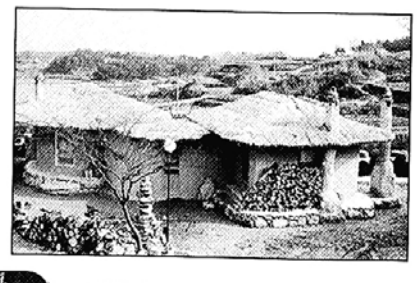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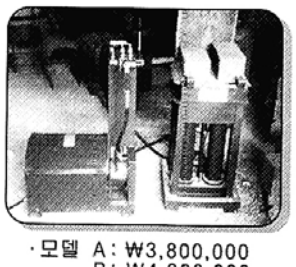
상담문의 ☎ (02) 3437-8282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 관련 전문 회사 황토 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화제의 신간



운월스님의 세상사는 지혜



운월스님

佛國의 아침을 여는 풍·경·소·리



"모든 생명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통합하여 과거로부터 미래로 유전되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육체는 지수화풍이 잘 화합하지 못할 때 병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 육체를 이끌고 있는 것은 마음이다. 그러므로 병이 생기면 마음에 의한 것, 업에 의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4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 생기는 것임을 인식하고 늘 참회기도와 업장소멸기도를 하면서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중에서〉

한국불교교화원의 이사장이며 불교여래원의 주지이신 백운월 스님이 가슴으로만 품어왔던 불덩이들을 밤낮으로 삼고 삼아 오색 빛 영롱한 비단실로 뽑아 올린 주옥같은 법문집! 이땅에 불국토를 이룰 때까지 정진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자 하는 한 수행승의 원력과 몸부림이 그대로 녹아 있다.
전편이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 10여 편씩 총 52편의 글이 실려 있다.
종교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인간 세상사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과 함께 명징한 사색의 흔적이 역력히 배어 있다.

※ 책을 구입하실 분은 설법연구원으로 연락하셔도 되며, 조계사 앞 불교서점은 물론 교보, 영풍, 종로서적 등 시내 대형 서점에서도 판매되고 있사오니 많은 호응 바랍니다.
※ 회원이나 법보시 등 다량 구매시 30% 할인해 드립니다.

신국판/304면/값 7,000원 / 도서출판 솔바람 · 설법연구원 ☎ 720-0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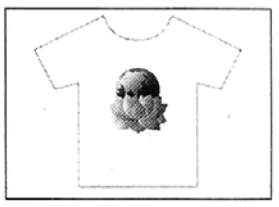
주문전화
02-732-1522
대표전화 : 02-737-8881

불·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부다피아 쇼핑몰 선정
여름 기획 상품 특판전

부다피아 쇼핑몰을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다피아 쇼핑몰이 제1회
우수사이버몰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인터넷 불교 백화점 부다피아 쇼핑몰이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쇼핑몰을 공급해 드리겠으며,
실제 생활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불교관련쇼핑몰을 개발함으로써
"생활속의 불법홍포"에
앞장 서겠습니다.

부다피아 티셔츠



■ 재질 순면 100% (20수)
■ 색상 흰색
■ 인쇄 나염인쇄 (칼라)
■ 가격 : ₩7,000

100장 이상 주문시 6,500원, 단체 시 별도 인쇄해 드립니다.



연꽃 지구촌
다가올 21C 불국토를 염원하며 연꽃속에서 피어나는 지구촌을 형상화한 디지인



자비연꽃나팔
자비의 법음이 온 누리에 울려 퍼져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는 자비 연꽃 나팔

경상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들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식탁의 기원 · 스님 요사채 · 불자들의 경전읽기 · 자녀들의 학습

■ 크기 : 가로720×세로340×높이320(단위(mm))
■ 재질 : ASH(느릅나무)완전원목
■ 가격 : ₩85,000

옥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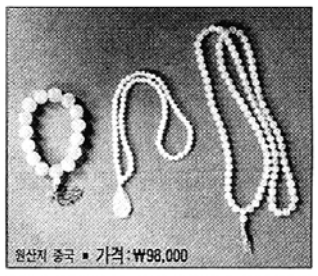
인생의 1/3은 수면시간.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등의보감 신침(神枕) 비방 한방 베개란?
本草綱目 神枕法에 의하면 고대 중국의 황제에게만 비밀 전승되어 온 신침은 여러 가지 한방 생약을 짓나무 속에 넣은 베개로서 "100일을 베면 얼굴에 광택이 나고 1년이면 체내에 모든 병이 개선되어 몸에서 향기가 나며, 백발이 검어지고 빠진이가 다시나며 이목(耳目)이 칭명해진다." 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이러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 과중한 업무,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잘자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짜증스럽거나 피곤한 당신에게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당신에게 · 뜬은 수면을 하더라도 최고의 쾌면을 하고 싶은 수험생 만성두통, 불면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목부위에 통증이나 어깨결림으로 늘 고생하는 당신에게 · 베개 높이는 수명과 직결 · 최적의 높이를 찾으시는 당신에게 · 피곤하거나, 결리는 신체부위를 시원하게 풀어줄 안마시가 필요하신분 · 코골이 방지에 여러번 실패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심하신분 코걸이는 코고는 본인에게 더 위험합니다.

■ 가격 : ₩30,000(1개),₩56,000(2개 한세트)

천연의 건강보석 수암옥 염주 세트



원산지 중국 ■ 가격:₩98,000

•수암옥의 특징

· 세계적 유명옥은 곤산옥(신강성),초신옥(호북,삼양),수암옥(요령성)이 대표적인데 그중 수암옥은 2300여년전 부터 내려와 그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한나라 이전부터 그 진가가 알려져 세계 최고의 옥으로 군림하고 있다. 특히 현재 북경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벽옥구패'가 가장 수암옥으로 판명되고있다.

· 고려사 보우스님편을 참조하면 명나라 황제가 딸 노국공주를 고려 공민왕에게 시집보낼때 제일 귀중한 예물로 수암옥으로 만든 옥대를 만들어 보내며 공민왕의 장수를 빌었다는 기록이있다.

생광석 108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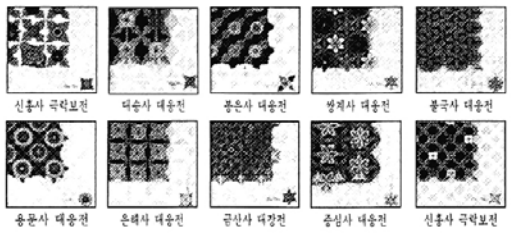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기 훨씬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여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 가격:₩35,000

불교전통 창살문양 손수건

한국의 대표적 사찰의 전통창살문양을 손수건에 그대로 재현한 고급 면 손수건입니다. 하나씩 지니고 다니시면 불심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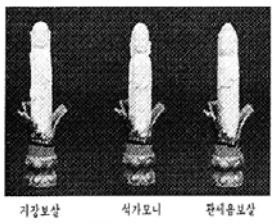


■ 재질 순면 100%
■ 인쇄 나염인쇄 (칼라)
■ 가격 ₩5,000

다량 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현상 공덕향

국내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기강보살 식가모니 관세음보살

현상공덕향은 외형이 원추형으로 금석의 연꽃문양 좌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점화 후 약 20여분이 지나면 외형상으로 나무색 향이 연꽃형상처럼 벌어지며, 향이 타는 중에 법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타고난 다음에 향 연기는 소멸되고 법상은 깨끗한 재가 되어 향로 속으로 들어 갑니다. 현상공덕향은 외형과 겉모습을 중시하지 말고 소신공양의 대원을 이루어 부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향입니다. 현상공덕향은 초하루, 보름, 재일 및 법회의 방생기도에 사용되는 고급 향입니다.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취운향당의 천연향재로 제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

■ 제조원 金城通商
■ 판매원 불·부다피아

■ 가격:₩8,000(3개 ₩21,000)

법성게 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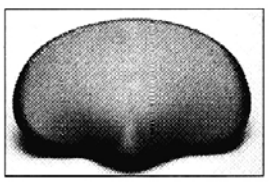
법성게는 회엄경의 방대한 내용을 7언 30구(210자)로 압축 요약하면서도 그 심오한 진리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으며 의상스님이 저술 하였다.

이러한 법성게를 걸망에 디자인 하여 만든 제품이다. 스님 및 일반신도들도 사용할 수 있으며 걸망 옆에 지퍼를 이용 사용 자가 편리하게 물건을 넣고 뺄 수 있게 하였다.

■ 크기 500×460(mm)
■ 색상 :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 가격 : ₩15,000

참선 명상 방석



국내최초 인체공학적 설계 참선 · 명상 · 단전호흡 수련방석

수행시 바른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엉덩이 부분을 높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장시간 앉아도 척추와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석

제품의 특징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게 한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진다.

크기가 작아 휴대 · 보관이 용이하며 기존의 좌복 · 방석 위에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명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준다. 사용처는 사찰, 선행단체, 선방, 심신 수련 단체 등에서 필요한 제품

■ 크기 39×43(cm) ■ 가격 : ₩27,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브론즈 코팅형 개금형 골동품형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 재질 100% 청동
■ 종류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크기 40.5cm

■ 가격 : ₩350,000(코팅형,골동품형)
₩580,000(개금형)

상진주 호신 메달

상진주(像進珠) 란?
조개속에 미리 새겨진 핵을 삽입하여 수년간 양식 과정을 거쳐 그 상(像)대로 형성 되어진 진주입니다. 상(像)은 인위적인 가공없이 자연 색상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지니며 성공률 30%로 희소가치가 큰 보석입니다.



상품명 법륜 호신불패메달 | 상품명 수다라 호신불패메달 | 상품명 다라니 호신불패메달 | 상품명 12연기 호신불패메달 | 상품명 연꽃 호신불패메달 | 상품명 계목 호신불패메달
공급가 ₩241,200 | 공급가 ₩268,200 | 공급가 ₩199,800 | 공급가 ₩199,800 | 공급가 ₩199,800 | 공급가 ₩134,000
재 질 금18k 약0.2돈 상진주 | 재 질 금18k 약0.6돈 상진주 | 재 질 금18k 약1.6돈 상진주 | 재 질 금18k 약1.6돈 상진주 | 재 질 금18k 약1.6돈 상진주 | 재 질 금18k 약0.5돈 상진주

문구암스님 법음 · 범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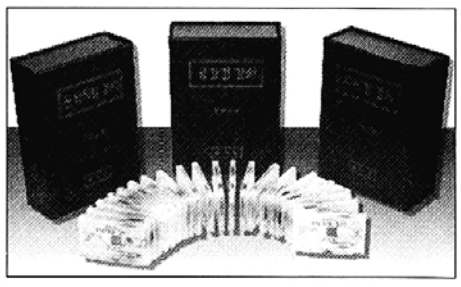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테이프 1질

·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관욕의식 등 분야별로 녹음되어있습니다

1.불공의식 2.심심이운 3.신장청 · 소증권공 4.상단청 5.상단권공 · 거목 6.대령 · 관욕의식 7.대령 · 관욕의식II 8.대령 · 관욕의식III 9.영반 · 복청소리 · 대천수소리 10.영산작법I 11.영산작법II 12.영산작법III 13.영산작법IV · 지장청사I 14.지장청사II · 지장권공I 15.지장권공II 16.전시식 17.배송 18.운신게 19.법사이운 · 명전점안 20.종성 · 천수직법 · 요잡

■ 가격 : ₩6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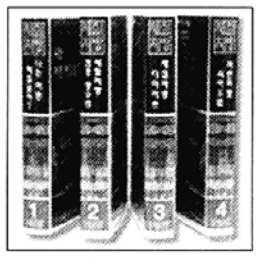
무비스님 특강 녹음 테잎



무비스님의 경전 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짬시라도 시간을 낼 수 있다면 환잡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금강경 강의
- 테잎 20개 ₩45,000
■ 지장경 강의
- 테잎 20개 ₩45,000
■ 진실직설 강의
- 테잎 20개 ₩45,000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 가격 : ₩70,000(가방포함)

자신에 맞는 체질 처방으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얻는다.

제1부 나는 어떤 체질인가?
· 체질이란 무엇인기?
· 왜 체질을 알아야 하는기?
· 일반인도 체질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기?
· 사상의학이란?
· 체질 감별법
· 자신의 외모심성 병증으로 체질 진단
· 체질병 특징

제2부 체질처방 건강 장수법
· 체질에 맞는 섭생이란?
· 체질에 맞는 보약과 운동은?
· 체중조절에 도움이되는 보약
· 체중감량에 좋은 운동
· 체질에 맞는 육류,곡류,채소
· 과일,해물,차등
· 건강장수 비결

제3부 체질처방 다이어트
제4부 자연처방 식이요법

저자 · 경희대 한방병원 원장 송일병 교수 · 경희대 물리요법과 신현대 교수
· 경희 사상의학회 회장 고병희 교수 · 상지대 체질의학과 김달래 교수

관음분청도자기



아시대의 살아계신 대선사 강석주 큰 스님 친필 관음 분청 도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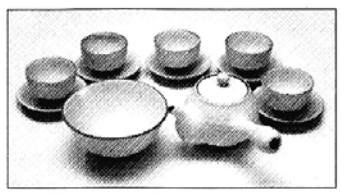
석주 큰스님 친필 관음 분청시기(부처님의 원력으로 쓰신)를 꽉한점씩 가내에 소장하시어 모든 기도성취를 이루시고 가내액화소멸하시는 관세음 보살님의 큰 복덕을 누리시기바랍니다 한점씩 소장하시여 후손에게 물려주어도 작품의 값어치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분청 도자기는 일반 백도자기와는 달리 화로에서 구울 때 성공률이 25%내외 밖에되지 않으며 고온에서 장시간 굽는등 제조 과정에 작가의 혼을 담은 정성이 깃들어야 합니다 특히 석주 큰스님(91세)의 친필 관음찬이 관서음 보살님 그림과 같이 새겨져 있으므로 소장 하신 분의 가내 액화를 소멸하시는 관세음 보살님의 큰 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작품 보증서 첨부)

■ 규격 30×30×40단위(cm)
■ 박스 31.50×31.5×46.8(cm)
■ 무게 5.15kg(도자기)×2kg(포장나무)=7.15kg

■ 가격:₩[illegible](정상가) / ₩495,000(특판가)

고산다기



고산 이규초 선생은 임진란때 일본으로 강제납치 되었던 조선도공 팔산의 혼을 사백여년만에 한국에 되돌려온 도예가이다. 팔산의 십일대손인 고취정산선생이 그 조선전래 비장의 도예술인 그 불꽃을 조국에 되돌리고자 한국의 도예특기자를 전국의 수많은 지망생 중에서 선발하여 일본으로 데려가 그 문하에서 5년간 기법을 연마시켰던바 그 수제자가 이규초 선생이다.

이리하여 이규초 선생은 그 도예전수를 말미하여 국내외 전시회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내고 있으며 따라서 고산 이규초선생은 일본살산기의 예술혼의 불꽃을 현해탄을 건너 고국에 옮겨놓은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제품은 이러한 역사를 지닌 고산요(高山窯)에서 만들어 진 다기이다.

■ 가격:₩1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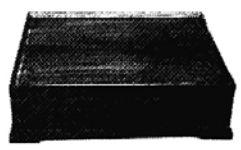
찻상



■ 크기 52×38×8(cm)
■ 재질 소나무 (100%)
■ 용도 찻상 장반
■ 제작기법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제작한 수공예품

■ 가격 : ₩54,000

다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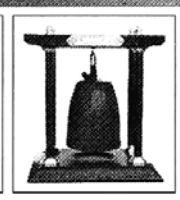
■ 크기 50×39×15(cm)
■ 재질 소나무 (100%)
■ 용도 다기 보관함
■ 제작기법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제작한 수공예품

■ 가격 : ₩126,000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



대 ₩63,000(11×25cm)
중 ₩47,000(8×16cm)
소 ₩31,000(6×1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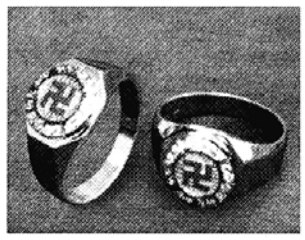
대 ₩219,000(15.5×25cm)
중 ₩89,000(10.5×16cm)
소 ₩69,000(9×13cm)



대 ₩37,000(11.5×18.5cm)
중 ₩25,000(8.5×14.5cm)
소 ₩17,000(6×10cm)

신라의 미 하면 가장 먼저 성덕대왕신종. 속명은 에밀레종을 연상하지된다. 봉덕사 선덕대왕신종 은 구경(口徑) 2.227mm, 전고(全高) 3.663mm, 두께 203mm, 음통고(音筒高)648mm의 거종으로서 종체의 규모에 있어서나,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적인 최상 최우수 걸작품이며 응양의 청등문화의 정수를 나타내는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세기의 명종이다. 이와 같은 문화의 유산을 재현하여 100% 청동과 100% 수공작업으로 만들었다

반야 불교반지



돌자의 자긍심을 세겼습니다.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태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팔정도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正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십육대묵력(十六大力)
지력(志力), 의력(意力), 행력(行力), 참력(斬力)
강력(强力), 지력(持力), 혜력(慧力), 덕력(德力)
변력(辯力), 색력(色力), 신력(身力), 재력(財力)
심력(心力), 신족력(神足力), 총법력(總法力)
항마력(降魔力)

■ 재질 금큐빅(18k14k~1.5돈) ■ 가격 : ₩130,000(18k), ₩120,000(14k) ■size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쑥환



■ 가격 : ₩55,000
(1달분 1통 (150정)
■ 가격 : ₩80,000
(2달분 2통 (300정)

3년 숙성시킨 강화사자발쑥 쑥 환 으로 드십시오 !

시지발 쑥 환이 좋은 3가지 이유
1. 복용과 휴대가 매우 편리합니다
강화사자발쑥 환은 기존의 환제품과는 달리 쑥 특유의 쓴 맛을 꺼려하는 남.녀 . 노소 특히 어린이도 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휴대나 보관도 매우 편리합니다.
2. 효과가 빠릅니다
쑥 환이 효과가 빠르다는 것은 누구나가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저녁 과식후 속이 더부룩 할 때 20환 저도를 드시면 다음날 아침 속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쑥 100%입니다
시지발쑥 환은 순수 강화사지발쑥 100%로 고품질의 강화도 특산품입니다.(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쑥 환 제품중에는 쑥을 달이지도 않고 분쇄후 풀하고 섞어서 환으로 만든 제품도 있는데 주의 바랍니다.)

향적원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로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찌	12,000원
· 밤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움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오보크린



특징
· 독특한 향, 부드러운 촉감, 미용과 면역기능
· 피부미용에서 미백효과는 물론 자연면역기능까지
· 한방 재료 추출물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시트불이 비누 (99.9% 천연 소재 사용)

■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 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교수 이학박사 최 연
세안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 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 정상가격 : ₩18,000 (1세트 3개)

법회안내

11일 강남포교원서 법문



암도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 7월 11일 오전 11시 강남포교원 '신앙과 신행' 특별법회. (02)539-2631

내달부터 반야심경 강독

호명스님(통도사 한주) 7월 6일 부터 매월 첫째,세째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통도사 부산포교원 〈반야심경〉 강독법회. (051)816-2241

7월 다보법회 법문



권기종교수(동국대) 7월7일 오후 2시 7월 다보법회. (02)703-0108

울산 정토사서 강좌



정병조이사장(한국불교연구원)7월 1일~3일 오전 10시 울산 정토사 〈반야심경〉의 세계 강좌. (052)258-9944

'근본불교' 특강

최봉수교수(동국대)7월 3일 오후 3시 30분 우리는 선우토요법회 최봉수 교수 '근본불교' 특별강좌. (02)2278-8672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열기 드높은 여름강좌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접해보자.

테마강좌 더위 씻는다

교리 · 선불교 · 불교미술 · 다도등 특강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여름 불교강좌가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다. 불교의 사상과 문화를 비롯 인접학문과의 관계, 원전강독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강좌를 선택해 배울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성철선사상연구원 백련학당 여름무료공개특강은 7월 12일~8월 18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후 3시에 〈증도가〉를, 7월 16일~8월 2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에는 목정배교수의 지도로 성철스님의 〈백일법문〉을 공부한다. (02)744-1544

대한불교삼보회는 "확실한 믿음, 바른 실천"을 주제로 제25회 삼보여름불교대학을 7월 4일~8월 29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성북구 정릉동 삼보정사에서 연다. 참선실수, 사찰경영, 불교의 현대적 이해, 불교와 인간 등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을 집약적으로 공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02)913-2859

광주불교교육원은 불교문화 열린강좌를 7월 13일 부터 22일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한다. 북한의 불교문화, 불교미술의 세계, 불교서예의 세계, 유럽의 불교문화 등에 대해 강의한다. (02)228-9098

동국대 경주 캠퍼스 정각원은 여름방학맞이 '선불교 특강 및 선수련회'를 7월 12일~15일, 19일~22일까지 2차에 걸쳐 진행한다. 불교사상의 이해, 조사선 묵조선 간화선의 수행방법 등을 지도한다. (0651)770-2016

무불선원에서는 7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 윤세원교수(인천대)가 '선과 정치사상' 특강을, 8월 13일 오후 7시30분에는 윤원철교수(서울대)가 '선과 기독교'에 대해 강연한다. (02)541-0002

초의문화재단은 7월 24일~27일까지 3박4일간 부여 부소산아래에서 제10회 한국차문화연수 '백제의 차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테마연수'를 실시한다/백제시대 행다법과 낙화암의 헌다제, 무아차회 등을 체험한다. 011-718-3456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삼학원 하계 학기 개설하고, 8월 28일까지 10주간 불교원전연구과정, 불교어학연수과정, 기초학습과정을 나눠 〈백운화상어록〉 〈진각국사어록〉 강독, 불교근본교설 이해 등을 지도한다. (02)765-9602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모임은 제1기 원전강독회를 연다. 매주 월, 목요일 오후 7시 일본불교학자 다까하시의 〈이조불교〉(일본어)의 근대사 부분을 읽고 토론할 예정이다. 28일부터 5개월간 진행된다. (02)736-0386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신행 캘린더

7월1일 (목)

■ **경불련 자비의집 봉사자법회**=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에서 운영하는 자비의 집 봉사자법회가 오후 1시 30분 미아동 자비의집에서 열린다. (02)945-4200

7월3일 (토)

■ **우리는선우 청년회 봉정암 순례**=우리는선우 청년회가 4일까지 설악산 봉정암으로 순례법회를 떠난다. (011)354-9262 심영국

■ **옛돌 설악산 자락 고찰 순례**=옛돌은 4일까지 낙산사, 건봉사, 백담사 만해기념관 등 설악산 자락의 고찰을 찾아 순례를 떠난다. (02)2266-1233

■ **대불청 대성사 정진법회**=대한불교청년회는 오후 6시 30분 대성사 대웅전에서 정진법회를 갖는다. (02)730-9108

7월4일 (일)



◇ 청량한 산내음을 만끽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산행법회에 참가해 보자.

■ **금강메아리 산행법회**=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는 금단산 통일정사로 7월 산행법회를 떠난다. 오전 8시 30분 서울 제기동 미도파 앞에서 집결한다. (02)772-9517 윤부윤

■ **우리문화기행 팔공산 자락 불교문화 탐방**=우리문화기행은 오전 8시 경북 팔공산 자락으로 불교문화 탐방을 떠난다. 칠곡 송림사, 군위 삼존석굴, 거조암 등지를 둘러본다. (051)466-4080

■ **여래지 낙산사 참배**=여래지는 오전 7시 30분 양양 낙산사로 참배기행을 떠난다. 관동지방의 폐사지 진전사터와 하조대 등도 둘러본다. (02)3445-0202

7월6일 (화)

■ **국토문화연 서산마애삼존불 답사기행**=국토문화연구회는 오전 8시 서산 마애삼존불과 태안 마애삼존불을 찾아 답사기행을 떠난다. (02)2261-1313

종단소식

조계종

일각스님 사리탑 제막

순천 송광사(주지 현지)는 21일 대웅보전에서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회광당 일각대선사 3주기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현지스님은 "회광당 일각대선사의 유훈을 이어받아 승보종찰의 면모를 일신하자"고 말했다. 이어 탑전에서 일각대선사 사리탑 제막식이 열렸다. 이날 제막된 일각선사 사리탑은 높이가 2m90cm이며 둘레는 지름90cm인 원형사리탑이다.

관음사 불교학교 수료식

제주 관음사(주지 중원)는 16일 졸업생 26명이 참가한 가운데 관음불교학교 수료식을 가졌다. 졸업식에서 주지 중원스님은 "졸업 후에도 불교공부를 계속하는 참다운 불자가 되길바란다"고 말했다. (064) 722~2829.

태고종

선암사 불서전시 연장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인곡)는 경내에 마련한 불서 및 전통향 전시회에 대한 일반 관광객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은데 따라 6월 23일까지로 했던 전시회 일정을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로 연장했다.

만세루 특설 전시관에 마련된 전시회에는 혜우스님의 저서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를 비롯 1천여권의 불서와 심향 혜향 등 전통 천연향이 전시되고 있다. (0661)54-5247

천태종

화성사 햄 기지국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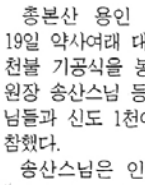
성남 화성사(주지 경혜)는 청년회(회장 나종곤)가 주관이 되어 27일 아마츄어 무선국 햄 기지국을 개설했다. 아마츄어무선국의 단체 콜사인은 6N0HF 이다. (0342)742-8360

대한법화종

영각사 대웅전 낙성

용인시 영각사(주지 도광)는 7월 2일 오전 11시 대웅전 건립불사 회향 및 삼존불 봉안대법회를 봉행한다. 건평 33평의 대웅전은 1층은 요사채, 2층은 대웅전으로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대세지 보살을 봉안한다. (0331)281-9984

제주 종무원장 광파스님



제주종무원 제12대 종무원장에 문광파스님(사진 · 제주 본문사 주지)이 선출됐다. 제주교구 종회의장에는 일광스님(천안사 주지) 총무국장에는 관효스님(흥법정사 주지) 재무국장에는 관행스님(정혜사 주지) 교무국장에는 화산스님(애월 광명사 주지)이 각각 선출됐다.

조동종

국운융창 기원 방생법회

18일 충북 충주시 조정지댐(중앙탑)에서 국운융창 및 호국영령들을 위한 종단합동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에는 지명 승정원장, 학봉 총무원장, 범해 종회의장 등 종단 스님들과 신도 등 7백여명이 동참했다.

해동종

대원사 약사 · 삼천불 기공



총본산 용인 대원사는 19일 약사여래 대불 및 삼천불 기공식을 봉행. 총무원장 송산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신도 1천여명이 동참했다.

송산스님은 인사말에서 "가족 친지 이웃이 모두 건강하고 복을 받는 자비도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약사여래부처님은 앉은 키 7m, 좌대 5m로 오는 2000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시판

알림

▲**월악산 된장판매**=강남포교원 생협은 6월의 특산품으로 월악산 된장을 판매한다. 건강에 좋은 무공해 된장으로 6kg에 3만5천원. (02)539-2631

▲**치매노인보호무료서비스**=은천노인복지회는 휴가철을 맞아 치매노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8월 2일~6일, 9일~13일 1, 2차로 나눠 치매노인 보호무료서비스를 실시한다. (02)2249-9980

▲**성철선사상연구원 이전**=성철선사상연구원이 최근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1가 51번지 타운힐 2층으로 이전했다. (02)744-1544

강좌

▲**수지침, 뜸 요법**=불교복지보건대학은 7월 1일부터 고려수지침, 침, 뜸요법, 풍수의 과학적 이해 등을 주제로 특강을 연다. (051)647-6556

▲**초급 수화교실**=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3개월 과정의 제2기 수화교실 초급과정을 연다. 매주 수,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수화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등참가능하다. 수강료는 월 1만원.
(0443)652-0900

▲**수요 경전연구반**=능인선원 수요경전연구반이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금강경〉, 〈능엄경〉, 〈아함경〉등을 공부하며, 낮반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저녁반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실시한다.
(02)577-5800

▲**무료한문강좌**=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무료 한문강좌를 연다. 배명고 한문교사 이승주 선생님이 지도한다. (02)571-2988

▲**꽃방창업교실**=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꽃방 운영을 위한 창업교실을 연다. 꽃 포장기술에서 부터 웨딩이벤트연출, 운영까지 지도한다. (02)571-2988

▲**가정생활개선교육**=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7월 2일부터 매주 화,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장애인 부모를 위한 가정생활개선교육 '건강한 가정 우리가 가꾸어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선착순 15명.
(02)989-4215

▲**어울림과 나눔학교**=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 봉사활동에 관심있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제2기 어울림과 나눔학교를 개최한다. 7월 5일~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장애인 봉사관련 고육강좌를 실시한다. (053)476-7700

▲**미용사자격증반**=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주부, 일반인, 고3취업생을 위한 미용사자격증반을 연다. (051)265-9471

▲**공예 · 홈퍼션등 무료공개강좌**=육수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도예, 퀼트, 손뜨게, 홈패션, 한지공예, 꽃꽂이 등의 무료공개강좌를 실시한다. 7월 2일 오전 10시. (02)2282-1100

모집

▲**노인복지 자원봉사자**=연꽃마을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성별, 연령 제한없으며 무의탁독거노인들의 말벗, 생활상담, 가정방문 가사지원 등의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면 된다. (02)203-3677

▲**무의탁노인 결연후원자**=연꽃마을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송파구내 무의탁독거노인과 일대일 결연을 맺을 후원자를 모집한다. 1구좌 1만원 이상 기탁할 수 있으면 된다. (02)2203-3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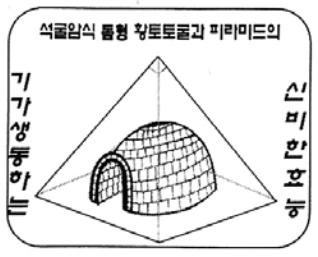
▲**남자 목욕보조자원봉사자**=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중증장애인 남자의 목욕을 보조해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매월 2, 4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에 활동가능해야 한다. (0443)652-0900

▲**btn 모니터**=불교TV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일할 99년도 하반기 방송모니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제출서류는 A4지 2매이내의 방송 프로그램 비평문(시청소감)과 이력서이며 마감은 30일까지. 모집대상은 40세미만(성별 및 학력 불문).
(02)3270-3478

황토 집(토굴)

나무 장작과 구들방, 그리고 황토 외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과 일체가 되는 살아 숨쉬는 황토 집을 짓겠습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황토집(토굴)

- 자연식품+한약재 배합
- 황토 미장 특허
- 돔형 토굴체험 황토 벽돌 공장 견학
- 황토 사랑 모임회 월 1회 개최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FAX: 0551)283-6531
H.P: 017)585-6045/ 017)566-9969

'98 21세기 1위 캐릭

불자님! 운전연수를 받으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듯이 AMT로 학습을 하시면 60일만에 영어능통자가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98년도의 이슈상품

국내 최초로 개발된 특수 기능성 TAPE
영어문장 자동 암기 TAPE

영어 문장 자동 암기 테잎
AMT
AUTO MEMORY TAPE
2~3년의 시간과 노력을 60일만에

앗! 이럴수가! …
탄생과 환호!
과연 굉장하더군요!
영어학습에 관한 한 이제 겁증은 끝났습니다.

새천년! 21C 지식사회 (Knowledge Society)는 AMT학습자들이 이끌어 갈 것입니다.(Don't be far from the information)



영어교육컨설턴트 김 동 식

초등3년에서 직장인까지
AMT는 알파벳도 모르는 초등학교 3년부터 TOEIC점수 800~900점을 얻고도 영어로 말한마디 작문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성인에 이르기까지 최단시간내에 영어회화를 정복하는데 있어 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상의 영어회화 교재입니다

■ AMT 60일이면…
- 도대체 어느정도 학습효과인가?
●일반 TAPE 학습의 10배 이상 효과
●일반학원 수강의 5배 이상의 효과
●해외어학 여주의 3배 이상의 효과
●2-3년의 노력과 시간을 60일에

■ AMT의 특수기능
●LAB실과 CD-ROM의 기능
●어학전용 학습기보다 우수
●문장 자동 기억기능
●오직 S/W 1회면 OK!
●TOEIC, G-TELP, 수능 L/C 완전해결
●의지력 강화 프로그램

AMT가 고정관념을 뒤집는다!
용기를 내서 AMT로 전화 주세요.
속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100%리콜 Language Bank 랭귀지뱅크 F.T.C 교재 사업단
전국불자고객관리부 051)861-7705 (척척 영어)

大道眞人 육신(庚申) 道通 정진 大法會

태양은 모든 道의 근본인고로 가식과 하늘을 배신하는 자는 가차없이 내려친다. 고로 선근과 道의 종자를 없애며, 증상운기의 인본시대에는 15진주로 금강경 지계수복자라! 영과 혼을 마음으로 통섭 정신,심신,육신의 구천을 평정. 大道心力通天과 심리학적 心의 사상과 六意六根六識으로 천안통, 천리통, 타심통, 신족통, 숙명통, 루진통을 얻어 수마, 인마, 색마들을 항복받아야 도인, 선인, 진인 출현 미묘법으로, 유,불,선,천주교, 기독교, 토속종교를 육통으로 포용할 수 있는 대용맹정진 수행으로써, 생애의 영생비법과 영가해탈법과 득도법으로, 병마에 고통받고 신에 고통받는 분들은 ㉮ ㉯ ㉰ 기도법으로, 본인기도로 성취하는 날인고로 귀신도 알지 못하며, 천복의 5월 경신일인고로 모든 마장을 이기고 큰 뜻을 가진 분은 태양의 진면목을 채득, 후천증상 인본시대에 사명자가 되시기를 찬란한 태양의 이름으로 가름합니다.

- 특강 : 지금까지 금강경 사구계를 비밀장에 추어진 법장을. 태일대사 직강하오니 금강의 대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입제 : 7월 6일 亥시, 해제 7월 7일 亥시
- 회비 : 1박2일. 식사제공, 일금 5만원
- 장소 :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360-188호 본원
- 전화 : 02)821-6622/야923-3110
휴 016)239-3110

노선버스 85,25,26,94,95,102,303,33-1,142,26-3
전철1호선 노량진역 하차 버스 2호선 신림동 7번출구 앞 버스정류장
(구모자원고개 하차, 동작구 약사회골목 안에 있음)

度僊太日宮六神道通會長
대한불교 약사선원장 태 일 합장

철야용맹정진 수련회

기본 수행법 교육(토요일 저녁 7시~9시)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숨차지 않고 헐떡대지 않으며 기계처럼 자동으로 숫자 헤아려지고 마음이 일체 동요되지 않는 완벽하게 절하는 비법
◈**염불 금강경 독경하는 법** : 수행시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 몸에 진기가 빠져나가 피곤하고 졸립고 지겹고 침은 마르며 목이 아프고 번뇌망상은 들끓어 삼매에서 멀어진다. 자성의 운율대로 해야 단전호흡이 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에 한맺힌게 풀려 큰 소리로 염불해도 목 아프거나 쉬지 않고 힘차게 박력있게 신명나고 자신있게 업장을 조복받는 상근기 되는 수행업.
◆ **장궤합장자세, 좌선자세, 행선, 와선 수행시 자동 단전호흡되는 법.**

철야 정진 (토요일 10시- 일요일 오전 10시)

한글금강경 봉독2회, 석가모니불 염불 정근, 도인체조건강법, 108배2회, 와선호흡법, 수행상담 점검, 축원 기도 7회
◆ **넉넉한 복장, 세면도구, 예약수련 30명, 수련비 무료**
출가예정자 수행체험, 특별소원성취기도 수행자 업장소멸용맹정진 수행자를 모십니다.

◆철저한 수행교육후 수시 수행점검, 1일 2시간씩 4회 수행.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1일 2식, 식후 30분 행선, 운력1시간 (일주일 3만원, 보름 7만원, 한달 15만원, 백일 50만원)
◆철야정진 동참자중 수행을 올곧게 잘하시는 고학력의 거사님들의 참여가 70%넘고 부부가족단위 수행자가 많습니다.
◆차물 암벽에서 다량의 약수가 나옴 (일년 두어도 이끼가 끼지 않는 특급수)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태국 최초의 한국절 한마음선원 태국지원이 개원 2개월만에 교민 불자들을 하나로 묶어내며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한마음 선원 태국지원 교포불자 신행공간 정착

동남아지역 포교를 위해 지난 4월 25일 태국 방콕에 개원한 한마음선원 태국지원(지원장 혜단)이 개원 두달여를 맞으며, 현지 교포 불자들의 신행포교공간으로서 정착돼 가고 있다.

"현재 매주 일요일 태국 각 지역에서 찾아오는 50여명의 교민불자들과 대행스님의 비디오법문을 접하며, 마음관하는 법을 함께 공부하고 있다"고 지원장 혜단스님은 말했다. 스님은 "지난 5월 22일 부처님 오신날에는 연등으로 장엄하고, 봉축 법요식도 거행해 교민불자들과 현지인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다"고,

태극지원은 지난 2월초 현지 교민불자 20여명으로 구성된 재태한 인불자회가 꾸려지면서 태국에 한국절을 만들자는 원력으로 추진돼, 지난 3월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주지 혜원스님 초청법회때 한마음선원 태국지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4월 25일 대행큰스님 초청 법회를 갖고 정식으로 개원했다.

태국 현지에는 10여개의 한국교회가 들어서 있지만 한국 절이 생긴 것은 한마음선원이 처음이다.

태국의 가정집을 세얻어 마련한 조그만 법당이지만 낯선 태국땅에서 한국 불교의 전통과 문화, 사상을 전하고, 이를 통해 교민불자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있는 것이다.

"대행 큰스님 다녀가신후 많은 이들이 많은 감화를 받아 더 열심히 공부에 임하고 있다"고 전하는 혜단스님은 "자기 부처를 믿으라는 큰스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배우고, 방콕 지원을 기점으로 절이 없어 마땅한 신행활동을 못하고 있는 파타야의 교민불자들과도 자주 만나 큰 스님 가르침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영광군 백제불교 도래지 성역화

기독교계 반발…주민은 찬성

"특정종교위한 행사"에 "국책사업 일뿐"

전남도와 영광군이 관광전남 만들기를 서원하며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을 펼치는 것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기독교계가 특정종교만을 위한 행사라며 반발해 지역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

영광군은 백제불교 최초전래 역사성과 장소성을 구체화 하기위해 총 92억원(불교계 민자유치 35억원 포함)을 투입, 진내리 일대 1만3천700여평에 200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영광군의 민자유치 계획에 따라 불교계도 백제불교 최초 도래역사를 정립키 위해 법성포에 18m 높이의 마라난타상을 건립키로 하고, 불상건립추진위(위원장 종걸·화엄사 주지)를 구성하여 백양사 다정스님, 대흥사 보선스님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대해 영광군기독교연합회는 16일 영광읍교회에서 '불교 성역화 사업 저지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열었다. 이들은 8일에도 긴급 교역자회의에서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성역화사업 저지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광주시 기독교교단협의회도 최근 열린 임시 임원회에서 영광군의 관광명소화사업 반대운동에 동참할것을 결의했다.

영광군의 한 관계자는 "성역화사업은 전남도가 97년부터 5년계획으로 '건강한 고장만들기'를 주창하며 총 3조6천4백11억원을 투자하는 전남 3대권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특정종교와는 무관한 국책사업이다"며 "기독교계의 반대에 맞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으며 이미 시작돼 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영광 법성포의 한 주민도 "이 지역을 역사적 관광지로 만들려는 지역발전안에 주민들은 희망을 갖고 있다"며 "기독교계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역주민들의 정서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백제불교 최초전래지 성역화는 인도스님 마라난타가 384년 백제에 들어와 불교를 처음 전파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서해안관광시대에 대비 관광거점화를 위해 9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영광군 법성포에 주민 휴게실 및 편의시설을 갖춘 공원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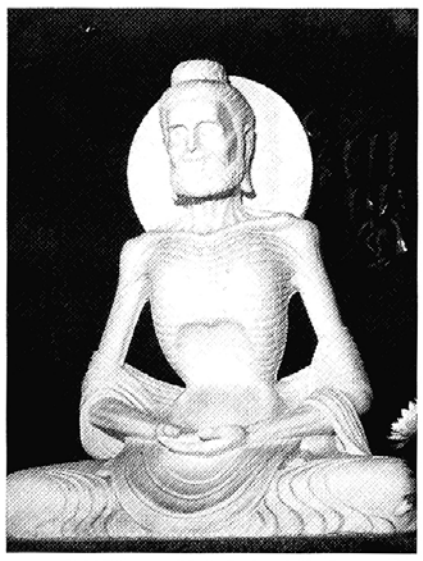
부처님 '고행상' 봉안

와우정사 한국 최초…대각전도 준공

대한불교 열반종 총본산 와우정사(원장 김해근)는 20일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된 석가모니 부처님 고행상 봉안식과 대각전 준공식을 가졌다. 서암스님(조계종 전 종정)이 증명법주로 봉행된 이날 법회에는 도암 대승종 종정, 용화 임제종 종정 등 각 종단의 대표들과 신도, 스리랑카·태국·헝가리·러시아 대사, 독일 부대사 등 1천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봉안된 석가모니 부처님 고행상은 중국에서 수입된 한백옥으로 7년동안 조성되었으며 뼈와 핏줄이 드러나는 앙상한 모습과 더부룩한 수염, 우주의 실상을 꿰뚫는 형형한 눈빛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미혹으로부터 해탈하여 대자유인이 된 부처님의 6년간 고행하여 대각에 이른 찰나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열반종 김해근 총무원장은 "고행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위해 석가모니부처님께서 겪으신 고행과 그 인내, 사상을 되새겨 부처님 뒤를 따르는 참다운 불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한백옥으로 조성된 석가모니 부처님 고행상. 용인 와우정사에 봉안됐다.

전북불교 자원봉사단 발대

7백여명 참여…복지·청소년 선도 활동

자원봉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불교계에 각계각층의 불자 7백여명이 참여한 전북불교자원봉사단 발대식이 30일 오후1시 전북불교회관 법당에서 열린다. 이날 참가하는 사찰및 단체는 금산사를 비롯한 12개 사찰과 중·고·대학생 불자회 청년회등 10개 단체로 사회복지를 비롯하여 환경보전 청소년교육 범죄예방 재난구조 문화 스포츠등 전 사회영역에서 활동할 계획이라 향후 윤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립발대식 및 총회에 이어 '자원봉사의 역할론'을 종실스님(청교련 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이 강연할 예정이다.

창립준비위원장 덕산스님(금산사 총무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불교가 지역사회에서 실제적인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며 "이를위해 각 사찰과 단체가 개별적으로 전개해온 자원봉사모임을 전불불교연합회 차원으로 조직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복지 전산망 통일 시기상조"

조계종 복지포럼서 제기

'교계 사회복지시설의 통일된 전산망 구축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만큼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24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고산) 주최로 재단 강의실에서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전산망 구축방안'을 주제로 열린 불교복지포럼은 이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 교계 복지관계자 30여명이 토론을 벌인 이날 포럼에서 발제토론에 나선 조석영씨(강북장애인복지관 사업부장)는 "정보공유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불교복지가 아직 일정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은 시점에서 전산망 구축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시기상조론을 내세웠다.

김금환씨(승가원 전산연구원)는 각 시설마다 특화된 부분을 표준화할 필요는 없으며 예산확보도 의문시 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조계종 복지재단 정보지원센터와 승가원의 홈페이지를 확대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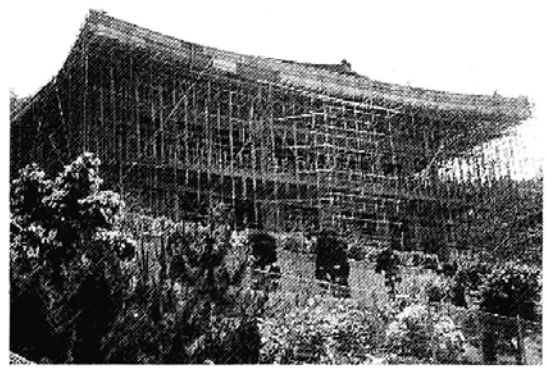
최영혁씨(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산담당)는 "현재 전국사회복지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보센터를 구상중"이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선 복지관계자들도 "지역별·사회복지종별로 다양화 돼있는 상태에서 표준화된 전산관리프로그램은 무리"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명우 기자

대구 BBS 사랑기 축구대회

2002년 월드컵유치를 기념하고 사찰 및 신행단체간 우의를 돈독히 하는 대구불교방송 사랑기축구대회가 13일부터 20일까지 능인고와 심인고운동장에서 열렸다. 대구지역 신행단체 18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우승은 국민회의 새연등회 대구지부팀이 차지했다. 이윤호 기자

우리절 불사 삼광사 명부전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부산 삼광사 명부전.

선망부모 명복비는 추모공간

총건평 264평…공정 50% 후손 효사상 선양 기대

나를 있게 해준 부모님과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함을 되새길수 있는 불사가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에서 한창 진행중이다. 돌아가신 선망 부모님과 조상님의 위패를 모시고 명복을 빌어드리는 명부전 건립 불사는 96년 2월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지난 6월 9일 기와를 올리는 불사까지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명부전은 총건평 264평의 2층 건물로 주방, 식당, 법당을 갖추고 아미타불과 지장보살, 시왕을 조성해 모신다.

명부전 불사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영가를 천도하는 일차적인 목적보다는 후손들과 남겨진 이들이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차적인 의미로 더욱 값지게 와 닿고 있다. 이 불사에 동참하는 모든 대중들은 부모님을 위해 정성을 다하면서 현재의 자신의 위치와 가족의 소중함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

부모님과 조상님에 대한 은혜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은 자신의 본성을 밝혀 지혜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불가에서는 말하고 있다. 삼광사 명부전 불사는 바로이런 맥락에 닿아 있는 불사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명부전에는 2.4m의 옥으로 조성된 지장보살과 1.8m 크기의 시왕이 은행나무로 조성된다. 크기가 고른 은행나무를 고르고 옥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랐지만 스님과 대중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져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재무국장 거호스님은 "명부전은 선망부모의 은혜를 기려 자신과 후손까지 함께 마음으로 이어주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명부전 불사를 통해 모든 생명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보시행을 펼치는 불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불사의 의미를 전했다.

삼광사는 명부전이 완공되면 그 옆에 아미타전을 다시 지어 모든 불자들이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마음을 되찾아 마음의 편안을 얻고 그 평정심이 사회 전체에 펴질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코스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협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아바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BBS 불교방송 후원회
불자 여러분의 정성과 애정어린 후원으로
불교방송 프로그램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 은행지로 : 8003478 국민은행 : 827-25-0020-943
농 협 : 069-01-238223 외환은행 : 189-13-03929-3
예 금 주 : 불 교 방 송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전화 : 02-705-5560~1)

손해보험 대리점
설계사 모집
당사는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와 제휴하는 총괄법인으로 불교문화 진흥 및 불자님들의 복지를 위한 한불복지재단(가칭) 설립에 참여하실 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자 격 ◀
25세 이상 고졸이상의 남·녀
기존 활동중인 대리점 사장님, 설계사
▶ 취급 업무 ◀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단체보험, 대출등
▶ 특 전 ◀
· 최고의 수수료(높은 마진)
· 불교계 관련 보험 업무지원
· 성지 순례 부여
· 사무실 및 집기 비품 지원
· 전담 직원 관리 시스템
연락처 대표 02)392-6233~6 / 02)737-5925
Fax 02)313-1301
H.P 011)260-4454
주최 : 주식회사 태고 대표이사 김 태 균
후원 : 한국불교태고종 전국신도회 명예회장 김 철 회
한불복지재단(가칭) 추진위원회 위원장
주식회사 太古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63-1 삼창 B/D 6층
※전화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솔잎식초
★ 발명특허 획득 제 065147호 ★
식초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초의 영양가는 원료나 제조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솔잎식초는, 장수의 상징으로 알려진 소나무(赤松)에서 채취한 토종솔잎만을 전통옹기항아리에 담아 오랫동안 순수 자연발효공법으로 숙성시켰으며, 깊고 은은한 맛과 향은 식초를 처음 대하시는 분도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독특한 제품입니다.
◎제품명 : 솔잎양조식초 ◎영업허가 : 여주제20호
◎원료명 : 솔잎 100% ◎총산도 : 4° ◎용량 : 1.5ℓ
▶온라인 : 국민은행 023-05-0035-409 김삼경
♣ 제조원 : 삼 송 식 품
♣ 문 의 : 솔잎건강연구소
휴대폰 011-389-9595, 전화 (02)2296-5151

「오가피를 오래 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늙음을 견디게 하고 수(壽)를 더하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久服卽輕身耐老 延年不老) - 동의보감」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BC 9시 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의 보도("오가피 알고봤더니 金가피")에 다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봉주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가 담긴 오가피에 관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제품: 오가피 추출액, 오가피 열매 발효액, 오가피 묘목
▮ 주소: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서북오가피직판장
▮ 전화: 0333-682-5034/3
▮ 인터넷 홈페이지:http://myhomie.netsgo.com/baeghj/

불·교·사·찰·안·내
간판 시공
연관사
■ 규격
- 종로구 80cm × 40cm
- 그외 지역 110cm × 55cm
- 개인소유지 : 제한없음
■ 재질 스텐레스
■ 허가 대행 및 A/S
취급 품목 사찰 안내간판, 사찰 연혁판, 건주용 간판, 게시판, 연등건기배선
※ 1차 설치되어 있는 기존간판은 정비, 자진철거 해드리겠습니다.
※ 지방출장 가능
신성기획 TEL: 02)3141-3789 02)332-3786 H.P: 016)336-3786

자원봉사자 줄고있다

교계복지시설마다 인력부족 '발 동동'
연꽃마을 1천명서 5백명으로 급감

자원봉사자가 줄고 있다. 상당수의 교계 복지관 및 복지시설 자원봉사자가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해말과 비교해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감소세가 궂은 일을 해야 하는 노력봉사부문에 집중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연꽃마을. 지난해 말까지 25개의 부설기관에서 총 1천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했었지만 현재 500여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기존의 활동자들이 상당수 빠져나간 대신 신규가입자가 턱없이 줄었기 때문이다.

한때 1천명을 웃돌던 소쩍새마을 자원봉사자도 올해들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소쩍새마을이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자원봉사자들의 방문일정을 기록한 일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2월 500여명에서 2월에는 2백50여명으로 급감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 온 자원봉사자와 신규가입자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

강릉 자비원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 한달 평균 35명가량 방문해 오던 것이 최근들어 2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궂은 일은 자원봉사자들도 꺼리는 형편이어서 하는 수 없이 시에 공공근로봉사자를 요청해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덕원은 작년말 130명에 달하던 것이 현재 4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식당에서 일할 자원봉사자가 없어 직원들이 대신하고 있다. 제천장애인복지관도 자원봉사자가 반이상 줄어 이들이 해오던 일을 교사들이 떠맡았다. 나눔의 집도 30% 정도 자원봉사자가 줄어들었으며, 이밖에 신도림복지관, 주몽재활원, 연화복지학원 등도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 올해 초 개원한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는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이같은 감소추세에 대해 일선 관계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부층이 경제가 다소 풀렸다고는 하나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취업일선에 뛰어들거나 부업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어느정도 노력봉사에 익숙해진 자원봉사자들이 싫증을 느낄 시점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있다. 또 남이 하니까 무작정 따라하다 힘들고 고된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감소세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았다. 이밖에 기존의 자원봉사단체를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신규공급을 발굴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과 봉사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부족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불교자원봉사연합 기획담당 이진원씨는 "보다 젊은 층을 확보해 자원봉사자의 연령대를 낮추고, 자원봉사활동과 신행생활을 견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가야산 관통도로 재설계 '환경훼손 여전'
해인사 · 환경단체 노선변경 요구

가야산 국립공원을 가로질러 88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국가지원지방도로 59호선의 재설계 노선이 기존 노선과 별 차이없어 해인사와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남도는 24일 합천군 가야면사무소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59호선(경남 하동-경북 성주)의 일부 구간인 가야-봉산간 왕복 2차로 축조공사와 관련, 재설계 노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변경노선은 △성기리 죽전리 구간은 마을부근을 지나는 기존 도로를 활용할 것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로폭을 11m에서 9m로 축소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환경보호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국립공원내의 구간은 기존노선을 그대로 채택, 약 1km 길이의 터널과 8개의 교량이 그대로 건설되는 등 환경파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인총림대책위의 성공스님은 "주민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성기~죽전구간만 변경하고 환경부에서 지적한 국립공원내의 구간은 그대로 방치했다"면서 "이는 노선재설계의 취지를 정면에서 위반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59호선 도로가 건설되면 도로를 따라 상권이 형성되어 홍류곡계곡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높아 해인사와 환경단체에서는 국립공원을 비껴가는 노선을 주장해 왔으며 환경부에서도 지난해 국립공원내 도로개설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이 도로는 가야산온천과 합천호 압곡자연휴양림, 해인골프장 등을 연결하는 관광벨트화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자칫 해인성지의 소비성 위락단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지원지방도로 59호선은 경남 하동에서 경북 성주군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01km의 도로로 문제가 되는 구간은 새로 건설예정인 가야면 치인리에서 성기리까지의 11.48km구간이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호국금강사 합동위령재

6·25전쟁으로 희생된 전몰장병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제16회 합동위령대재가 25일 증부전선 5군단 호국금강사(주지법사 김상래)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고산 총무원장, 천태종 운덕 총무원장, 서돈각 불교진흥원 이사장, 정동호 합동위령재운영위원장과 5군단 부군단장 등 군·관·민 불자 5백여명이 참석했다. 합동위령대재는 지난 84년 주한 외교사절과 불교도 5천여명이 모여 처음으로 북한군 영령까지 천도하는 합동위령재를 지낸 이래 올해로 16회째를 맞았다. 포천=고영배 기자

"21세기 사찰환경 모델 찾는다"
조계종 사찰환경위 7월10일 해인사서 모임

21세기 사찰환경의 모델과 방향이 설정된다.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위원장 성조)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해인사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21세기 사찰환경안을 마련한다.

이를위해 이번모임에서는 해인사를 모델로 조경 가람배치 주변환경 사찰운영 포교 수행 등 수행과 포교를 병행한 환경친화적 한국사찰의 방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사찰환경감시와 분쟁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 국립공원-사찰-시민환경단체가 연계하는 국립공원 단위의 사찰환경보존위 구성과 해인사 우회도로 건설문제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사찰환경위는 8월경 오폐수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분쟁시 해결방안을 해당 사찰에서 강구할 수 있는 사찰환경보존지침서를 11월경에 발간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6·25 참전 미군 천도재 봉행
위령대재위 칠곡서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미군병사 영가들을 위로하는 천도재가 봉행돼 6·25 발발 제 49주기를 더욱 뜻깊게 했다.

6·25참전 순국소년지원병 합동위령대재봉행위원회(위원장 삼중)는 23일 경북 칠곡 부승산업광장에서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6·25참전병 천도재를 봉행했다.

천도재에서는 김진홍무용단의 승무와 범패의식으로 순국선열을 위로하고 전투에서 희생된 한국군과 미군, 소년지원병, 경찰관, 민간인들에게 헌화, 분양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프레드릭 라이언이병(67, 당시 17세)과 토이(67, 당시 18세)이병이 교계의 초청으로 방한해 의미를 더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조계종 포교사단 지역별 전문화교육

조계종 포교사단(총재 정련)은 '월10일부터 지역별 전문화교육에 들어간다.

△부산·경남지역 1차 전문화교육은 10일(오후 2시), 11일(오후6시) 부산 보건복지불교대학(3분야)과 범어사(1·2·4분야)에서 각각 열린다.

△대구·경북지역은 11일 오후1시 동화사 △전주·전북지역은 11일 오전 10시 전북불교회관 △광주·전남지역은 18일 오후1시 향림사 △대전·충청지역은 24일 오후5시 한국통신연수원에서 각각 열린다. (02)737-7588

김재경 기자

목탁소리

식사나 한끼 (?)

도 필 선 〈취재1부 기자〉

23일 저녁 영남 불교계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상경했다. 국민회의 총재특보단장 한화갑 의원의 초청으로 서울 롯데호텔에 마련된 만찬에 참석차 상경한 것이다. 불교계 초청인사는 큰 사찰 주지 스님들을 비롯 영남불교계의 유력한 스님들과 재가지도자 30여명.

한의원측에 의하면 만찬의 이유는 단순했다. 지난 부산 간담회 때 영남 불교지도자들이 보여준 극진한 대접에 대한 답례로 그저 식사나 한끼 같이 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 설명대로라면 영남의 거물급 불교계 인사들이 정치인이 내는 밥 한끼 먹자고 시간과 돈을 들여 서울까지 물색없이 왔다가 간 꼴이다.

그러나 "한화갑의원이 내년 총선에 뜻이 있는 것 같다"는 한 스님의 귀띔이 아니더라도 이날 만찬에는 정치인의 복선이 깔려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 물론 정치인인 한 의원의 이같은 행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표와 여론의 향방을 좇기 마련이다.

문제는 불교계를 대표한다는 지도자들의 처신이다. 아무리 사적인 자리이고, 조건없는 초청이라 하더라도 정치인들의 초청에 앞뒤 생각없이 참석하는 모습은 여법하지 못하고 보기에 민망하다. 또 이런저런 뒷말이 들려 오기도 한다.

23일 만찬에 참석했던 영남 불교 인사들이 정치인의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몰색없이' 서울에 왔다갔다는 말이 불교계에 회자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일 것이다.

선거철이 본격 다가오면 불교행사에서 정치인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될지도 모른다. 축하차 오겠다는 정치인들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되어 불교행사가 정치인들의 생색내기 말잔치로 채워지고 정작 불자들은 뒷전이 되어서는 안된다. 불교의 위상과 자주는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자 노력할 때 빛을 발하는 것이다.

(psdo@buddhapia.com)

뉴스 & 뉴스

청소년 종교의식 조사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화엄)은 21일부터 각 사찰 청소년법회 지도교사와 파라미타청소년협회, 교사불자회의 협조로 '청소년 종교의식조사'에 들어갔다.

포교연구실은 또한 어린이법회 지도자 4백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며, 포교·신도관련·종법에 관한 설문조사, 여성불자 워크샵에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광주 통일의집 후원회

불교인권위원회(상임대표 진관)는 23일 비전향 장기수들이 살고 있는 광주 통일의 집 후원회를 결성했다. 진관스님은 후원회 결성과 관련 "광주 통일의 집에는 김등기씨등 비전향 장기수 4명이 살고 있지만 생활이 매우 어렵다"며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날 때까지 자유로운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청교련 자원봉사 한마당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은 27일 서울 혜명양로원에서 99 청소년 자원봉사 한마당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효 실천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청소년 자원봉사자 100명은 문화공연과 주변 청소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은자 기자

호국 비룡사 진신사리 이운

공군 3975부대 호국비룡사(주지법사 지행스님)는 27일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및 마정수기 대법회를 봉행했다. 대구 여래선원장 법산스님이 미얀마 종교성의 허가를 받아 미얀마 사리박물관에서 모셔온 부처님 및 사리자·목련존자의 사리 3과는 3개월간 군법당에서 공개한 후 교구본사인 직지사의 후원으로 사리탑 3기에 봉안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법타스님 소청심사 제기

지난 해 조계종 사태와 관련해 호계원 심판중인 법타스님(은해사 주지)이 초심호계원의 판결이 위법이라며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법타스님은 21일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증원)에 제출한 판결무효청구서를 통해 "초심호계원의 심리절차는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함에도 전혀 알리지도 않고 궐석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재심호계원의 심리는 소청심사 청구증이어도 진행된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직할교구 보선

조계종 직할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혜담)는 광복스님의 종회의원 사퇴에 따라 보궐선거를 7월 23일 실시한다. 광복스님은 도선사 주지에 임명됨에 따라 9일 종회의원직을 사퇴했다.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7월 12~14일이다. 정성운 기자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94-8859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큰스님 요즘 장경 보실시간 없으시죠!

정원스님의

增補 玄句集

一. 本書는 고려대장경, 신수대장경, 속장경, 한국불교전서 등 全內典과 논어, 도덕경 등 外典 若干에서 參學人의 指南이 될 玄妙章句를 抄하여 한글 번역한 것임.

一. 原文과 譯文을 분리하였고 上中下卷으로 편집하되 上卷 諸經集352件, 中卷 經外集1127件, 下卷 句頌集1452件 都合2931項, 原文만 一十五萬餘字이며 每項目마다 出典을 세밀히 밝혔고 특히 하권 구송집은 첫째 字의 畵數順으로 安排하였음.

一. 此集은 抄譯者가 출가 이래로 삼십여 년 간 佛典을 열람하면서 긴요한 文句를 수시로 拔萃하여 쌓아두었다가 금번에 인연이 도래하여 출간하게 된 바 특히 抄譯者가 직접 毛筆로 原文과 譯文을 한 字 정성을 다해 書寫한 것이며 增補라고 이름한 由來는 몇 년 전에 역시 抄譯者가 출간한 바 玄句集을 대폭 修正補完한 연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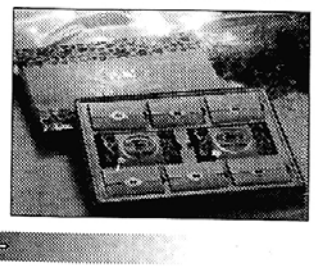
총판대리점 법우당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316-13

TEL : 994-4437 FAX : 994-4438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3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주부신행담

이뭣꼬

"가부좌를 틀고 참선한지 서너시간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스님은 선방에 들어와 '이뭣꼬'를 내놓으라며 대뜸 호통을 쳤다"

"이뭣꼬,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뭐꼬" 7일 정진끝에 법견성 법명을 받았다



그림 · 문병성

어린시절 시골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난 자주 할머니를 좇아 절에 다녔다. 절로 가는 20리 길이 좋아 매번 할머니를 따라 나섰던 나는 그 때의 추억을 영영 잊을 수 없다.

절에 가는 날이면 할머니는 부엌 광문을 걸어 잠그시고 목욕을 하신 후에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셨다. 그리고는 가득 채운 쌀자루를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 머리에 이고, 내 손에는 양초를 쥐어주셨다.

진달래 꽃이 만발한 그날도 할머니와 난 절에 갔다. 다리도 아프고 힘이 들어 무슨 꾀를 부릴까 궁리하던 차에 나는 할머니 몰래 진달래 잎을 따 주머니에 한 움큼 넣고는 지루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기 시작했다. 전에 소꿉놀이하면서 친구들과 진달래꽃을 따 먹었었는데 단맛이 나는게 좋았다.

진달래 꽃잎을 조금씩 뜯어 먹으며 할머니를 따라 가는데 점점 할머니와 멀어지는 것 같더니 눈이 감기고 잠이 와서 주저앉고 말았다. 한참만에 눈을 떠 보니 아침인지, 저녁인지 희미한 촛불 하나뿐인 어두운 방에 할머니와 비구니 스님 한분이 걱정스런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진달래 꽃잎에 마취가 돼 버렸던 모양이다.

그 후 나는 더이상 할머니를 따라 절에 다닐 수 없었다. 어머니와도 마찬가지였다.

학교 공부에 바빴던 나도 한참동안 절에 가는 걸 잊고 살았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술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예비고사를 치르고 본고사를 1주일 정도 앞둔 날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미술대학에 가는 걸 못마땅해 하시며 반대를 하셨는데 나는 그로인한 스트레스로 마음이 혼란스럽고 시험치는게 불안했다.

문득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가까운 곳에 비구니스님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있다는 말이 생각나 무작정 그곳을 찾아갔다. 수원의 겨울 날씨는 매서웠다. 눈보라를 맞으며 삼시간에 발목까지 차오른 눈을 헤쳐가며 한참을 가다보니 좁은 길 위로 그곳의 팻말이 보였다.

다 왔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 갑자기 몸에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더니 다리에 힘이 빠져 무릎을 꿇게 되었는데 눈에선 원인모를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러더니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때 내 앞에는 스님 한분이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고 계셨는데, 그때 나는 벌떡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던 길을 되돌아왔다. 돌아오는 동안 내 마음은 신기하게도 알 수 없는 충만함으로 가득찼고, 안정되어 있었다.

자신감을 얻은 나는 마침내 미술대학에 합격을 했고 졸업 후 미술교사로서 교편을 잡았다. 교사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신행생활도, 작품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냥저냥 하루하루를 보냈다. 작품을 하고 싶은 생각에 매일밤 책과 씨름하며 붓을 잡아 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나는 그런 나의 생활 속에서 '인고자의 모습'이 과연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그 모습 속에서 '불두(佛頭)'라는 작품의 아이템을 얻게 돼 1995년 6월 '불두'를 주제로 첫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화가로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전시회를 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나를 보여줄 게 없다는 허탈감으로 난 괴로웠다. 또다른 세계를 찾아 나서고 싶었다.

그러다가 시어머님이 참선하러 다니시는 부산 안국사와 인연이 돼 다니게 되었다. 큰스님에게 '이뭣꼬'라는 화두를 받아 선방에 앉았는데 도저히 집중이 안돼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을까?

새벽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오한이 나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현기증이 났다. 간신히 몸을 추스려 안국사 스님께 사정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이 뭐꼬?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뭐꼬?"라며 알아내라 하셨다. 참으로 알 수 없고, 알려고 하면 할수록 모르겠는데 기가 찰 노릇이었다.

가부좌를 틀고 참선에 든지 서너시간은 족히 지났음직한 시간이었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져 오는 경험을 했다. '좀 더 가까이 가보자'라는 욕심이 나 6일째 되는 날에는 철야기도에 들어갔다. 밤이 깊을수록 머리는 청명해졌다.

날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이었다. 안국사 스님이 선방에 들어오셔서는 대뜸 호통을 치시더니 "이것이 뭐꼬. 이리 내 놓아라"라고 하셨다. 그 때 내 몸은 후끈한 열기로 달아 올랐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다음날 아침 큰스님은 나에게 '법견성'이라는 법명을 지어주셨다.

그날 이후 나는 '영원한 자유'라는 명제로 두번째 전시회를 가졌고, '생활불교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남편을 불교로 이끌어 나란히 선방에 다니며 드반으로서 남은 생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

박광희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공부하는 부모의 모습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습니다."

전통經床의 실용화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 사찰의 강원
- 스님 요사채
- 불자들의 경전 읽기
- 자녀들의 학습

■ 재질 : ASH(느릅 원목)
■ 규격 : 가로720 × 세로340 × 높이320(단위mm)
■ 가격 : 8만5천원

•구입문의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주문(http://mall.buddhapia.co.kr)

卍 佛子 반야반지 卍

불자의 자긍심을 세겼습니다.

-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 테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팔정도
정견(正見),정사유(正思惟),정어(正語),정업(正業),정명(正命),정정진(正精進),정념(正念),정정(正定)

십육대력(十六大力)
지력(志力),의력(意力),행력(行力),참력(勤力),강력(强力),지력(持力),혜력(慧力),덕력(德力),변력(辯力),색력(色力),신력(身力),자력(財力),심력(心力),신족력(神足力),홍법력(弘法力),항마력(降魔力)



품명: 반야반지
재질: 금,큐빅(18K,14K-1.5돈)
가격: 18K-₩ 130,000, 14K-₩120,000
Size: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http://mall.buddhapia.co.kr

부다피아 쇼핑몰 여름 선물 특선

부다피아 티셔츠



연꽃 지구촌

다가올 21C 불국토를 염원하며 연꽃 속에서 피어나는 지구촌을 형상화한 디자인



자비연꽃나팔

자비의 법음이 온 누리에 울려 퍼져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는 자비연꽃 나팔



■ 재질:순면 100% (20수)
■ 색상:흰색
■ 인쇄:나염인쇄 (칼라)
■ 가격:₩7,000

100장 이상 주문시 6,500원
단체·사찰명 인쇄해 드립니다.

불교 전통창살문양 손수건

• 한국의 대표적 사찰의 전통창살문양을 손수건에 그대로 재현한 고급 면 손수건입니다. 하나씩 지니고 다니시면 불심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 재질:순면 100% ■ 인쇄:나염인쇄 (칼라)
■ 가격:₩5,000



용문사 대웅전



금산사 대광전



대승사 대웅전



봉은사 대웅전



불국사 대웅전



은해사 대웅전



법계사 대웅전



신흥사 극락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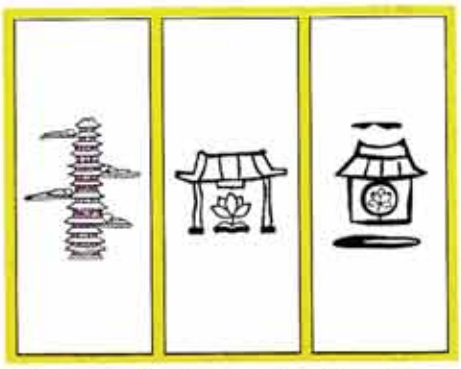


신흥사 극락보전



중심사 대웅전

쇼핑몰 주문방법
• 전 화 : 02-732-1522/737-8881
• 팩 스 : 02-737-0697
• 인터넷 : http://mall.buddhapi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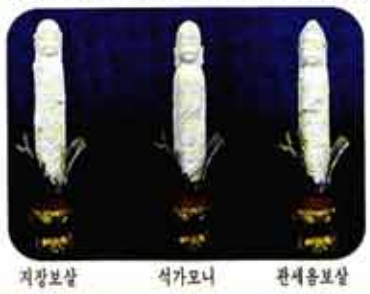
▲ 다포 ■ 크기:50cm × 39cm ■ 가격:₩800

◀ 기도포
■ 크기:84cm × 39cm
■ 가격:₩1,600

기도포 100장, 다포 200장 주문시 단체·사찰명 인쇄해 드립니다.

현상공덕향

국내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지장보살 석가모니 관세음보살

현상공덕향은 외형이 원추형으로 금석의 연꽃문양 좌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점화 후 약 20여분이 지나면 외형상으로 나무색 향이 연꽃형상처럼 벌어지며, 향이 타는 중에 법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타고난 다음에 향 연기는 소멸되고 법상은 깨끗한 재가 되어 향로 속으로 들어 갑니다.

현상공덕향은 외형과 겉모습을 중시하지 말고 소신공양의 대원을 이루어 부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향입니다. 현상공덕향은 초하루, 보름, 재일 및 법회와 방생기도에 사용되는 고급 향입니다.

•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취운향당의 천연향재로 제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 •

■ 가격:₩8,000(3개 ₩21,000)
■ 재조원:金城通商 ■ 판매원:몰 · 부다피아